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문학 석사 학위 논문

볼셰비키 여성혁명가
콜론타이와 김알렉산드라의
계급 해방과 약소민족 해방 실천
비교 연구



2025년 8월

국립부경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임은경

문학석사학위논문

볼셰비키 여성혁명가
콜론타이와 김알렉산드라의
계급 해방과 약소민족 해방 실천
비교 연구

지도교수 박 원 용

이 논문을 문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5년 8월

국립부경대학교 대학원

사 학 과

임 은 경

임은경의 문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5년 8월 22일



위원장 문학박사 한 봉 석 (인)

위 원 역사학박사 조 세 현 (인)

위 원 철학박사 박 원 용 (인)

【 목 차 】

I. 서론	1
1. 연구목적	1
2. 선행연구	5
3. 이론적 배경	14
II. 콜론타이와 김알렉산드라의 사상 형성과 노동자 해방 이론 비교	20
1. 사회주의 사상가로서의 성장배경	20
1) 알렉산드라 콜론타이의 생애와 정치적 성장	21
2) 김알렉산드라의 생애와 정치적 성장	27
2. 두 인물의 노동자 해방 이론과 사회주의 계급관	32
1) 알렉산드라 콜론타이의 노동자 해방 이론	33
2) 김알렉산드라와 소수민족 노동자 해방 이론	38
3. 두 인물의 노동자 해방에 대한 이론 비교	45
III. 두 인물의 약소민족 해방에 대한 구체적 활동	47
1. 콜론타이의 약소민족을 위한 해방 활동	48
1) 핀란드 노동계급과 민족 해방 : 콜론타이의 초기 시각	48
2) 제노텔(Женотдел, Zhenotdel)을 통한 '후즘(Hujum)' 운동	52
2. 김알렉산드라의 약소민족을 위한 해방 활동	61
1) 러시아 노동운동 참여와 우랄노동자동맹 실천	61
2) 한인사회당 창당을 통해 본 피압박민족 해방 활동	72
3. 두 인물의 약소민족 해방에 대한 활동 비교	81
IV. 결론	83
V. 참고문헌	92

볼셰비키 여성혁명가 콜론타이와 김알렉산드라의
계급 해방과 약소민족 해방 실천 비교 연구

임 은 경

국립부경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요 약

20세기 초 러시아혁명은 세계 최초의 사회주의 혁명으로, 억압받는 계급과 민족에게 새로운 해방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마르크스-레닌주의라는 보편적 이념은 구체적 현실 속에서 단일한 방식으로 실현되지 않았으며, 혁명가의 지정학적 위치, 사회적 정체성, 처한 구조적 조건에 따라 다양한 실천 양상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은 이러한 이념의 다층적 현실화를 분석하기 위해 볼셰비키 여성 혁명가 알렉산드라 콜론타이와 김 알렉산드라를 비교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콜론타이는 러시아 중심부에서 활동한 귀족 출신의 이론가로서 국가 기구(제노텔)를 활용한 정책 수립에 집중하였으며, 여성 노동자 해방과 민족문제(핀란드, 중앙아시아 무슬림 여성해방)를 사회주의 이론 속에 통합하려 하였다. 반면 김알렉산드라는 제국의 변방인 연해주 및 시베리아 지역에서 활동한 조선계 여성 혁명가로, 식민지 조선인의 민족 해방과 노동자 조직화를 통해 현장에서의 실천과 조직을 주도하였다.

본 연구는 두 인물의 사상 형성과 노동자 해방 이론, 그리고 약소민족 해방 활동을 각각 분석하고, 이를 구조적 위치성과 실천 전략의 차이라는 분석 틀을 통해 비교하였다. 그 결과, 콜론타이는 국가 권력과의 연계를 통한 ‘하향식’ 혁명 전략을, 김알렉산드라는 민중 조직화를 통한 ‘상향식’ 실천 전략을 추구하였음이 드러났다. 이는 단순한 개인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각자가 처한 공간적, 사회적 조건의 결과였다.

이 논문은 기존 연구에서 주목받지 못했던 김알렉산드라의 해방 실천을 사회주의 사상사 속에서 조망하고, 볼셰비즘 내부의 이념적 다양성과 교차적 억압 구조(계급, 젠더, 민족)의 복합성을 입체적으로 해석하고자 한 시도이다. 이를 통해 사회주의 해방 이념이 역사적·사회적 맥락에 따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용되었는지를 밝히고, 중심과 주변, 이론과 실천, 국가와 민중 사이의 긴장 관계를 해명하고자 하였다.

Comparative Analysis of Class and National Liberation Practices of Bolshevik
Women Revolutionaries: The Cases of Alexandra Kollontai and Kim Alexandra

Eun Kyoung Lim

Department of history, The graduate School,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e Russian Revolution of the early 20th century presented a new horizon of liberation for the oppressed classes and nations, as the first successful socialist revolution in world history. However, the universal ideology of Marxism-Leninism did not materialize in a uniform manner. Instead, it manifested through diverse forms of praxis depending on the revolutionary's geopolitical position, social identity, and structural conditions. This study comparatively analyzes two Bolshevik women revolutionaries – Alexandra Kollontai and Kim Alexandra (Kim Aleksandra Petrovna) – to explore these multilayered realizations of socialist thought.

Kollontai, a noble-born theorist operating at the center of imperial Russia, utilized state mechanisms such as the Zhenotdel to institutionalize women's emancipation and sought to incorporate national issues, including the liberation of Finnish and Central Asian Muslim women, into the broader framework of socialist theory. In contrast, Kim Alexandra, a Korean revolutionary active in the Russian Far East and Siberia, spearheaded grassroots movements for the liberation of colonial Koreans, combining national liberation with labor organization on the periphery of the empire.

This study examines the formation of their political thought, their respective theories of workers' liberation, and their concrete actions for oppressed nations. By analyzing these through the lens of structural positionality and strategic orientation, it reveals that Kollontai pursued a "top-down" revolutionary strategy rooted in institutional power, while Kim Alexandra practiced a "bottom-up" approach through direct mass mobilization. These differences were not merely personal choices but rather reflections of the distinct socio-political

conditions they faced.

Ultimately, this research highlights the ideological diversity within Bolshevism and sheds light on the complex intersections of class, gender, and nation in socialist praxis. It re-evaluates Kim Alexandra's contributions within the intellectual history of socialism and argues for a more nuanced understanding of revolutionary agency across center and periphery, theory and practice, and state and people.



I. 서론

1. 연구목적

20세기 초 러시아혁명은 세계 최초로 프롤레타리아 계급이 권력을 수립한 사회주의 혁명이었다. 에릭 홉스봄이 지적했듯이 서유럽에서는 프랑스 혁명과 영국 산업혁명이라는 이중 혁명을 통해 부르주아 자유주의와 자본주의 체제가 확립되었다. 이는 서구적 근대화 경로를 대표하는 사건이었다. 그러나 1917년 10월 혁명으로 등장한 소비에트러시아는 이러한 서구형 이중 혁명을 대체하는 또 다른 형태의 사회변혁을 추구하였으며, 이를 통해 서구와는 다른 독자적 근대화의 길을 열어가기 시작하였다. 러시아혁명은 전 세계 노동자 계급과 억압받는 민족들에게 새로운 해방의 가능성을 제시했다.

그러나 마르크스-레닌주의라는 보편 이념이 현실에 적용될 때, 그것은 결코 단일하거나 획일적인 형태로 나타나지 않았다. 오히려 혁명가 개인의 지정학적 위치, 사회적 정체성, 그리고 그들이 직면한 구체적인 억압의 형태에 따라 상이한 해방의 비전과 실천 전략으로 분화되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사회주의 혁명 이념의 다층적 실천 양상을 규명하기 위한 구체적 사례로서, 볼셰비키 여성 혁명가 알렉산드라 콜론타이(Aleksandra Kollontai)와 김알렉산드라 페트로브나(Kim Aleksandra Petrovna)를 비교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콜론타이는 러시아 혁명기 동안 여성 노동자 운동을 선도하고 국제주의적 시각을 견지하며 볼셰비키 일원으로 10월 혁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인물이었다. 그녀는 러시아 사회의 중심부에서 활동하면서 강렬한 에너지와 신념으로 주변과 끊임없이 충돌했으며 이러한 대립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특히 여성해방 문제에 있어서는 언행일치의 자세를 견지하며 급진적 혁신을 추구하였고, 기존 질서와의 격렬한 마찰을 마다하지 않았다. 1920년대 이후 소련 정권과의 불화는 콜론타이의 여성 해방론이 체제 내에서 제대로 이해되지 못하고 평가절하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이는 결국 그녀에 대한 대중적 평가를 단편적이고 왜곡된 인상으로 고착시키는 데 일조하였다.¹⁾ 또한, 그녀는 러시아혁명을 전후하여 전통적 가치관에 얽매인 여성들의 의식을 전환하고, 볼셰비키의 일원으로서 혁명적 역할을 수행할 것을 자신의 저작과 연설을 통해 강조하였다.²⁾ 특히 핀란드 민족 해방 문제와 중앙아시아 무슬림 여성해방의 현실을 사회주의 이론 안에 포섭하려는 시도를 통해 계급 중심 사회주의의 이론적 확장을 추구하였다. 콜론타이는 핀란드가 러시아 제국의 식민지 지배 아래 놓여 있는 현실을 계급 억압의 특수한 양상으로 이해하였으며, 이를 통해 민족 해방의 요구 또한 프롤레타리아 해방의 정당한 일환으로 간주하였다. 그녀는 핀란드 노동자들이 민족 독립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계급의식이 형성되고 혁명적 주체로 성장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민족 해방과 계급 해방은 모순되지 않으며 오히려 상호 강화될 수 있다는 관점을 견지하였다.

또한, 중앙아시아 여성해방에 대해서도, 단순한 계몽주의적 접근을 넘어서 무슬림 여성들이 전통적 종교·문화적 억압 구조 안에서 노동계급의 일

- 1) 한정숙, 「알렉산드라 콜론타이와 여성주의: ‘부르주아’ 여성주의 비판에서 사회주의적-급진적 여성해방론으로」, 『러시아연구』 제18권 제2호, 2008, pp. 288-289.
- 2) 진정한 여성해방은 단순한 정치적 참여의 차원을 넘어서 경제적 독립을 통해 해결되어야 함을 「여성문제의 사회적 기초」(Социальные основы женского вопроса 1909; 1916)라는 팜플렛을 통해 강조하였다. 또한 「새로운 도덕과 노동계급」(Новая мораль и рабочий класс 1918)에서 콜론타이는 러시아의 전통적 결혼 관계를 초월한 새로운 여성상을 제시하고 있다. 결혼과 관습에 얽매이지 않는 소비에트 신여성(новая женщина), 노동자로서 남성과 동등하게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자립적인 여성을 새로운 사회의 이상적인 여성상으로 설정하였다. 김은실, 「‘여성해방’에 대한 콜론타이와 레닌의 정치적 갈등」, 『정치사상연구』제14집 1호, 2008, p. 56, 재인용.

원으로 어떤 이중 억압을 받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여성의 해방을 사회주의 혁명의 핵심 구성 요소로 이론화하였다. 이처럼 콜론타이는 사회주의 해방 이론에 민족문제와 젠더 문제를 결합시키는 확장적 사고를 시도했으며, 이는 단일한 계급 중심 해석을 넘어선 선구적 접근으로 평가될 수 있다.

반면에 김알렉산드라는 한인 최초의 공산주의자이며 민족 해방운동이 태동하고 전환기를 맞이하던 1910년대에 러시아령 연해주³⁾ 및 시베리아 지역에서 활동한 여성 혁명가였다. 김알렉산드라는 자신의 삶 자체로 동시대 젊은 혁명가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으며, 우리 민족 최초의 사회주의 혁명 정당인 한인사회당의 실질적 설립 주체였다. 그러나 1918년 9월, 제국주의 간섭군의 무력 개입 초기 백위군에 의해 체포되어 처형되었으며, 당시 그녀의 나이는 불과 33세였다. 짧은 생애였지만, 김알렉산드라는 민족 해방과 사회주의 혁명을 위해 헌신한 혁명가로서, 그 희생과 열정은 동시대 민족 운동가들의 기억 속에 오랫동안 살아남았다.⁴⁾ 한 논자의 평처럼 “그는 과연 자유를 위하여 나고 자유를 위하여 일하고 자유를 위하여 죽어”간 인물이었다.⁵⁾ 그녀는 국내보다 러시아에서 더 널리 알려진 인물로, 구소련 한인사회에서는 ‘재소(在蘇) 한인의 어머니’이자 ‘재소 한인의 자존심’으로 기억되고 있다. 김알렉산드라가 활동했던 하바롭스크시 맑스 거리 22번지 건물에는 그녀의 얼굴이 새겨진 동판이 설치되어 있으며, “1917~1918년 이

3) 연해주라 함은 보통 아무르강을 경계로 우수리강과 태평양 연안 사이의 땅을 일컫는다. 또한 이 주변의 좀 더 넓은 지역을 포함해서 ‘원동이라는 명칭이 중앙아시아의 한인들 사이에는 통용된다. 이 두 이름은 러시아 말의 뿌리모르스끼 크라이(Приморский край)와 달니이 보스톡(Дальний Восток)에서 온 것으로 여겨진다. 우리측에서 보면 북쪽이지만 러시아 사람들이 자기 측에서 보아 그렇게 부른 것이다. 이현영, 「1910년대 사회운동과 김알렉산드라」,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p. 2, 재인용.

4) 潘炳律, 「김알렉산드라 페트로브나(스탄케비치)의 생애와 활동 - 조선인 최초의 공산주의자의 약전-」, 『尹炳東教授華甲紀念韓國近代史論叢』, 1990, p. 767.

5) 뒤바보, <김알렉산드라 小傳>, 《獨立新聞》1920년 4월 17일 자.

건물에서 알렉산드라 페트로브나 김(스탄케비치)이 활동하였다. 그녀는 볼셰비키당 시위원회 사무국원이자 하바롭스크시 소비에트 외부위원으로 활동했으며, 1918년 영웅적으로 사망하였다”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다. 또한 오늘날 한국인이 다수 거주하는 카자흐스탄 알마티시의 조선극장에도 김알렉산드라의 초상화가 홍범도의 초상화와 함께 걸려 있으며, 그녀를 기리는 연극, 시, 소설 등의 작품도 다수 제작되었다. 이처럼 김알렉산드라는 재소 한인사회에서 한국인 여성 혁명가로서 높은 존경을 받고 있는 인물로 평가되고 있다.⁶⁾

두 인물은 각각 권력의 핵심인 중앙과 동쪽의 변방인 극동 연해주라는 서로 다른 지정학적 위치와 그에 따른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환경 속에서 혁명운동에 투신하였다. 알렉산드라 콜론타이는 러시아 제국의 정치적·이념적 중심부에서 활동한 귀족 출신 이론가로서, 혁명 국가의 정책을 수립하고 볼셰비키 이념을 젠더 문제에 적용하여 체계화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반면 김알렉산드라는 제국의 동쪽 변방이자 다민족 경계 지대인 극동 연해주라는 주변부에서 활동한 식민지 조선 출신 활동가로서, 제국주의와 계급 착취라는 이중의 억압에 맞서 현장에서 대중을 조직하고 투쟁을 이끌었다.

이러한 상이한 구조적 위치가 두 혁명가의 사회주의 해방에 대한 이해와 실천을 어떻게 근본적으로 다르게 만들었는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즉, “국가 정책을 형성하는 중심부의 엘리트 이론가와 풀뿌리 운동을 이끄는 주변부의 피억압 민족 활동가라는 위치성의 차이가 이들의 혁명 전략과 해방의 비전에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를 낳았는가?”를 탐구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표이다. 두 인물의 실천 방식(이론화 vs 조직화)은 개인적 성향의 차이가

6) 박환, 「한인사회당 지도자 김 알렉산드라 페트로브나(스탄케비치)」, 『西巖趙恒來教授華甲紀念韓國史學論叢』, 1992, p. 816.

아니라, 그들이 처한 구조적 위치성의 필연적 결과였다. 콜론타이는 모스크바와 페테르부르크라는 권력의 심장부에서 레닌을 비롯한 최고 지도부와 직접 소통할 수 있었기에 국가 기구(제노텔)를 활용한 ‘하향식’ 정책 수립은 그녀에게 가장 효과적인 혁명 수단이었다. 반면, 제국의 변방에서 억압받는 소수민족 여성이었던 김알렉산드라에게 중앙 권력은 멀었고, 그녀가 동원할 수 있는 힘은 자신과 같은 처지에 놓인 피억압 민중을 직접 조직하는 ‘상향식’ 연대뿐이었다. 따라서 이들의 전략적 차이는 단순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주어진 ‘조건’의 문제였으며, 본 연구는 이 분석 틀을 통해 제국 내 권력 구조가 혁명 실천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제약하고 형성하는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콜론타이와 김알렉산드라의 계급 해방과 약소민족 해방에 대해 정치(精緻)하게 비교 분석한 연구는 없다. 이에 본 연구는 알렉산드라 콜론타이와 김알렉산드라의 사상과 실천에 대한 면밀한 비교 분석을 통해 사회주의라는 거대 이념이 현실 속에서 단일한 형태로 실현되지 않았음을 입증하고자 한다. 궁극적으로 이 비교 연구는 혁명가의 지정학적 위치, 젠더와 민족이라는 교차적 정체성, 그리고 국가와 민중이라는 실천의 주체가 해방의 경로에 서로 다른 전략적 양상을 어떻게 만들어냈는지를 입체적으로 조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볼셰비키혁명에 내재된 내적 모순과 이념적 다원성을 드러내고, 잊힌 주변부 여성 혁명가의 목소리를 복원하여 러시아 혁명사를 더욱 풍부하고 비판적으로 재구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2. 선행연구

본 연구는 러시아혁명 시기 활동했던 콜론타이와 김알렉산드라의 노동자

해방 이념을 비교함으로써, 계급 해방운동이 젠더 및 민족 억압과 어떻게 교차하며 전개되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콜론타이와 김알렉산드라의 노동자 해방 이념에 관한 선행연구는 없다. 다만 사회주의 여성해방론에 관한 콜론타이와 비교 연구한 선행연구는 드물게 이루어진 편이다. 이에 따라 선행 연구 검토는 콜론타이 관련 연구, 김알렉산드라 관련 연구, 두 사람을 전면에 내세우지는 않았지만, 사회주의 여성 운동가들의 삶의 양태를 통해 두 사람의 삶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연구들도 포함된다.

1) 콜론타이 관련 연구

콜론타이의 사상과 활동에 관한 연구는 국내외에서 비교적 풍부하게 축적되어 있다. 한정숙은 콜론타이의 생애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면서, 그녀가 러시아 제국 귀족 가문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혁명가로 성장한 과정을 개괄적으로 서술하였다.⁷⁾ 또한 판스워드도 콜론타이의 생애부터 혁명에 참여하게 된 경로 그리고 권력의 핵심인 중앙에서 활동 당시의 역할과 콜론타이와 노동자 반대파 사건, 콜론타이의 가족과 성, 여성관 등 1952년 사망할 때까지 활동에 이르는 콜론타이의 전 생애의 정치적 활동을 촘촘하게 서술하였다. 마르크스와 엥겔스, 베벨을 뛰어넘어 마르크스주의에서 여성해방이라는 중요한 분야를 개척했지만, 그녀의 공헌은 종종 잘못 해석되기도 하였다.⁸⁾

Rochelle Goldberg Ruthchild은 1917년 러시아혁명에서 여성들이 단순한

7) 한정숙, 「알렉산드라 콜론타이 : 여성해방과 평화를 위해 바친 사회주의자의 삶」, 『역사와 문화』 16, 2008,

8) 비어트리스 판스워드. 신민우 역, 『알렉산드라 콜론타이-불세비키혁명과 여성해방』, 풀빛, 1986.

수동적 존재가 아니라 독립적이고 의식적인 정치 행위자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했음을 강조하였다. 그녀는 기존의 남성 중심적 혁명 서술이 여성과 젠더의 역할을 주변화해 왔음을 비판하며, 혁명사를 보다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성과 젠더 관점을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⁹⁾ 한편, Barbara Evans Clements는 러시아혁명과 내전기 농민 여성과 노동자 여성들의 경험을 분석하면서, 다수의 여성이 볼셰비키가 제시한 여성해방 담론을 수용하기보다는 전통적 가족제도와 공동체 체계를 방어하려 했음을 밝혔다. 그녀는 여성들의 이러한 대응이 단순히 후진성 때문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합리적 전략이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¹⁰⁾

이 두 연구는 모두 러시아 혁명기 여성들이 현실에 능동적으로 대응했다는 점을 부각시키는 한편, 여성해방 과정이 단순하지 않고 복합적인 긴장과 한계를 내포하고 있었음을 함께 조명하고 있다. 기계형은 1917년 2월 혁명부터 내전 종결기까지 여성들의 적극적 참여를 분석하며, 제도적 평등 선언에도 불구하고 가부장적 젠더 질서가 일상생활 속에서 지속되었음을 지적하였다. 특히 러시아혁명은 여성들에게 새로운 법적 권리와 정치적 기회를 부여했지만, 젠더 위계 문화와 전통적 가치체계는 혁명 이후에도 강력하게 잔존했음을 분석하였다.¹¹⁾

박원용은 1920년대 러시아 농촌 여성들의 일상생활을 분석하면서, 볼셰비키 정부가 ‘소비에트형 여성상’ 창출을 시도했으나 농촌 여성들의 전통적

9) Rochelle Goldberg Ruthchild, 「Women and Gender in 1917」, 2017; 이득재, 「1917년 러시아혁명 이전 러시아 기층 노동자들의 운동 연구」, 『문화연구』 5권 2호, 2017; 최대회, 「혁명과 내전 사이의 여성노동자의 일상과 정치(1917-1920)」, 『슬라브研究』 제19권 1호, 2003.

10) Barbara Evans Clements, 「Working-Class and Peasant Women in the Russian Revolution, 1917-1923」, 1982; 류한수, 「여성 노동자인가, 노동하는 바바(баба)인가?: 러시아 내전기(1918~1921년)」, 학술활동 결과보고서, 2006.

11) 기계형, 「1917년 러시아혁명과 여성: 일상생활의 연속성과 변화」, 『여성과 역사』 제12집, 2007.

가치관과 지역 사회의 저항으로 인해 그 실현이 쉽지 않았음을 지적하였다. 특히, 농촌 여성들은 정부가 요구한 ‘과학적’이고 ‘위생적인’ 육아 방식을 수용하기보다는 오랫동안 신뢰해 온 전통적 산파(babka)와 생활 관습을 고수했으며, 콤포몰과 같은 정치조직의 참여 또한 사회적 저항과 한계에 부딪혔다. 이 연구는 혁명적 이념과 실제 농촌 여성들의 일상 간 괴리를 구체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초기 소비에트 체제의 여성해방 정책이 지역성과 전통을 넘어서지 못한 현실을 지적하였다.¹²⁾

콜론타이는 볼셰비키 혁명가들 가운데서도 여성해방을 위한 투쟁에 헌신한 인물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다수의 연구자는 그녀를 여성주의 이론과 실천의 전통 속에 위치시키고 있다. 특히 콜론타이가 마르크스주의와 여성주의를 결합한 사상가였다는 평가는 오늘날 학계와 독자들 사이에서 별다른 논증 없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상식으로 자리 잡고 있다.

한정숙은 콜론타이가 부르주아 여성주의를 비판하고, 사회주의적-급진적 여성 해방론을 정립한 과정을 분석하였다. 그녀는 여성문제가 단순한 성차별 문제가 아니라 계급 문제와 결합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이를 통해 사회주의 운동 내 여성해방 논의의 이론적 기반을 확립하였다. 콜론타이를 단순한 여성운동가가 아닌, 마르크스주의와 여성주의를 연결한 혁신적 사상가로 평가하는 데 중요한 기초를 제공하였다.¹³⁾ 김은실은 콜론타이의 여성해방 이념을 중심으로 소비에트 사회에서 이루어진 여성해방 실험을 분

12) 박원용, 「일상생활의 영역에서 바라본 1920년대 러시아 농촌에서의 신 여성형 창조」, 『여성학연구』 제23권 제1호, 2013.

13) 한정숙, 「알렉산드라 콜론타이와 여성주의: ‘부르주아’ 여성주의 비판에서 사회주의적-급진적 여성해방론으로」, 『러시아연구』 제18권 제2호, 2008; 고유경, 「알렉산드라 콜론타이(Alexandra M. Kollontai)의 여성관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김은실, 「콜론타이의 여성 인권과 자유의 정치사상」, 『민주주의와 인권』 제9권 3호, 2007; Christine Sypnowich, 「Alexandra Kollontai and the Fate of Bolshevik Feminism」, 『Labour/Le Travail』, 1993.

석하였다. 그녀는 콜론타이가 부르주아 여성주의를 비판하며, 계급 해방과 젠더 해방을 통합하려 한 점을 강조했으며, 소비에트 체제 내에서 여성해방이 제도적 시도로 나타났지만, 현실적 제약과 볼셰비키 주류와의 충돌 속에서 부분적 한계에 직면했음을 지적하였다.¹⁴⁾ 또한, 김은실은 콜론타이와 레닌 사이의 여성해방 문제를 둘러싼 정치적 동맹과 갈등을 분석하며, 소비에트 초기 여성 정책의 형성과 좌절 과정을 조명하였다. 콜론타이는 사회주의 혁명이 여성의 일상과 사적 영역까지 전면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레닌은 여성해방을 계급 해방의 부차적 과제로 인식하였다. 이로 인해 두 사람은 여성 정책의 방향과 우선순위를 두고 점차 갈등을 빚었으며, 이는 이후 여성부(제노텔)의 약화와 여성해방 정책의 후퇴로 이어졌다. 콜론타이의 여성해방 사상이 단순한 당내 역할을 넘어, 사회주의 내에서 독립적 이념으로 전개되었음을 밝히고, 혁명기 여성 정책의 한계에 대한 구조적 이해를 제공한다.¹⁵⁾

이처럼 콜론타이에 관한 연구는 주로 그녀의 여성해방 이론, 소비에트 초기 정책 참여, 성과 가족 문제에 대한 급진적 접근을 중심으로 진행되어왔다. 또한, 콜론타이의 사상을 독립적으로 조명하는 데 집중되었으며, 노동자 해방 이념을 젠더와 계급 교차성의 관점에서 심층적으로 분석하거나, 민족 해방 문제와 연계하여 접근한 사례는 드물다.

14) 김은실, 「소비에트 사회에서의 여성해방론 실험: 콜론타이의 여성해방론을 중심으로」, 『아시아여성연구』 제43집 제2호, 2004; 남석주, 「소비에트 정권초기의 여성문제」, 『슬라브학보』 제16권 1호, 2008; 기계형, 「일상생활과 젠더정치 - 소비에트시대 초기의 여성부(Женотдел), 1919-1923-」, 『여성과 역사』 제8집, 2007.

15) 김은실, 「‘여성해방’에 대한 콜론타이와 레닌의 정치적 갈등」, 『정치사상연구』 제14호 1호, 2008.

2) 김알렉산드라의 관련 연구

김알렉산드라 페트로브나(Александра Петровна Ким)는 러시아 극동과 연해주, 시베리아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한 조선계 볼셰비키 혁명가로, 조선인 여성으로서 최초로 사회주의 혁명운동에 참여한 인물로 평가된다. 그녀는 1910년대 러시아 내 조선인 이주민 사회에서 활동하며, 한인사회당의 창립과 조직화를 주도했고, 이후 볼셰비키당에 입당하여 하바롭스크 소비에트의 외무위원으로 활약하였다. 특히 민족 해방과 계급 해방을 결합한 그녀의 실천은 러시아 혁명기 동북아 소수민족 노동자 해방운동의 한 축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김알렉산드라에 관한 연구는 콜론타이와 같은 러시아 본토 혁명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하며, 대부분이 그녀의 생애와 활동을 재구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¹⁶⁾ 대표적으로 반병률은 김알렉산드라를 “조선인 최초의 공산주의자”로 평가하며, 러시아 극동 및 우랄 지방, 하바롭스크에서의 노동운동, 볼셰비키 입당, 극동인민위원회 외무위원 활동, 그리고 한인사회당 창립에 이르기까지 혁명가로서의 궤적을 상세히 재구성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이현영은 그녀의 활동을 제국주의와 민족 억압에 저항한 사회주의 실천의 사례로 조명하며, 3·1운동 전후 조선 민족운동과의 연계를 중심으로 서술하였다.

두 연구 모두 김알렉산드라의 활동이 조선인 민족해방운동과 러시아 사회주의 혁명의 교차 지점에서 이루어졌음을 강조하면서, 한인사회당의 형성과 볼셰비키 세력과의 연대를 그녀의 핵심 공적으로 부각했다. 그러나 이들 연구는 김알렉산드라의 사상적 지향이나 이념적 특징, 특히 그녀가

16) 潘炳律, 「김알렉산드라 페트로브나(스단케비치)의 생애와 활동 - 조선인 최초의 공산주의자의 약전-」, 『尹炳東教授華甲紀念韓國近代史論叢』, 1990; 이현영, 「1910년대 사회운동과 김알렉산드라」,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지향한 노동자 해방 이념이 민족 해방과 어떻게 접합되었는지에 대한 이론적 분석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 또한 그녀의 활동이 조선인 여성 혁명가로서 갖는 젠더적 맥락은 거의 다루어지지 않으며, 그녀의 해방 담론이 당대 사회주의 사상사 속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지에 대한 평가 역시 부족한 편이다. 또한, 마뜨베이 짜모피예비치 김이 저술한 책은 김알렉산드라를 포함해, 1910~20년대 민족해방운동의 전환기에 활동했음에도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한 72인의 조선인 혁명가를 조명하고자 하였다. 저자 자신이 당시 운동에 참여했던 인물로서, 운동 주체의 시각에서 기록을 구성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며, 소련 내부의 접근이 어려운 사료를 바탕으로 했다는 점에서 단순한 2차 연구를 넘어서는 자료적 가치를 지닌다.¹⁷⁾ 정철훈은 김알렉산드라의 생애와 정치 활동, 그리고 그녀가 추구한 민족 및 계급 해방운동의 전모를 일목요연하게 서술하였다. 또한, 한인사회당의 설립 주체이자 국제주의적 관점을 가진 혁명가로 조명하며, 그녀의 혁명 활동을 단순한 민족운동 차원이 아니라 국제사회주의 운동의 맥락 속에서 이해하고자 하였다.¹⁸⁾

이인섭은 자신의 회상기에서 김알렉산드라의 활동을 생생한 1차 기억과 함께 구체적으로 재구성한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해당 연구는 그녀가 1917년 우랄 지역에서 볼셰비키 당의 지원 아래 조선인·중국인 노동자들을 조직하고, ‘우랄노동자동맹’을 결성하여 총파업과 법적 투쟁을 주도한 활동을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특히 그녀가 뛰어난 연설력과 결단력으로 다국적 노동자들의 지지를 얻고, 현장에서 지도자로 부상하는 과정은 이 회상기 속에서 구체적 사례와 함께 제시되었다. 또한 10월 혁명을 전후

17) 마뜨베이 짜모피예비치 김, 이준형 역, 반병률 해제, 『일제하 극동시베리아의 한인 사회주의자들』, 역사비평사, 1979.

18) 정철훈, 『김알렉산드라 평전』, 필담, 1996; 정철훈, 『알렉산드라 페트로브나 김 -역사가 지운 한인 최초 여성 사회주의자의 일대기』, 시대의 창, 2021.

해 김알렉산드라가 극동으로 이동해 한인사회당을 조직하고 조선인 독립운동가들을 조직화한 과정은, 그녀가 단순한 ‘혁명 동조자’가 아닌 탁월한 실천가이자 활동가였음을 보여준다. 다만 이 회상기를 중심으로 한 연구는 자료의 생생함과 현장성에는 강점을 지니지만, 그녀의 실천을 지탱한 사상적 구조나 독자적 이념의 분석에는 상대적으로 약점이 있다. 김알렉산드라의 민족 해방과 계급 해방이 어떻게 이론적으로 결합 되어 있었는지, 그녀가 단순한 불세비즘 추종자를 넘어서는 사상적 주체였는지를 밝히는 연구는 여전히 미비한 실정이다.¹⁹⁾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는 김알렉산드라의 생애와 혁명 활동을 재구성하고, 조선인 여성 혁명가로서의 상징적 의미를 밝히는 데 주력해 왔다. 그러나 그녀의 실천 속에 내재된 이념적 지향, 특히 민족 해방과 계급 해방이 어떻게 연결되었는지를 이론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 연구의 성과를 바탕으로, 김알렉산드라의 해방 이념을 보다 구조적으로 해석하고, 그녀의 역사적 위치를 사회주의 운동 내 소수민족 여성 혁명가라는 관점에서 재조명하고자 한다.

3) 콜론타이와 김알렉산드라 연관성에 관한 연구

콜론타이와 김알렉산드라를 직접적으로 조명하지는 않지만, 당대 사회주의 여성운동가들의 삶과 사상, 그리고 그들이 처한 사회적 조건을 분석한 연구들은 두 인물의 활동을 간접적으로 이해하고 객관화하는 데 유의미한 자료를 제공한다. 이러한 연구들은 여성 혁명가들이 겪은 억압과 실천의 현실, 그리고 사회주의 담론 속 여성 주체 형성 과정을 조명함으로써, 콜론

19) 이인섭, 원동인민위원 소비에트(원동인민정부) 외교위원 김알렉산드라 빼뜨로브나에 대한 회상기, 독립기념관.

타이와 김알렉산드라의 사상과 삶을 보다 풍부한 맥락에서 파악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준다.

정병혜는 1920~30년대 한국과 중국의 대표적 사회주의 희곡을 분석하면서, 두 사회의 여성해방 인식과 계급투쟁 속 여성의 위치가 어떻게 달리 형상화되었는지를 비교하였다. 이 연구는 중국의 경우 여성이 혁명의 적극적인 주체로 묘사되는 반면, 한국의 경우 여성은 계급 해방에 부차화되거나 남성 서사의 보조적 존재로 제한되는 경향이 강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러한 분석은 콜론타이가 주장한 젠더 해방과 계급 해방의 동시성, 그리고 김알렉산드라가 실천한 민족 해방과 노동자 조직화의 차이를 설명하는 데 의미 있는 문화사적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²⁰⁾

백숙현은 허정숙이 기존 연구에서 ‘조선의 콜론타이’로 불러 왔음을 전제로, 두 인물(허정숙과 콜론타이)의 유사한 생애 경로와 이론적 지향에 주목해 왔다. 특히 해당 연구에서는 허정숙과 콜론타이의 여성해방 이론을 비교하면서, 허정숙이 계몽주의적 성격을 지닌 점, 여성 계몽과 교육을 사회 변혁 이전의 선행 과제로 본 점에서 차별성이 있음을 지적했다. 이러한 비교는 콜론타이의 여성 노동자 중심 해방론과 김알렉산드라의 민족·소수노동자 해방론 간의 비교 연구에도 유의미한 통찰을 제공한다. 즉, 이 연구는 두 인물을 직접 다루지는 않지만, ‘콜론타이와 유사한 인물’로서의 허정숙에 대한 분석을 통해, 여성 사회주의자의 사상과 전략을 분류하고, 이를 통해 김알렉산드라의 실천 또한 상대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간접적 틀을 제공한다.²¹⁾

지금까지의 선행 연구들은 콜론타이와 김알렉산드라 각각의 생애와 활

20) 정병혜, 「한중 프롤레타리아 희곡에 나타난 여성 형상 비교 연구 - 김영팔(金榮八)과 텐한(田漢)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23.

21) 백숙현, 「사회주의 여성운동가 허정숙(1903-1991)의 활동과 사상에 대한 재고찰 - 콜론타이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20.

동, 그리고 여성해방과 민족 해방을 둘러싼 사회주의적 실천을 조명해 왔다. 콜론타이에 대한 연구는 이론적 분석과 사상적 위치 규명에서 풍부한 성과를 보여주었으며, 소비에트 내 여성 정책과의 관계, 성 해방 담론의 한계와 의의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였다. 김알렉산드라에 관한 연구는 주로 생애 서술과 한인사회당 중심의 활동에 초점을 맞추었고, 이인섭의 회상기와 『김알렉산드라 평전』은 그 활동의 역사적 사실성을 입증하는 데 기여하였다. 한편, 콜론타이와 김알렉산드라를 직접 비교한 연구는 부재하며, 이들을 함께 사상적 맥락 속에서 분석한 시도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문학, 연극, 문화사 연구를 통해 드러난 프롤레타리아 여성 형상 분석, 허정숙과의 비교 등은 두 인물의 사상과 실천을 간접적으로 조명할 수 있는 보완적 자료로 기능하지만, 그 자체로 두 인물 간의 이념적 차이와 공통점을 통합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는 콜론타이와 김알렉산드라가 공통적으로 지향했던 노동자 해방이라는 목표 아래, 각자가 어떠한 사회적 억압 구조(젠더, 민족) 속에서 사상을 형성하고 실천을 전개했는지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사회주의 운동 내 여성과 소수민족 혁명가의 사상적 지형을 복원하고 그 역사적 의의를 재조명하고자 한다.

3. 이론적 배경

볼셰비키혁명 이전 러시아는 사회적, 경제적 어려움과 불평등이 심각했던 시기였다. 러시아 제국은 전제군주 하에서 억압과 불평등이 만연했으며, 경제적으로는 상대적으로 낙후된 상태였다. 산업화가 제한적으로만 이루어졌고, 대부분의 경제 활동은 여전히 농업에 의존하고 있었다. 농민들은 대부분 극심한 가난과 압박 속에서 살았으며, 토지 소유권이 제한되어 있어

많은 농민이 빈곤 속에서 살아갔다.

러시아는 오랜 세월 동안 농업이 지배적인 사회였으나, 19세기 후반에 접어들면서 근대 산업사회의 방식들이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변화는 다양한 사회적, 정치적 문제를 동반했다. 서구처럼 발전적 타협을 이끌어낼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부재했던 러시아에서는 갈등이 심화되었고, 산업화가 진행되었음에도 러시아는 여전히 반(半)봉건적 질서를 유지하고 있었다.

한편, 19세기 러시아에서는 크림 전쟁 이후 시민의식이 확산되고 정치적 권리 요구가 대두되면서, 여성 교육과 사회 참여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이를 바탕으로 여성운동과 조직이 자생적으로 형성되기 시작하였다.²²⁾

1861년 농노제 폐지 이후 상류층 여성들은 생계를 일부 책임지게 되었으며, 하층 여성들과 함께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여성들은 열악한 환경과 제도적 제약에 직면했고, 이는 여성 노동자들의 자발적 저항과 사회 참여 요구로 이어졌다.²³⁾

부르주아 여권운동과 노동자들의 산발적 시위만으로는 러시아 사회에 뿌리내린 여성 억압과 통제 구조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없었으며, 여성의 사회적 정체성과 역할 역시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 이러한 한계는 보다 근본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급진적 여성 혁명가들의 등장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들은 주로 귀족 출신의 지식인으로, 점진적 개혁을 거부하고 차르 전제정권의 타도와 농민 문제 해결을 위한 급진적 실천에 나섰다. 브나로드(В народ: 인민속으로)운동과 직접적 사회혁명을 위한 운동을 전개하였다. 혁명 운동가들은 실천을 중시하며 여성 억압의 원인을 사회구조적 모순에서 찾았고, 단순한 권리 확장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오직

22) 김은실, 「소비에트 사회에서의 여성해방론 실험: 콜론타이의 여성해방론을 중심으로」, 『아시아여성연구』제43집 제2호, 2004, p. 174.

23) 김은실, 앞의 논문, p. 175.

사회개혁과 혁명을 통해서만 해방이 가능하다고 보았다.²⁴⁾

한편, 러시아에서 사회주의 여성운동은 1890년대 ‘노동계급해방을 위한 투쟁동맹’을 통해 본격화되었으며, 1896년 페트르부르크 방직 노동자 파업을 계기로 여성 노동자 조직화와 지식인 여성들(크롭스카야, 콜론타이, 바렌초바 등)의 결집이 이루어졌다. 이들은 부르주아 여성운동의 한계를 비판하고 여성 노동자가 겪는 가정과 공장에서의 이중 억압 해방에 주목하였다.²⁵⁾ 1905년 혁명 이후에는 모성보호와 남녀 동일 최저임금 등을 요구하며 파업이 확산되었다. 이 시기 자유주의 여성운동가들은 서유럽 참정권 운동의 영향을 받아 러시아 내 여성 참정권을 요구하며 조직적으로 활동하였고, 1905년에는 여성평등권연맹(Союз за равноправие женщин)을 결성해 보통선거권과 성평등을 주장하였다.²⁶⁾

‘계급을 초월한 여성의 단결’을 주장한 평등권론자들의 주장은 여성 노동자와 농민, 혁명 정당의 여성당원들까지 참여하며 광범한 호응을 얻었다. 이들은 1908년 제1차 전(全) 러시아 여성회의를 통해 법적 권리, 가족 문제, 여성 노동자의 경제적 지위 등 다양한 의제를 포괄하는 공동 강령을 제시하였다.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인 밀류코바는 “여성들은 공동의 강령을 가지고 있고 이 강령에 근거하여 지향성이나 정당에 관계없이 모든 여성이 단결할 수 있다.”라고 선언하였다.²⁷⁾

평등권론자들의 활동은 사회주의 여성운동에 큰 자극을 주었으며, 마르크스주의 여성운동가들은 마르크스·엔겔스의 『공산당선언』, 엔겔스의 『가족, 사유재산 그리고 국가의 기원』 및 베벨의 『여성과 사회주의』(Die Frau

24) 김은실, 앞의 논문, pp. 175-176.

25) 김은실, 앞의 논문, pp. 176-177.

26) 한정숙, 「알렉산드라 콜론타이와 여성주의: ‘부르주아’ 여성주의 비판에서 사회주의적-급진적 여성해방론으로」, 『러시아연구』제18권 제2호, 2008, pp. 300-301.

27) 한정숙, 앞의 논문, pp. 301-302.

und der Sozialismus) 등의 이론을 기반으로 여성 억압의 원인을 사유재산과 계급 형성에서 찾았다. 이들은 여성문제를 계급과 분리된 독립적 문제로 보지 않았고, 공적(公的) 노동에 여성의 참여가 확대되는 현실 속에서 여성해방의 가능성을 모색하며, 여성 노동자와 남성 노동자의 공동 투쟁을 강조하였다.²⁸⁾ 콜론타이는 무계급적 여권론을 비판하며, 여성 노동자를 부르주아 여성과 구별되는 계급적 주체로 보고 독자적으로 조직하고자 했다. 1907년에는 여성 노동자 클럽을 창립하고, 여성 선동의 자율성을 유지하며 남성 노동자와의 연대를 추구하였다. 그러나 당내에서는 그녀가 여성문제에 집착한다는 비판도 받았고, 이에 맞서 1909년 『여성문제의 사회적 기초』(Социальные основы женского вопроса)를 집필해 마르크스주의 여성운동의 이론적 정당성을 확립하고자 했다. 이 책에서 콜론타이는 여성 억압의 주된 원인을 경제적 조건에서 찾으며, 생물학적 성차는 부차적 요인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다.

『여성문제의 사회적 기초』는 큰 반향을 일으켰고, 콜론타이의 여성 노동자 운동에 대한 주장은 점차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망명 중에도 러시아 여성노동자들과의 연계를 유지한 그녀는 1910년과 1912년 국제사회주의 회의에 러시아 대표로 참가하였으며, 1913년 국제 여성의 날 기념 글에서도 여성 노동자 운동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였다.²⁹⁾

더불어 제1차 세계대전(1914)과 1917년 러시아혁명은 여성들에게 사회적·정치적 참여의 공간을 열어주었다. 내전으로 인해 남성들이 전선에 투입되자 여성들이 대거 공장 노동과 행정업무에 투입되었고, 이로 인해 여성의 노동력이 사회의 중심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동시에 식량난과 빈곤은 여성들에게 가장 직접적인 생존 위기를 안겨주었고, 그 결과 여성들은 단

28) 한정숙, 앞의 논문, p. 302.

29) 한정숙, 앞의 논문, pp. 303-305.

순한 가족의 보조자가 아닌, 혁명의 동력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러한 역사적 상황 속에서 콜론타이는 여성의 해방이 단지 여성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주의 혁명이 완성되기 위한 핵심 전제조건이라고 보았다.³⁰⁾

볼셰비키혁명으로 수립된 소비에트 체제는 사적 소유와 차별적 시민권을 부정하며 성별과 민족에 관계없는 평등을 지향하였다. 특히 여성과 소수민족에게 시민권이 확대되었고, 콜론타이 등의 주도로 도입된 여성·가족 정책은 당대 세계에서 가장 선진적인 수준에 도달하였다.³¹⁾

러시아혁명은 제국주의와 식민주의에 정면으로 도전하며 국제질서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계기가 되었다. 계급혁명으로 출발했지만, 볼셰비키는 민족 평등과 민족자결, 반제국주의를 내세우며 세계 민족운동에 포괄적 해법을 제시하였고, 이는 조선의 지식인들과 독립운동가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다. 1918년 하바롭스크에서는 한인사회당이 창당되며 사회주의 계열 독립운동이 본격화되었다.³²⁾

서구식 근대화가 어려웠던 구식민지 엘리트들에게 소련식 근대화는 하나의 대안적 모델로 받아들여졌고, 긍정적으로 수용되었다.³³⁾ 소련식 근대화

30) 기계형 「일상생활과 젠더정치 - 소비에트시대 초기의 여성부, 1919-1923-」, 『여성과 역사』 제8집, 2007, pp. 129-131.

31) 영국의 러시아사 전문가 스티브 스미스 교수는 최근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여성해방운동을 러시아혁명이 남긴 가장 중요한 유산의 하나로 손꼽았다. (인터뷰 100주년 맞은 러시아혁명전문가 스티브 스미스교수) 《중앙일보》 2017년 11월 4일, p. 19, 한정숙, 「세계사 속의 러시아혁명, 『한중관계연구』 제4권 1호, 2018, pp. 58-59, 재인용.

32) 임경석, 『한국사회주의의 기원』, 역사비평사, 2003, pp. 68-74.

33) 사회주의적 근대화가 근대화의 한 경로로서 이론적 논의의 테두리 속으로 들어온 것은 1960년대 이후의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배링턴 무어의 독재와 민주주의의 사회적 기원은 전통사회에서 근대사회로의 이행의 경로를 유형별로 살피는 작업을 역사 사회학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선구적인 역할을 하였고 사회학계에서 이젠스타트가 복수의 근대성이라는 담론으로 이 논의를 좀 더 정밀하게 뒷받침하였다고 할 수 있다. Barrington Moore, *Social Origins of Dictatorship and Democracy: Lord and Peasant in the Making of the Modern World*(Boston: Beacon Press, 1966); S. N. Eisenstadt, "Multiple Modernities," *Daedalus* Winter 2000, vol. 129, no. 1, 한정숙, 앞의 논문, p.

는 공산당 주도의 토지개혁을 통해 봉건적 사회경제 구조를 해체하고, 생산수단의 국유화와 계획경제를 기반으로 사회적 평등과 경제 발전을 추구하는 모델로 인식되었다. 이러한 발전 방식은 이후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여러 국가에 의해 하나의 대안적 근대화 경로로 모방 되었다.³⁴⁾

러시아혁명은 반제국주의 혁명인 동시에, 기존 혁명들과는 다른 소수민족 정책을 채택하였다. 혁명 초기 소비에트 권력은 지배 민족인 러시아인보다 소수민족에게 더 많은 권리와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나아가 이들을 근대 민족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정책은 1920년대에 ‘토착화(коренизация)’라는 이름으로 제도화되었다.³⁵⁾ 토착화 정책은 소수민족의 언어와 문화를 장려하고, 자국 출신 엘리트의 양성과 경제적 발전(산업화 포함)을 주요 목표로 삼았다. 이는 소련 공산당이 러시아화를 통한 중앙집권적 국가 모델을 지양하고, 소수민족의 민족 형성을 통해 연방제 구조를 수용했음을 의미한다. 특히 중앙아시아에서는 영토, 문자, 지식인 계층을 갖춘 근대 민족의 형성 과정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소비에트 혁명 과정에서 여러 한계가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수민족과 피지배 민족을 향한 정책은 “뭇 없는 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려는 시도로 평가된다. 한 연구자는 이러한 소련의 민족 정책을 “소수자 우대 제국(Affirmative Action Empire)”이라 명명하였으며, 1920년대 토착화 정책

62, 재인용.

34) 한정숙, 앞의 논문, pp. 62-63.

35) 토착화 정책에 대한 선구적인 연구로는 Gerhard Simon의 Nationalismus und Nationalitätenpolitik in der Sowjetunion. Von der totalitären Diktatur zur nachstalinischen Gesellschaft (Baden-Baden: Nomos-Verlagsgesellschaft, 1986)를 들 수 있다. 지문은 혁명 이전 시기에는 ‘인민의 민족자결권이 볼셰비키 민족정책의 핵심 구호였으나 1920년대 소련의 민족 정책은 토착화 정책-민족 형성(nation-building) 정책으로 전환되었다고 규정한다. 한정숙, 앞의 논문, pp. 65-66, 재인용.

은 신경제정책이 소생산자 및 소상인을 포용한 것과 유사하게, 소수민족을 대상으로 한 화해 정책의 일환이었다고 볼 수 있다.³⁶⁾

이처럼 제국 러시아의 정치·사회 구조는 계급 모순뿐 아니라 여성과 피지배 민족에 대한 억압이라는 다층적 모순을 내포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구조적 조건은 불세비즘이라는 급진적 해방 이념의 탄생과 확산을 가능케 했다. 이와 같은 사회적 긴장과 이념적 격변 속에서, 콜론타이는 여성 노동자 해방의 이론화를 통해, 김알렉산드라는 식민지 조선인의 민족 해방 실천을 통해 각각 당대 사회주의 운동의 지평을 확장해 나갔다. 따라서 이들의 사상을 분석하는 것은 단지 두 혁명가의 개인사에 국한되지 않고, 러시아 혁명기의 구조적 조건과 사회주의 이념의 실천 양상을 입체적으로 조망하는 데 필수적이다.

II. 콜론타이와 김알렉산드라의 사상 형성과 노동자 해방 이론 비교

1. 사회주의 사상가로서의 성장 배경

알렉산드라 콜론타이와 김알렉산드라는 서로 다른 배경과 공간 속에서 성장했지만, 사회주의 혁명이라는 거대한 흐름 안에서 각자의 길을 걸어간 인물이었다. 두 사람은 태어난 장소도, 말했던 언어도, 바라본 현실도 달랐지만, 억압받는 사람들과 함께하려는 마음만큼은 같았다고 생각한다.

한 사람은 제국의 수도에서 여성 노동자의 현실에 눈을 떴고, 다른 한 사

36) Terry Martin, *The Affirmative Action Empire: Nations and Nationalism in the Soviet Union, 1923 - 1939*(Ithaca; London: Cornell University Press, 2001). 이 책 역시 앞의 각주에서 언급한 지문의 연구와 더불어 토착화정책으로 집약되는 소련의 민족정책에 대한 표준적 연구서이다. 한정숙, 앞의 논문, p. 66, 재인용.

람은 국경 너머에서 민족과 계급의 경계 속에 놓인 조선인 공동체를 마주했다. 그렇게 서로 다른 곳에서 출발한 두 인물은, 사회주의라는 이름 아래 자신이 속한 세계의 불평등을 바꾸려 했고, 억압받는 사람들을 조직하고 계몽하는 데 생애를 바쳤다.

이 장에서는 두 인물이 어떻게 사회주의자로 성장했는지를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 각자의 삶이 어떤 계기를 통해 사회주의 이념과 만났고, 그 이후 어떤 실천으로 이어졌는지를 추적해 보면, 이들이 추구한 해방의 모습이 어디서 닮고 또 어디서 달라졌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1) 알렉산드라 콜론타이의 생애와 정치적 성장

알렉산드라 콜론타이는 20세기 초 러시아 혁명기, 특히 여성 노동자들에게 깊은 영향을 끼친 혁명가이자 마르크스주의 여성해방 이론가로 널리 알려져 있다. 처음에는 노동문제와 핀란드 민족문제에 관심을 갖고 활동했지만, 곧 그녀의 실천 중심은 사회주의 여성운동으로 옮겨갔다. 콜론타이는 여성 노동자들을 사회주의 혁명의 주체로 조직하는 데 힘썼고, 그들이 겪는 계급적·성적 억압을 사회주의적 시각에서 해결하고자 했다. 여성 노동자 조직에 관한 관심이 거의 없던 19세기 말~20세기 초 러시아 제국의 상황 속에서, 콜론타이의 등장은 여성운동의 이념 지형을 바꾸는 전환점이 되었다.

이 글에서는 콜론타이의 사상과 활동 가운데 특히 그녀의 생애와 정치적 성장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그녀가 어떻게 여성 노동자 해방이라는 과제에 헌신하게 되었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지 한 사건이나 이념을 계기로 급작스럽게 전환한 것으로 보기보다는, 유년기의 경험과 개인적 저항, 치열한 지적 탐색, 그리고 시대의 구조적 변화에 대한 예민한 감각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쌓여온 과정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콜론타이의 사상과 실천이 보여주는 급진성은 어느 날 갑자기 형성된 것이 아니라, 삶과 현실을 직면하며 형성된 신념 체계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래서 그녀의 사상을 단순히 한 혁명가의 선택으로 환원하기보다는, 그 이면에 자리한 인간적 고민과 지성적 여정을 함께 들여다보는 일은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알렉산드라 미하일로브나 콜론타이(Aleksandra Mikhailovna Kollontai)는 1872년 3월 31일, 러시아 제국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귀족 출신 군인 아버지와 핀란드계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 그녀의 집안은 제정러시아 귀족 계급 중에서도 비교적 자유주의적 분위기를 지녔으며, 콜론타이는 어려서부터 외국어와 문학, 음악 등 고전적 교양 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

그녀는 외할아버지의 영지에서 자기 또래의 농민 자녀들과 어울려 놀곤 했는데, 귀족 딸인 자신과는 달리 친구들은 가난에 시달린다는 사실을 알고 고민에 빠졌다.³⁷⁾ “거기서 나는 관찰하고 생각하는 법을 배웠으며 나의 성격이 형성되어 갔다”라고 그녀는 기록했다.³⁸⁾ 또한 사회가 평등하고 정의롭지 않음을 깨달았다. 자기를 둘러싼 환경에 반항심을 품었던 그녀는 훗날, 어린 시절의 경험과 사고를 이렇게 회고하였다. “어린 시절부터 이미 나는 어른들의 불의를 비판하였다. 나에게서 모든 것이 주어진 반면, 다른 아이들에게는 그토록 많은 것이 거부된다는 사실은 파렴치한 모순으로 다가왔다. 나는 내 삶을 주어진 틀대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내 삶이 꿈꾸는 진정한 길을 분간할 수 있으려면 나 자신을 넘어서서 성장해야 하리라는 것을 아주 어린 시절부터 이미 깨닫고 있었다.”

콜론타이가 성장하던 시기의 러시아는 혁명운동의 확산과 이를 탄압하려

37) 한정숙, 「알렉산드라 콜론타이 : 여성해방과 평화를 위해 바친 사회주의자의 삶」, 『역사와 문화』 16, 2008, pp. 198-199.

38) 김지혜, 『세계여성운동 1 사회주의 여성운동 편』, 동녘, 1987, p. 211.

는 차르 체제의 강경한 대응이 충돌하면서 전 사회적으로 긴장이 고조되어 있었다. 1860~70년대의 대개혁에도 불구하고 인민주의 세력의 투쟁은 계속되었고, 결국 1881년 알렉산드르 2세가 암살되는 사태로 이어졌다.³⁹⁾

귀족 출신의 나로드니키당 당원이었던 소피아 페롭스카야가 차르 알렉산드르 2세 암살을 모의하다 처형당한 사건⁴⁰⁾은 어린 콜론타이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으며, 훗날 그녀가 혁명 활동에 가담하는 원인 중 하나가 되었다.⁴¹⁾ 페롭스카야의 존재는 여성이 급진적 정치 투쟁의 중심에 설 수 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사례였다.

특히 그녀의 유년기 교육에서 결정적 영향을 준 인물은 가정교사 마리아 스트라호바(Mariia Strakhova)였다. 스트라호바는 당시 러시아 급진주의 여성 인텔리겐치아와 연결되어 있었으며, 당시 지식 여성들 사이에서 형성되던 사회주의 사상 및 여성해방 사상에 깊이 연루된 인물이었다. 아버지 도몬토비치(Михаил Домонтович)는 스트라호바의 급진성에 우려를 표하면서도 자주 국내외 정세에 대해 토론했고, 이는 어린 콜론타이가 자연스럽게 정치적·사회적 담론에 노출되는 계기가 되었다. 콜론타이는 열여섯 살에 페테르부르크 대학 입학 자격시험에 합격했으나, 여성에게 정규 고등교육의 기회가 제한되던 당시 제도에 따라, 귀족 여성들을 위한 별도 강좌인 베스투제프-류민 강좌에 진학하는 것을 고려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 강좌에 입학하지 않고, 사실 기관에서 교육을 받은 뒤 문학 교수 빅토르

39) 한정숙, 앞의 논문, pp. 199-200.

40) 1877년 페테르부르크의 총독 트레포프 살해 혐의로 체포되었던 베라 자술리치 사건, 1881년 나로드니키였던 소피아 페트롭스카야 처형 사건들은 콜론타이를 비롯하여 로자 룩셈부르크, 클라라 체트킨 등 당시 유럽 여성 혁명가들의 어린 시절에 발생되었던 사건으로 이들이 혁명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특히 콜론타이는 어린 시절 페롭스카야의 처형 사건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김은실, 「소비에트 사회에서의 여성해방론 실험: 콜론타이의 여성해방론을 중심으로」, 『아시아여성연구』제43집 제2호, 2004, p. 176, 재인용.

41) 한정숙, 앞의 논문, p. 298.

오스트로고르스키(Виктор Острогорский)에게 개인 지도를 받았다. 그는 콜론타이의 문학적 재능을 발견하고 사상적 글쓰기를 장려하였으며, 콜론타이 자신도 자유와 정의를 대중에게 전하는 ‘사상’의 문필가가 되고자 하였다.⁴²⁾

콜론타이는 부모의 의지에 속박된 삶을 거부하고 자신의 의지대로 살겠다고 결심하고,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끈질긴 투쟁 끝에 1893년, 엔지니어인 블라디미르 콜론타이(Владимир Коллонтай)와 결혼하였다. 이때부터 알렉산드라 콜론타이로 불리게 되었다. 그런데 이 결혼은 자유로운 선택이었지만, 가정의 행복은 3년도 채 지속되지 못하였다. 알렉산드라 콜론타이는 남편과 아들을 깊이 사랑했지만, 가사와 육아에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주부이자 배우자라는 행복한 존재는 저에게 ‘새장’과 같았습니다.”라고 그녀는 나중에 썼다. “슬픈 동정심과 함께 나의 관심은 점점 더 러시아 노동자 혁명 운동으로 향했다.”⁴³⁾

이 시기 콜론타이는 페테르부르크 여성 지식인들과 접촉하며, 점차 사회적 억압의 문제를 공적 해방의 과제로 전환하는 사상적 성장의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그녀는 페테르부르크에서 여성 지식인들과 교류하였고, 이들과의 대화를 통해 러시아의 사회문제와 여성의 지위에 대해 자각하게 되었다. 이 무렵 콜론타이는 인민주의와 마르크스주의 사상을 동시에 공부하였으나, 점차 계급 분석과 사회 구조 비판을 중심으로 한 마르크스주의 사상에 더욱 끌리게 되었다. 그녀는 엘레나 스타소바(Elena Stasova)를 비롯한 여성 마르크스주의자들과 교류하면서, 노동자들을 위한 일요 강좌를 조직하고, 망명 중인 혁명가들이 제작한 선전 문서를 배포하는 활동을 도왔다. 이 시기 콜론타이는 노동자 계급의 자각과 해방이야말로 사회 전체를 변화

42) 한정숙, 앞의 논문, pp. 200-201.

43) BARBARA EVANS CLEMENTS, 「Emancipation Through Communism: The Ideology of A. M. Kollontai」, Slavic Review, p. 324.

시킬 수 있는 핵심 동력이라 믿었다. 이러한 실천 경험은 콜론타이에게 사상과 현실을 결합하는 첫 계기였으며, 그녀가 단순한 관찰자에서 적극적인 정치 주체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었다.⁴⁴⁾

콜론타이의 사상은 책상 위의 이론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회 현실과의 만남을 통해 더욱 급진화되고 명확해졌다. 특히 1896년, 남편의 업무 출장을 따라 동행한 크론호름(Kronholm)의 직물공장을 방문한 사건은 그녀의 인생에서 결정적 전환점이 되었다. 이 공장은 약 1만 2천 명의 노동자를 고용한 대규모 방직공장이었으며, 콜론타이는 공장 내부와 인근 노동자들의 거주지를 둘러보게 되었다. 그곳의 열악한 노동환경뿐 아니라, 그보다 더욱 충격적인 현실—거리에서 죽은 채 방치된 한 아이의 시신을 목격하는 경험을 통해 러시아 노동자 계층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체감하게 되었다. 아이를 돌보는 일을 맡았던 한 노파는 “이런 일은 흔하다”라고 무심하게 말했고, 그 순간 콜론타이는 러시아 노동계급의 삶과 자신이 속한 세계 사이의 간극을 뼈저리게 느꼈다.⁴⁵⁾ “바라크에서의 전율, 그날의 광경과 악취가 그녀의 운명을 결정했다”라고 콜론타이는 후에 말하고 있다.⁴⁶⁾ 콜론타이가 노동자 계층의 비참한 삶의 현실을 직접 목격한 이 경험은 그녀의 정치적 방향 전환과 사상 형성에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그 이후, 1898년 콜론타이는 남편과 자식을 남겨둔 채 스위스로 유학을 떠났다. 그곳에서 자유롭게 학생으로서 생활하면서 러시아에서는 금지되어 있는 많은 저작들을 읽고 탁월한 마르크스주의 저술가가 되고자 하였다.⁴⁷⁾ 그녀는 자신이 취리히로 간 것과 그 후의 활동에 대해 이렇게 썼다. “이와

44) 한정숙, 앞의 논문, p. 203.

45) 한정숙, 앞의 논문, pp. 203-204.

46) 비어트리스 판스워드. 신민우 역, 『알렉산드라 콜론타이 볼셰비키혁명과 여성해방』, 풀빛, 1986, p. 39.

47) 비어트리스 판스워드. 신민우 역, 앞의 책, p. 42.

함께 노동계급 운동의 혁명적 목표를 위한 나의 의식적 삶이 시작되었다. 1899년 상트페테르부르크로 돌아오면서 나는 비합법적인 러시아 사회민주 노동당(RSDLP)에 입당하였다. 나는 집필자 겸 선전가로 활동하였다.”

그녀가 처음 작성한 사회주의 선전문은 핀란드 독립 문제에 관한 것이었다. 콜론타이는 핀란드계 외조부의 영향으로 핀란드인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갖고 있었고, 러시아 제국주의하에서의 민족 억압 문제를 민감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그녀는 핀란드 경제와 노동계급의 실태를 연구하면서, 민족 해방과 계급 해방의 연결고리를 강조하였다.⁴⁸⁾

콜론타이는 가정생활과 혁명 활동 사이에서 깊은 갈등을 겪었지만, 결국 스위스 취리히 유학을 계기로 혁명가로서의 삶을 선택하게 되었다. 당시 러시아에서는 여성 혁명가들의 활동이 활발했고, 귀족 출신 지식인의 체제 이반도 드문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어린 아들을 두고 혁명운동에 투신하기 위해 홀로 유학길에 오른 그녀의 선택은 이례적인 결단이었다. 이는 콜론타이가 사적 영역을 넘어 본격적으로 사회적 실천의 장에 들어섰음을 보여준다.⁴⁹⁾

콜론타이는 이후 소비에트 정권하에서 여성문제 전담 기구인 제노텔 창설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였으며, 중앙아시아 지역에서는 무슬림 여성 조직화와 후쭘(Худжум) 운동과 같은 실천에 영향을 미쳤다. 이는 그녀가 구상한 여성 노동자 해방 이념이 국가 정책과 조직 활동을 통해 구체화 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단순한 이론가를 넘어 실천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 전환점이었다.

48) 한정숙, 앞의 논문, pp. 204-205.

49) 한정숙, 앞의 논문, pp. 204-205.

2) 김알렉산드라의 생애와 정치적 성장

김알렉산드라의 사상과 정치 활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녀가 태어나고 성장한 러시아 극동지역, 특히 연해주역의 역사적·사회적 조건을 고찰할 필요가 있다. 연해주는 19세기 중엽 베이징 조약(1860)을 통해 러시아 제국의 영토로 편입된 이래, 제정러시아의 동방 식민 확장의 거점으로 기능하였다. 이 지역은 청 제국과 조선, 러시아 간의 경계 지대였으며, 다양한 민족이 혼거하는 다인종 공간으로 형성되었다. 특히 조선에서 유입된 한인들은 이 지역에서 중요한 노동력 집단이자 정치적 주체로 성장하게 되었다.⁵⁰⁾

한인들의 이주는 1869년의 조선 대기근이나 1894년의 전쟁, 1905년 또는 1910년 한일합병과 같은 큰 사건이 있을 때마다 그 수가 증가하여 1917년 무렵에는 약 20만 명의 한인이 노령에 거주하게 되었다. 주로 생계형 탈출과 함께, 항일 투쟁을 위한 망명 성격을 동시에 띠고 있었다. 한인들이 이주했을 때 연해주 일대는 거의 무인지대로 러시아인 주둔 병이 수십 명에 불과했으며, 러시아 정부는 20만 평방킬로미터의 면적을 가진 연해주를 개척하기 위해 한인 이주를 허용하였다.⁵¹⁾ 한인에 대한 우호적 태도는 1880년대에 들어와 러시아 당국이 '러시아인을 위한 러시아'라는 슬로건으로 상징되는 대러시아주의에 입각한 일련의 적극적인 이민장려정책을 추진함으로써 바뀌어갔다.⁵²⁾

1891년 아무르 연안 지역의 총독 코르프(Baron Korf) 남작에 의해서 한인 이주민에 대한 정책이 수립되었는데 그는 조선인을 세 부류로 구분하였다. 첫째, 1884년 이전에 러시아에 정착하여 러시아 국적 취

50) 정철훈, 『김알렉산드라 평전』, 필담, 1996, pp. 25-28.

51) 정철훈, 앞의 책, pp. 29-31.

52) 반병률, 「露領 沿海州 한인사회와 한인민족운동(1905~1911)」, 『한국근현대사연구』 제7집, 1997, p. 70.

득을 희망하는 조선인들에게는 가구당 15제샤찌나(десятина)⁵³⁾의 토지가 할당되도록 규정하였다. 둘째, 1884년 이후에 러시아에 정착한 조선인들은 2년 이상 현 거주지에 머무는 것을 금지하며 2년 후에 조선 정부가 발행한 여권을 가지고 귀국하도록 종용하였다. 셋째, 러시아 당국이 발행한 일종의 체류 증명서를 지참하고 일정 기간 체재하기 위하여 입국한 조선인들은 엄연한 외국인으로 취급 됐다.

이러한 환경 때문에 노령 이주 사회는 계급적 이중성이 작용하여 노동자·농민의 대부분은 착취 계급과 피착취 계급의 대립구조에 이르렀다.⁵⁴⁾ 그 결과 연해주는 단순한 이민 공동체가 아니라, 조선인의 계급 해방과 민족 해방 운동이 동시에 전개되는 복합적 공간으로 작동하였다. 특히 1905년 러시아 제1차 혁명과 함께 이 지역은 사회주의 사상이 확산되고, 철도 노동자 파업과 반제국주의적 봉기가 빈번히 발생한 혁명적 공간이 되었다.

이러한 다민족 혼합지대에서의 삶은 김알렉산드라에게 사회주의적, 국제주의적 인식을 길러주는 기반이 되었다. 조선인으로서의 민족적 정체성과 다민족 노동자와의 공동 투쟁 속에서 획득한 계급적 자각은 그녀가 이후 불세비키혁명과 극동지역의 노동자 조직화에 깊이 관여하게 되는 사상적 토대를 형성하였다. 연해주는 그녀에게 단순한 거주지가 아닌, 정치적 주체로 성장할 수 있었던 역사적 환경이자 사회주의적 실천의 출발점이었다.⁵⁵⁾

김알렉산드라의 생애는 상해 임시정부에서 간행한『독립신문』에 계봉우가 3차례에 걸쳐 연재한 ‘김알렉산드라 전기’를 통해 자세히 알 수 있다.⁵⁶⁾ 그

53) 1 제샤찌나(десятина)는 2.7에이커(acre)이다.

54) M. T. KIM. 『일제하 극동시베리아의 한인 사회주의자들』, 역사비평사, 1990, pp. 55-56.

55) 정철훈, 앞의 책, pp. 57-65.

56) 계봉우는 필명인 ‘뒤바보’ 명의로 ‘김알렉산드라 전기’를 연재하였다. 첫 번째 전기는 1920년 4월 17일에, 두 번째 전기는 4월 20일, 마지막 세 번째 전기는 4월 22일에 게재하였다. 『독립신문』 제66호 3면에 실린 첫 번째 전기는 도입부로서 ‘서언, 1. 독법(讀法), 2. 그의 인격’의 3부분으로 구성되었다. 『독립신문

첫 번째 전기인 ‘1. 그의 가정’에 의하면 김알렉산드라의 부친은 김두서(金斗瑞)이다. 김두서는 함경북도 경흥 사람으로서 기사(己巳) 흉년에 두만강을 건너 러시아 연해주로 갔다.

‘기사(己巳) 흉년’은 1869년 순조 9년에 해당한다. 그해 조선 전역이 극심한 흉년으로 고통을 받았는데, 그 와중에 함경북도 경흥의 김두서도 살길을 찾아 러시아 연해주로 갔던 것이다. 김두서는 처음 연해주 연추(烟秋)로 갔다가 후에 추풍(秋風) 영안평(永安坪)으로 옮겨갔다. 김알렉산드라는 추풍 영안평에서 출생하였다.

계봉우의 ‘김알렉산드라 전기’ 중 ‘2. 그의 출생’에 의하면 “그는 기원 4217년에 영안평 농가에서 고고(呱呱)의 성(聲)을 방(放) 하였다.”고 하여 1884년(고종 21)에 태어났다고 하였다. 단군기원 4217년을 서력으로 환산하면 1884년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김알렉산드라의 여동생인 마리아 빼뜨로브나 채(마리아는 채행길의 부인이기에 채가 붙음)의 증언에 의하면, 김알렉산드라는 1885년 2월 22일 태어났다. 출생지는 현재의 연해주 니콜리스크-우수르스크 주변의 시벨리꼬보 마을이었다.⁵⁷⁾

계봉우의 ‘김알렉산드라 전기’ 중 ‘3. 사회사상의 동기’에 의하면, 김알렉산드라는 초등, 고등학교에 다닐 때 차(此) 민족이 타민족에게 불공평한 압박을 받거나 또는 전제정치 하에서 무리한 고통을 받는 그 인민의 정경(情景)을 목격할 때마다 “쌍권(雙拳)을 불끈 쥐고 치아를 우드득 갈면서 대성대규(大聲大叫) 하여 말하기를 여차(如此)한 큰 가정압력(苛政壓力)을 결코 청소(淸掃) 하리라.” 했다고 한다. 김알렉산드라는 학창 시절부터 차별과

』 제67호 3면에 실린 두 번째 전기는 본문으로서 ‘1. 그의 가정, 2. 그의 출생, 3. 사회사상의 동기, 4. 사회사상의 표현’의 4부분으로 구성되었다. 마지막으로 『독립신문』 제68호 3면에 실린 세 번째 전기는 본문과 마무리로서 ‘5. 혁명가의 대활약, 6. 최종의 선언, 결론’의 3부분으로 구성되었다. 이처럼 계봉우의 ‘김알렉산드라 전기’는 총 10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57) 정철훈, 『김알렉산드라 평전』, 필담, 1996, p. 6.

불평등에 대한 정치의식이 발달했던 것이라 이해할 수 있다.

그 결과 김알렉산드라는 “성년이 되매 러시아 혁명당의 쾌남아(快南兒)들과의 지기(志氣)가 상합하여 유명한 혁명가 단계비치란 인(人)게 출가하였다.”고 한다. 김알렉산드라가 단계비치와 혼인한 때는 1905년으로 그녀의 나이 25살 때였다.⁵⁸⁾ 계봉우는 혼인 후 김알렉산드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그 시(時)부터 후(後)로는 사상이 점차로 고도로 향상하여 자유, 평등, 공동의 삼대주의를 연마, 실천하려고 결심하였다. 그 삼대주의는 구분하면 이러하다. 자유 상으론 못 노동 자유, 연애 자유, 수요(需要) 자유, 신체 자유, 정신 자유, 연합 자유, 평등 상으론 인격 평등, 경제 평등, 지위 평등, 지식 평등, 공동 상으로 소비 공동, 양육 공동, 언론 공동 그것을 위하여 일하고, 살고, 죽고 하려는 심장의 근저(根柢)가 더욱더욱 심고(深固) 하였다. 그를 인(因)하여 전제가정(專制苛政)을 통매(痛罵)하였다. 또 군국주의와 계급제도를 어디까지 질시하였다. 그는 흑암(黑暗)한 동천(洞天)에 대광명을 발현하려고 그 주의에 더할 나위 없는 열광 병자(病者)로 되셨다.”

계봉우의 기록대로, 김알렉산드라는 1905년 혼인 이후부터 열광적인 사회주의자로 변신했다. 의화단 운동이 고조되던 1900년, 김알렉산드라는 러시아군에 의해 무차별적으로 체포된 중국인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무죄를 입증하는 데 직접 나섰다. 이 경험은 그녀가 사회적 약자와 피억압 민족의 권리를 대변하며 착취 구조에 저항하는 태도를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후 국제주의적 시각과 무산계급 해방에 대한 결심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⁵⁹⁾

58) 정철훈, 『알렉산드라 페트로브나 김』, 시대의 창, 2021, p. 582.

59) 이현영, 「1910년대 사회운동과 김 알렉산드라」,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의화단 사건 이후 부친의 사망으로 보호자를 잃은 김알렉산드라는 폴란드계 러시아인의 후견 아래 블라디보스토크 여성 사범학교에 진학하였고, 이곳에서 러시아 혁명사상과 비합법 문서를 접하며 급진적 정치사상에 눈을 뜨게 되었다. 이 시기의 지적 경험과 동료들과의 교류는 그녀의 사회주의적 세계관 형성에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⁶⁰⁾ 김알렉산드라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사범학교를 졸업한 후, 영안평에서 교사로 근무하던 시기에 결혼하였고 생활은 순탄하지 않았다. 출산과 이혼 후 블라디보스토크로 돌아온 그녀는 결혼과 교사 생활로 인해 잠시 단절되었던 진보적 성향의 동료들과의 교류를 재개하였으며, 이 시기를 기점으로 정치적 활동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방향성을 더욱 분명히 하게 되었다.⁶¹⁾

한편, 김알렉산드라는 비록 당원이 아니었으나, 1905~1907년 프롤레타리아 총파업과 차르 체제 타도를 주장한 레닌의 노선을 지지하며 볼셰비즘에 동조하였다.⁶²⁾ 그녀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전개된 노동운동과 민주화 시위에 참여하며 지하 혁명가들과 연대하였고, 이로 인해 제정러시아의 탄압을 받아 중국 길림성으로 피신하였다. 이 시기의 활동은 단순한 사상 수용을 넘어, 체제 저항과 국제적 연대를 동반한 실천으로 이어지는 전환점이 되었다.⁶³⁾

그녀는 혁명과 내전, 민족 해방과 국제주의가 충돌하던 시대의 비극이자,

논문, 2004, pp. 26-29.

60) 1840년대 이후 러시아 문학과 사회사상에 대단한 영향을 미친 게르첸의 『누구의 죄인가?』(1847), 『과거와 사상』(1852~1868)와 1860년대에 들어서면서 당시 가장 큰 센세이션을 일으킨 체르느이웬스키의 『무엇을 할 것인가』(1863)가 있다. 또한 인텔리겐차에게 큰 영향을 준 비평가인 도브롤류보프와 피사레프의 반정부적인 실랄한 비평이 젊은 사상가들에게 열렬한 지지를 받았다. 따라서 이들 모두 러시아의 사회사상과 혁명운동에 큰 영향을 주었다. 이현영, 앞의 논문, pp. 30-31, 재인용.

61) 이현영, 앞의 논문, pp. 32-33.

62) 이현영, 앞의 논문, p. 45.

63) 정철훈, 『김알렉산드라 평전』, 필담, 1996, p. 109.

한 여성 사회주의자의 정치적 헌신의 최후였다. 그 헌신의 출발점은 그녀가 20대 후반, 즉 25세에서 28세 사이에 볼셰비즘을 수용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이후 김알렉산드라는 열렬한 볼셰비즘 추종자로서 소수민족 노동자 해방과 피압박민족 해방에 헌신하는 삶을 살게 된다. 이러한 노선과 방법론은 그녀가 독자적으로 창안한 것이 아니라, 1903년 러시아 사회민주노동당 볼셰비키가 공포한 강령에 기초한 것이었다.

2. 두 인물의 노동자 해방 이론과 사회주의 계급관

알렉산드라 콜론타이와 김알렉산드라는 서로 다른 시간과 공간, 그리고 조건 속에서 활동했지만, 두 사람 모두 노동자 계급의 해방이라는 공통된 목표를 향해 정치적 삶을 이어갔던 여성 혁명가들이었다. 콜론타이는 러시아 제국의 수도 상트페테르부르크를 중심으로 활동하며 사회주의 여성운동의 이론을 정립하고 실천을 이끈 인물이었고, 김알렉산드라는 러시아 동부 변방에 위치한 조선인 밀집 지역, 연해주를 기반으로 민족과 계급이 교차하는 현장에서 혁명운동을 실천해 나갔다.

두 인물은 출신 배경도, 사회주의를 받아들인 계기나 실천 방식도 달랐지만, 공통적으로 주변부에 놓인 억압받는 사람들과 함께하며 그들을 정치적 주체로 조직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서로 연결된다. 특히 이들은 모두 러시아 사회민주노동당(RSDLP)의 영향을 받아 사회주의 사상을 수용하였고, 각자의 위치에서 여성 혹은 소수민족 노동자의 해방을 핵심 실천 과제로 삼았다.

콜론타이는 여성 노동자 해방의 이념을 마르크스주의 이론 속에서 체계화하고, 국가 제도의 개입을 통해 여성의 삶을 사회주의적으로 재편하려 했다. 또한, 후츨 운동은 콜론타이의 이론적 틀이 반영되어서 형성되었기

때문에 그녀의 사상을 유추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이에 반해 김알렉산드라는 당의 강령과 지령을 바탕으로 민족적 억압과 계급적 착취를 동시에 겪는 조선인 노동자들을 조직하고 계몽하는 데 힘쓰며, 제국의 주변부에서 해방을 실현해 나갔다.

1) 알렉산드라 콜론타이의 노동자 해방 이론

노동자를 자본주의적 착취로부터 해방하는 것은 마르크스주의의 기본 원칙 중 하나이다. 카를 마르크스와 프리드리히 엥겔스는 역사가 계급투쟁에 의해 주도되고 자본주의는 본질적으로 노동계급을 착취하여 스스로를 지탱한다고 주장했다. 그들의 견해에 따르면 진정한 노동자 해방은 부르주아지를 전복하고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를 없앨 프롤레타리아 국가를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동자 해방에 대한 이러한 비전은 사회주의 혁명의 이론적 토대가 되었고, 알렉산드라 콜론타이를 포함한 후대 혁명가들에게 영향을 미쳤다.

마르크스(Karl Marx)와 엥겔스(Friedrich Engels)는 『공산당선언』(1848)에서 “지금까지 존재한 모든 사회의 역사는 계급투쟁의 역사이다. 자유민과 노예, 귀족과 평민, 영주와 농노, 길드 장인과 직인 - 요컨대 억압자와 피억압자의 관계는 항상 대립 속에 이루어졌으며, 끊임없는 투쟁, 때로는 은밀하게, 때로는 공공연히, 항상 그 투쟁은 사회 전체의 전면적 혁명적 개조로 또는 투쟁계급의 공동 파멸로 끝나는 투쟁이었다.”⁶⁴⁾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이 문장에서 역사 발전의 원동력을 ‘계급 간의 갈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억압자와 피억압자 사이의 구조적 갈등에 있다고

64) 카를 마르크스·프리드리히 엥겔스. 권화현 역, 『공산당선언』, 펍킨클래식코리아, 2010, p. 228.

보았다. 이는 단순한 사회 변화 이론이 아니라, 계급 간의 이해관계 충돌이 어떻게 사회 질서를 뒤흔들고 새로운 체제로 전환하게 되는지를 설명하는 핵심적인 역사관이다. 마르크스는 고대 노예제 사회에서 중세의 봉건 질서, 그리고 자본주의 체제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회가 근본적으로는 지배계급과 피지배 계급 사이의 대립구조 위에 존재한다고 보았으며, 이러한 갈등은 종국에는 혁명이라는 형태로 분출된다고 보았다. 이와 같은 마르크스주의의 역사 인식은 콜론타이의 노동자 해방 사상 형성에 이론적 기반을 제공하였다. 콜론타이는 자본주의 사회가 여성 노동자를 이종으로 억압하고 있다고 보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개혁이 아니라 계급 구조 자체를 해체하는 사회주의 혁명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였다. 따라서 그녀는 노동해방을 단지 임금노동자에 한정하지 않고, 가사 노동과 돌봄노동에 이르기까지 확장하며 마르크스주의적 계급투쟁 이론을 젠더의 영역으로 발전시켰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르주아계급이 성장함에 따라 이에 종속된 프롤레타리아 계급도 함께 형성되며, 이들은 자본가 계급의 등장과 동시에 자연스럽게 투쟁을 시작하게 된다. 초기에는 개별 노동자들의 저항으로 출발하지만, 점차 공장 단위나 지역 단위로 확대되면서 조직적인 형태를 띠게 되며, 이들은 단순히 고용주에 대한 저항을 넘어 자본주의 생산관계 자체에 도전하게 된다.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외국 상품이나 생산 기계를 파괴하고, 때로는 공장을 불태우며, 중세 장인의 자율적 지위를 회복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기도 하였다.⁶⁵⁾

65) 대표적인 역사적 사건으로는 19세기 초 영국의 러다이트 운동(1811~1812년), 맨체스터의 피털루 사건(1819년), 그리고 프랑스 리옹의 노동자 봉기(1831~1833년) 등이 유명하다. 특히 러다이트 운동은 영국의 수공업자들이 자신들의 일자리를 빼앗은 섬유기계를 파괴한 폭동(즉 기계파괴운동)으로 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자본가에게 빌려 사용하던 기계를 파괴함으로써 자본가의 착취에 맞서 계급투쟁을 벌인 노동운동이었다. 칼 맑스·프리드리히 엥겔스.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으로 얻는 것은 고작 자신의 생존을 연장하고 재생산하는 데 족할 뿐이다. ... 노동자들이 자본을 증식시키기 위해서만 살 뿐이며 지배계급의 이익이 요구하는 한에서만 목숨을 이어갈 수 있는 현실 상황의 비참한 성격을 없애고자 하는 것이다.”⁶⁶⁾

자본주의 체제에서 부르주아지는 생산수단과 교환 수단을 독점함으로써, 노동자의 삶을 철저히 자본가 계급의 통제 아래 종속시켰다. 이러한 조건 속에서 노동은 더 이상 인간적 자율성을 보장하지 못하며, 오직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였다.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지적했듯이, 노동자는 자신이 생산한 가치를 소유할 수 없는 구조 속에 존재하며, 이는 자본주의가 만든 제도적 모순의 핵심이다. 이로 인해 노동자 계급의 진정한 해방은 사적 소유를 폐지하고 생산수단을 사회적으로 공유하는 혁명적 전환 없이는 실현될 수 없다. 이러한 인식은 알렉산드라 콜론타이의 노동해방론에도 깊게 반영되어, 그녀는 여성 노동자들이 자본주의 생산 체계와 가부장적 질서 속에서 겪는 이중 착취 구조를 통합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결국, 프롤레타리아 계급은 단순한 개혁이 아니라 근본적 변혁, 곧 사적 소유의 철폐를 통해서만 스스로를 해방시킬 수 있는 존재로 규정된다.⁶⁷⁾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공산당선언』에서 프롤레타리아가 단지 피억압 계층이 아니라, 스스로 해방의 과제를 수행해야 할 역사적 주체임을 명확히 하였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노동자는 생산수단을 소유하지 못한 채 자신의 노동력만을 시장에 내놓아야 하며, 이로 인해 개인의 삶은 끊임없는 착취 구조 속에서 자본 축적의 수단으로 전락하게 된다. 따라서 프롤레타리아의

심철민 역, 『공산당선언』, 도서출판b, 2018, pp. 26-31.

66) 데이비드 보일 지음. 유강은 역, 앞의 책, pp. 65-66.

67) 카를 마르크스·프리드리히 엥겔스. 권화현 역, 앞의 책, pp. 241-242.

해방은 일시적 개혁이나 복지의 확대를 통해 이루어질 수 없으며, 자본주의의 핵심 구조인 사적 소유를 철폐하는 근본적인 체제 전환이 전제되어야 한다.⁶⁸⁾ 이러한 마르크스주의적 관점은 이후 사회주의 사상가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으며, 알렉산드라 콜론타이 역시 이 문제의식을 계승하였다. 콜론타이는 노동해방을 단지 임금노동의 해소로만 한정하지 않고, 여성들이 수행하는 가사 노동과 재생산 노동의 사회화까지 포괄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녀는 진정한 해방이란 사적 소유의 철폐뿐 아니라, 사회적 관계 전체의 재편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마르크스는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첫 단계는 노동계급이 정치권력을 장악하여 지배계급으로 전환되는 것이라고 보았다. 프롤레타리아는 자본가 계급으로부터 생산수단을 하나씩 몰수하고, 이를 프롤레타리아가 조직한 국가의 통제 아래 두는 것이다. 이를 통해 생산력을 가능한 한 빠르게 발전시켜야 하며, 기존의 부르주아 질서는 폭력적 충돌을 통해 해체될 수밖에 없다고 보았다. 초기 조치들은 불완전하고 불안정할 수밖에 없지만, 혁명 과정 속에서 점차 더 급진적이고 본질적인 사회 질서의 해체로 이어지게 된다. 이처럼 프롤레타리아는 단순히 억압을 해방으로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권력을 활용해 생산관계 전반을 재편하는 역사적 과제를 수행해야 하는 계급으로 규정되었다.⁶⁹⁾

『공산당선언』 제2장 “프롤레타리아와 공산주의자”에서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노동자 계급 해방의 실천 경로를 세 가지 단계로 정리하였다. “첫째, 프롤레타리아 계급이 정치권력을 획득하여 지배계급으로 전환되는 정치혁명, 둘째, 국가 권력을 장악하여 생산수단을 사회화하고 자본의 집중을 해체함으로써 기존의 부르주아 질서를 타파하는 경제적 개혁, 셋째, 이러한

68) 카를 마르크스·프리드리히 엥겔스. 권화현 역, 앞의 책, pp. 251-253.

69) 칼 맑스·프리드리히 엥겔스. 심철민 역, 앞의 책, pp. 63-64.

전환 과정을 통해 사회주의를 거쳐 공산주의로 나아가는 사회 구조의 혁신”이 그것이다. 이 과정에서 마르크스는 국가를 단순한 행정 기구가 아닌, 계급투쟁의 주체로서 재정의하였다. 즉, 국가는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정치적 주도권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며, 토지 국유화, 누진세 도입, 상속 폐지 등 급진적인 제도 개혁을 통해 자본주의적 생산관계의 토대를 해체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고 본 것이다. 나아가 마르크스는 계급의 존재가 특정한 생산력 발전 단계와 연관되어 있으며, 이러한 계급투쟁은 필연적으로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거쳐 모든 계급의 철폐와 무계급 사회로 이행하는 역사적 경로를 밟게 된다고 주장하였다.⁷⁰⁾

마르크스는 『공산당선언』 이후 계급투쟁 이론을 보다 구체화하며,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전환기의 필수적인 정치형태로 정립하였다. 프롤레타리아 독재란 기존의 지배계급을 해체하고 노동계급이 정치권력을 장악하는 과도적 체제를 의미하며, 단순한 억압 기구로서가 아닌 계급 폐지를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 기능했다. 이는 마르크스가 1871년 파리코뮌의 경험을 분석하면서 제시한 입장으로, 기존의 국가 기구를 단순히 승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해체하고 새로운 형태로 재조직해야 한다는 전략적 구상을 포함하고 있다.⁷¹⁾ 이러한 사상은 이후 레닌의 『국가와 혁명』(1917)에서 이론적으로 계승되었으며, 소비에트를 중심으로 한 프롤레타리아 정권의 수립으로 구체화 되었다. 알렉산드라 콜론타이는 이 이론적 흐름 속에서 노동자 계급의 해방이 단지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을 넘어 국가 권력의 직접 장악과 사회 구조의 근본적 재편을 수반해야 함을 인식하고, 이를 실천적 과제로 받아들였다.

콜론타이의 노동해방 이론은 마르크스주의의 계급 해방론을 이론적 토대

70) 카를 마르크스·프리드리히 엥겔스. 권화현 역, 앞의 책, p. 335.

71) 카를 마르크스·프리드리히 엥겔스. 권화현 역, 앞의 책, p. 230.

로 삼으면서도, 여성 노동자들이 자본주의와 가부장제라는 이중 억압 구조 속에서 고유한 착취를 경험한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그녀는 프롤레타리아 독재와 생산수단의 사회화라는 고전 이론을 계승하되, 재생산 노동의 사회화를 노동해방의 핵심 과제로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 공공 탁아소, 공동 세탁소, 공공식당 등의 사회적 인프라 도입을 제안하며 여성 노동자의 가사 부담 해소를 주장했다. 또한 콜론타이는 소비에트 정권 내부에서 여성의 정치적 참여를 확대하고자 여성부(Zhenotdel)를 주도적으로 운영하였다. 이처럼 콜론타이는 계급 해방 이론을 젠더적 현실에 맞게 재해석하고 적용함으로써, 사회주의 여성해방론의 기초를 정립한 사상가로 평가된다.

2) 김알렉산드라와 소수민족 노동자 해방 이론

김알렉산드라의 노동자 해방 이론은 독자적인 사상 체계를 구축했다기보다는, 러시아 사회민주노동당(RSDLP)의 강령과 지령을 충실히 수용하고 이를 실천적으로 전개한 것으로 이해하는 편이 더 타당하다. 1917년 이후 본격화된 그녀의 활동은 사회주의 이념이 제시한 계급 해방의 방향을 제국 주변부의 조선인 노동자 현실에 적용하려는 노력으로 볼 수 있다.

특히 그녀는 당 강령에 기초해 조선인 노동자들의 정치적 각성과 조직화를 추진했으며, 민족적 억압과 계급적 착취가 중첩된 조건 속에서 노동자 해방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러한 실천은 우랄 지역 조선인 노동자 및 사관생 조직화 활동, 그리고 나아가 한인사회당 창당으로 구체화 되었다.

1903년 8월에 러시아 사회민주노동당 제2차 당대회가 개최되었다. 제2차 당대회는 1898년 개최된 제1차 당대회 이후 5년 만에 개최된 것으로 멘셰비키와 볼셰비키의 분열과 함께 러시아 사회민주노동당의 강령을 확립한

당대회이기도 하였다.

당시 당 강령은 레닌이 지도하는 볼셰비키가 주도하여 결정하였는데, 당의 목표를 장기적 목표와 즉각적 목표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장기적 목표는 사회주의 사회의 건설이라는 당의 궁극적 목표와 그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사회주의 혁명과 프롤레타리아의 독재를 명확히 선언했다. 이는 마르크스주의 이념에 따라 자본주의 타도와 프롤레타리아 혁명정부 수립을 당의 지향점으로 천명한 것으로 “사회혁명의 필수 조건은 프롤레타리아 독재”라는 문구로 집약되었다.

이때 볼셰비키들이 추구한 사회혁명, 노동자 해방 특히 소수민족 해방 또는 소수민족 노동자 해방에 대해서는 다음의 정치 선언문과 부분별 강령을 통해 그 내용과 방법론을 확인할 수 있다.

“<정치 선언문>

우리는 사회혁명을 국제 사회민주주의의 모든 활동의 궁극적 목표이자, 프롤레타리아 운동의 계급의식을 반영하는 표현으로 본다. 사적 소유를 공공의 생산 및 교환 수단으로 대체하고, 생산과정을 계획적으로 조직함으로써 사회구성원 전체의 복지와 다면적 발전을 보장하는 사회혁명을 통해, 프롤레타리아는 사회의 계급 분화를 철폐하고 억압받는 인류 전체를 해방시키며, 모든 형태의 착취를 종식시킬 것이다.

이러한 사회혁명을 실현하기 위한 필수 조건은 프롤레타리아 독재이다. 이는 착취 계급의 저항을 분쇄할 수 있을 정도의 정치권력을 프롤레타리아가 획득하는 것을 의미한다. 프롤레타리아가 이 역사적 사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제 사회민주주의는 프롤레타리아를 부르주아 정당에 반대되는 독립적인 정치 정당으로 조직하고, 계급투쟁의 모든 양상을 지도하며, 착취자와 피착취자 사이의 양립 불가능한 이해관계를 폭로하고, 임박한 사회혁명의 역사적 의미와 그것이 이루어질 조건들을 명확히 한다.

동시에, 노동계급 외의 다른 피억압 대중에게는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절망적인 처지를 밝히고, 자본주의의 멍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사회혁명이 필요함을 인식시키고자 한다.

노동자 계급의 정당인 사회민주당은, 프롤레타리아의 입장을 받아들이는 한에서 모든 노동 계층과 피착취 계층에게 당에 합류할 것을 호소한다. 이에 따라 러시아 사회민주노동당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민주공화국 수립을 목표로 전제정치 타도를 당면 정치 과제로 설정한다.

<민주공화국 헌법이 보장해야 할 사항>

1. 민주권 : 국가의 최고 권력을 인민 대표로 구성된 단원제 입법기관에 집중.
2.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권 보장 : 20세 이상 남녀 모든 시민에게 적용.
3. 광범위한 지방자치 및 특별한 지역에 대한 자치권 부여.
4. 신체와 주거의 불가침성 보장.
5. 양심,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보장, 파업권 및 노동조합 결성의 권리 보장.
6. 이동 및 직업 선택의 자유.
7. 모든 특권 철폐 및 성별, 종교, 인종, 민족에 관계없는 완전한 평등 보장.
8. 모든 사람에게 모국어로 교육받을 권리 보장, 공공 기관에서 국가 공용어와 병행 사용 허용.
9. 국가를 구성하는 모든 민족의 자결권 보장.
10. 모든 시민은 정당한 절차를 통해 공직자를 배심원 재판에 회부할 권리 보유.
11. 판사의 국민 직선제.
12. 상비군 폐지 및 인민무장제 도입(민병대 조직).
13. 국가와 교회, 학교와 교회의 분리.
14. 모든 아동에게 만 16세까지 무상 의무 교육 제공, 빈곤 아동에게는 음식, 의류, 학용품을 국가가 지원.

<노동자 계급 보호 및 해방을 위한 요구 사항>

1. 하루 8시간 노동제 시행.
2. 초과근무 전면 금지.
3. 야간노동 금지 (기술적으로 불가피한 업종 제외).
4. 취학 연령 아동의 고용 금지.
5. 여성의 건강을 해치는 직종에서의 여성 노동 금지, 출산 전 4주, 출산 후 6주의 유급 출산휴가 제공.
6. 여성 노동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유아 및 아동 보육시설 설치.
7. 국가는 자본가에게 세금을 부과하여 노동자에게 노령 및 상해 보험 제공.
8. 경제 전반에 걸쳐 공장 감독관을 충분히 배치.
9. 근로자 주거지의 위생 상태를 지방 자치기관과 노동자 대표가 공동 감독.
10. 사업장에서의 건강검진 체계화 및 무상 진료, 병가 중 임금 지급 의무.
11. 노동자 보호 법규 위반 시 고용주에 대한 형사 책임 부과.
12. 모든 산업 부문에 노동자와 경영자 대표가 동수로 구성된 산업재판소 설치.
13. 지방 자치기관이 취업알선소(노동 교환소)를 설립하고, 노동자 및 고용주 대표가 관리에 참여.

<농민 문제 해결 및 농촌의 계급투쟁 촉진을 위한 요구 사항>

1. 농민에게 부과된 상환금, 지대, 기타 부담 철폐.
2. 농민이 자신의 토지를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도록 모든 법률 철폐.
3. 농민이 납부한 상환금과 지대 환급, 이를 위해 교회 재산, 재정 재산, 황실 및 귀족 토지 몰수, 귀족 지주에게는 특별세 부과하여 농촌 문화·복지 기금 조성.
4. 농민위원회 설치.
5. 과도한 지대 감면 및 봉건적 계약 무효화를 법원이 판결할 수 있도록 권한 부여.

<혁명 전략>

러시아 사회민주노동당은 이러한 즉각적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현 사회·정치 질서에 반대하는 모든 반대 세력 및 혁명운동을 지지한다.

그러나 동시에, 피지배 계급에 대한 경찰권 또는 관료주의적 통제를 확대하거나 강화하려는 어떠한 개혁주의적 방안도 단호히 거부한다.”⁷²⁾

위의 1903년 러시아 사회민주노동당의 부분별 강령 중에서 소수민족 또는 소수민족 노동자와 관련된 내용은 <민주공화국 헌법이 보장해야 할 사항>과 <노동자 계급 보호 및 해방을 위한 요구 사항>에 집중되어 있다. <민주공화국 헌법이 보장해야 할 사항>은 총 14개 조항으로 구성되었고, 그중 소수민족 또는 소수민족 노동자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조항은 7조, 8조, 9조의 3개 조항이다.

먼저 7조의 “모든 특권 철폐 및 성별, 종교, 인종, 민족에 관계 없는 완전한 평등 보장.”은 만민 평등, 민족 평등을 선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선언대로 만민과 민족 간에 완전한 평등이 실현되고 보장된다면 소수민족 또는 소수민족 노동자 해방이란 특별한 의미를 가질 수 없게 될 것이다.

또한 8조의 “모든 사람에게 모국어로 교육받을 권리 보장, 공공 기관에서 국가 공용어와 병행 사용 허용”은 소수민족의 모국어 사용을 보장하는 것으로 이는 러시아 내 소수민족의 정체성 유지를 보장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9조의 “국가를 구성하는 모든 민족의 자결권 보장”은 러시아 내 소수민족의 자결권을 보장하는 것으로, 이 선언대로 한다면 러시아 내 소수민족은 자치권은 물론 분리, 독립도 가능할 수 있었다.

이처럼 <민주공화국 헌법이 보장해야 할 사항>은 소수민족의 모국어 사용권, 자결권은 물론 민족 평등 보장권을 선언함으로써 러시아 내 소수민

72) The program of the Social Democrats (1903)

족 노동자들은 러시아 다수 민족과 차별 없는 노동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였다.

한편, 소수민족을 포함한 러시아 내의 모든 노동자 해방에 대한 문제는 <노동자 계급 보호 및 해방을 위한 요구 사항>에 집약되어 있다. 총 13조항으로 구성된 <노동자 계급 보호 및 해방을 위한 요구 사항>에는 1903년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내용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앞의 콜론타이의 여성 해방 사상에서 서술하였듯이 아동노동, 여성 노동과 관련된 내용이 그러하다. 4조의 “취학 연령 아동의 고용 금지”는 아동노동을 해방하려는 조항이고, 5조의 “여성의 건강을 해치는 직종에서의 여성 노동 금지, 출산 전 4주, 출산 후 6주의 육아 출산휴가 제공”과 6조의 “여성 노동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유아 및 아동 보육시설 설치”는 여성 노동을 해방하려는 조항이라 할 수 있다.

그 외 1조의 “하루 8시간 노동제 시행”, 2조의 “초과근무 전면 금지”, 3조의 “야간노동 금지(기술적으로 불가피한 업종 제외)”, 7조의 “국가는 자본가에게 세금을 부과하여 노동자에게 노령 및 상해 보험 제공”, 10조의 “사업장에서의 건강검진 체계화 및 무상 진료, 병가 중 임금 지급 의무”, 11조의 “노동자 보호 법규 위반 시 고용주에 대한 형사 책임 부과” 등은 노동자의 기본적인 인권을 반영한 것이다.

김알렉산드라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조선인 노동자들의 파업 운동을 주도하며, 러시아 사회민주노동당의 혁명 강령에 공감하는 과정을 통해 점차 불세비즘이 제시하는 계급 해방 이론을 수용해 나갔다. 그녀는 조선인 노동자들을 혁명의 주체로 조직하고 계급의식을 고양시키는 데 주력했으며, 파업과 선전 활동을 통해 계급적 연대를 실천하였다. 이러한 활동은 단순한 민족주의적 독립운동을 넘어서, 제국주의에 맞선 사회주의 혁명을 민족 해방의 전략으로 받아들인 실천이었다.

레닌은 러시아 내 소수민족들이 독립하거나 분리되는 것을 원칙적으로 허용했으나, 이는 진정한 의미의 자결권이라기보다는 소비에트 체제로의 통합을 전제한 전략적 자결권에 가까웠다. 그는 이미 러시아가 소비에트 공화국이라는 체제를 수립한 상황에서, 각 민족 내부에도 공산당을 조직하고 이들을 모스크바 중심의 국제 공산당 지휘 아래 두는 방식을 통해 소수민족의 소비에트화를 실현할 수 있다고 보았다. 더 나아가 이러한 모델을 식민지 약소민족에도 적용함으로써, 전 세계적인 공산화의 가능성을 전망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레닌의 민족자결권은 민족의 자율적 결정권이라기보다는, 공산주의 세계질서를 구축하기 위한 수단적 성격을 지닌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⁷³⁾

김알렉산드라는 조선과 러시아라는 이중의 배경 속에서, 식민지 조선과 전제정 러시아 모두를 억압 체제로 인식하고, 이 이중 억압을 타파할 수 있는 이념으로 사회주의를 받아들였다. 특히 1903년 레닌이 이끄는 러시아 사회민주노동당이 채택한 당 강령은 자본주의와 제국주의를 타도하고 생산수단을 사회화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고, 김알렉산드라는 이를 식민지 민족의 해방과 연결 지을 수 있는 이론적 기반으로 삼았다. 이후 1905~1907년 사이 프롤레타리아 총파업과 차리즘에 대한 저항이 고조되었을 때, 그녀는 비록 정식 당원이 아니었지만, 레닌의 혁명 노선을 지지하였다.⁷⁴⁾

이러한 관점은 김알렉산드라가 단순한 민족주의자가 아니라, 계급 해방과 민족 해방을 동시에 추구하는 사회주의적 실천가였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녀는 민족 해방을 독립된 목표가 아니라 사회주의 혁명이라는 세계사적 과업 속에 통합되는 문제로 인식하였으며, 프롤레타리아 계급이 혁명의 주체로 성장해야 한다는 마르크스주의의 기본 전제에 동의하였다. 다시 말해,

73) 월간중앙 JANUARY, 신명호의 상해임정 27년사 10, 2023. pp. 288-289.

74) 정철훈, 『김알렉산드라 평전』, 필담, 1996, p. 120.

그녀의 사상은 프롤레타리아 계급 형성과 의식의 고양, 사회주의 혁명을 통한 식민지 민족 해방이라는 다층적 전략을 포괄하고 있었다.

3. 두 인물의 노동자 해방에 관한 이론 비교

알렉산드라 콜론타이와 김알렉산드라는 각각 러시아 제국의 중심과 변방이라는 상이한 지리적, 역사적 조건 속에서 성장하였고, 그들의 사상적 지향 역시 시대적 맥락과 사회적 위치에 따라 서로 다른 방식으로 형성되었다. 그러나 두 인물은 공통적으로 마르크스-레닌주의에 입각한 사회주의 혁명의 이념을 내면화하고, 이를 노동자 계급의 해방이라는 실천적 과제로 구체화하였다는 점에서 사상적 유사성을 공유한다.

콜론타이의 노동자 해방 이론은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공산당선언』에 기반하여, 자본주의 사회의 착취 구조를 계급투쟁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프롤레타리아 독재와 생산수단의 공유를 통해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고전적 마르크스주의 노선을 따른다.⁷⁵⁾ 그러나 그녀의 이론적 독창성은 여기에 머물지 않고, 계급 해방 담론 속에 젠더적 억압의 문제를 통합하려 했다는 데 있다. 콜론타이는 여성 노동자들이 경험하는 이중 억압—즉 자본주의적 착취와 가부장적 지배—을 문제 삼으며, 재생산 노동의 사회화와 여성의 경제적 독립을 진정한 해방의 조건으로 제시하였다. 『여성문제의 사회적 기초』에서 그녀는 생물학적 성차가 아닌 사회경제적 조건이 여성 억압의 본질이라고 강조하며, 이는 당시 당내에서도 이견을 낳았던 급진적 입장이었다.⁷⁶⁾ 그녀는 또한 소비에트 체제 내에서 여성의 사회적 참여를 제도화하고자 노력했으나, 레닌과의 정책적 갈등, 소비에트 정권의 현실 정치로 인

75) 한정숙, 「알렉산드라 콜론타이와 여성주의: ‘부르주아’ 여성주의 비판에서 사회주의적-급진적 여성해방론으로」, 『러시아연구』제18권 제2호, 2008, p. 302.

76) 한정숙, 앞의 논문, p. 303.

해 그 이념은 부분적으로만 실현되는 한계를 지녔다.⁷⁷⁾

한편 김알렉산드라는 러시아 내 조선인 디아스포라 공동체 출신으로, 제국의 식민지 피지배 민족이라는 이중의 경계인 정체성을 바탕으로 노동자 해방 이론을 전개하였다. 그녀는 콜론타이와 같은 이론서 집필보다는 1903년 러시아 사회민주노동당(RSDLP)의 강령에 기초한 실천 중심의 활동가로, 민족 해방과 계급 해방의 결합을 주요 이념으로 내세웠다. 김알렉산드라에게 노동자 해방은 곧 피억압 민족 해방의 문제였으며, 이는 단순히 계급 간 모순이 아니라, 제국주의적 지배 질서에 대한 총체적 저항의 일환이었다.⁷⁸⁾ 그녀는 우탈노동자동맹의 조직과 한인사회당 창당, 소비에트 외무위원으로의 활동 등을 통해 다민족 노동자들을 조직하고, 이들이 자각된 정치적 주체로서 혁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끌었다. 특히 그녀의 실천은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원리를 민족적 맥락에 적용한 사례로 평가할 수 있으며, 이는 국제주의와 민족자결의 원칙이 충돌하지 않고 병행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⁷⁹⁾

이상의 비교를 통해 드러나는 것은, 콜론타이는 여성의 계급적 해방을 중심으로 사상과 이론을 전개한 이론가인 반면, 김알렉산드라는 억압받는 민족 공동체 내에서 조직 활동을 실천한 현장 중심 혁명가였다. 콜론타이는 자본주의 질서 해체와 함께 기존 가족 구조, 성도덕, 노동 관념 자체의 전환을 요구했으며, 사회주의 체제 내에서도 새로운 여성 주체의 탄생을 상상하였다. 반면 김알렉산드라는 피식민 조선인의 정치적 주체화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사회주의 이념을 민족 해방운동의 조직 이론으로 전환시켰다는 점에서 전략적 실천가의 면모를 보여준다.

77) 김은실, 「‘여성해방’에 대한 콜론타이와 레닌의 정치적 갈등」, 『정치사상연구』 제14집 1호, 2008, pp. 69-73.

78) 정철훈, 앞의 책, pp. 120-121.

79) 이현영, 「1910년대 사회운동과 김알렉산드라」,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pp. 57-58.

이처럼 두 인물은 각기 다른 조건 속에서 사회주의 노동자 해방 이론을 젠더 혹은 민족 억압과 결합시켜 재구성하였으며, 이는 단일한 이념 체계가 현실 조건 속에서 어떻게 변형·재해석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콜론타이와 김알렉산드라의 사상 비교는 단지 여성 또는 민족문제를 다룬 주변부 논의가 아니라, 사회주의 혁명 담론의 경계와 확장 가능성을 재조명하는 데 필수적인 시사점을 제공한다.

Ⅲ. 두 인물의 약소민족 해방에 대한 구체적 활동

앞선 장에서는 알렉산드라 콜론타이와 김알렉산드라가 각각 어떠한 사회주의 이론을 토대로 노동자 해방을 주장했는지를 살펴보았다. 두 인물은 공통적으로 마르크스-레닌주의에 입각하여 계급 해방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였으며, 이를 각기 처한 사회적 조건 속에서 민족 억압의 현실에 맞춰 실천적으로 변용하고 확장하였다.

콜론타이는 제국 내부의 소수민족, 특히 핀란드의 노동계급과 민족 해방 문제와 중앙아시아 무슬림 여성문제에 주목하여, 계급과 성 억압이 중첩된 구조를 전복하고자 하였으며, 김알렉산드라는 제국주의적 식민 지배에 맞서 조선 민족의 해방과 조선인 노동자의 조직화를 통해 사회주의적 실천을 전개하였다.

본 장에서는 이들이 각자의 역사적 맥락 속에서 약소민족 해방을 어떻게 구체화했는지를 분석하고, 그 실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함으로써 20세기 초 국제사회주의 운동이 갖는 이념적 지향과 지역적 다양성을 함께 고찰하고자 한다.

1. 콜론타이의 약소민족을 위한 해방 활동

1) 핀란드 노동계급과 민족 해방 : 콜론타이의 초기 시각

알렉산드라 콜론타이는 러시아 제국 내에서 성장한 귀족 출신 여성 사회주의자였다. 그녀의 사상은 초기부터 계급 해방과 여성해방을 넘어서 민족 억압 구조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포함하고 있었다. 그 출발점 중 하나는 바로 핀란드 민족 독립 문제에 대한 관심이었다. 콜론타이의 어머니는 핀란드계 러시아인으로, 콜론타이는 어린 시절부터 핀란드 문화와 언어에 노출되었고, 핀란드가 러시아 제국의 지배하에서 점점 자치권을 잃어가는 현실을 가까이서 접할 수 있었다.⁸⁰⁾

이는 콜론타이에게 ‘핀란드 문제’가 단순한 지적, 이념적 차원의 문제를 넘어 개인적, 정서적 공감대가 작용했을 수 있음을 암시했다. 그녀의 정치적 활동에 있어 개인적 경험이 중요한 동기 부여 요인이었음을 보여준다. 또한, 콜론타이는 20세기 초 러시아 사회민주노동당(RSDLP) 내에서 ‘핀란드 문제’에 관한 독보적인 전문가로 인정받았다. 약 1900년부터 1920년간 이 분야에서 주도적인 목소리를 냈으며, 이는 단순한 관심을 넘어선 깊이 있는 연구와 정치적 활동을 통해 구축된 명성이었다. 그녀는 제정러시아 국가두마(Duma) 내 사회민주노동당(RSDLP) 의원들의 자문역을 수행하고 핀란드 혁명가들과의 연락책 임무를 맡는 등 이론과 실천을 겸비한 활동을 펼쳤다.⁸¹⁾

80) Judy Cox, *Out of the shadows: Female Leninists and Russian socialism*. 2021, <https://spartacus-educational.com/LRUSkollontai.htm?utm-source=chatgpt.com>. 2025. 5. 26.

81) Natalia Novikova and Kristen Ghodsee, *Alexandra Kollontai(1872-1952): Communism as the Only Way Toward Women's Liberation*, 2023,

콜론타이는 1903년 취리히 대학 유학을 마친 뒤 러시아 사회민주노동당 (RSDLP)에 가입하면서, 처음으로 ‘핀란드 문제’에 대한 선전 문건을 작성하였다. 바로 『핀란드 노동자들의 삶, 경제 연구』라는 팜플렛이며, 핀란드 노동자와 농민의 생활 및 노동 조건을 산업과 연관 지어 분석한 주요 사회경제적 조사지로 평가받았다.⁸²⁾ 이 책은 “혁명가들 사이에서 많은 주목을 받았으며, 그녀는 주목할 만한 마르크스주의 정치경제학자이자 노동계급 문제에 대한 존경받는 전문가로 명성을 확립시켰다.”⁸³⁾ 또한 그녀는 핀란드 경제를 정통 마르크스주의 관점에서 면밀히 분석했는데, 그 결과 핀란드 사회가 이미 자본주의 발전 단계에 진입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콜론타이는 임금 수준, 주택 환경, 공장 조건 등의 통계를 바탕으로 경제 상황이 점점 악화되고 있다고 보았고, 이러한 구조적 조건이 결국 노동자들의 계급의식을 자극해 혁명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⁸⁴⁾

이 시기에 핀란드 노동계급은 더욱 조직화 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여러 파업의 실패 원인은 파업 자금과 노조 조직 부족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된 콜론타이는 연대의 표시로 기사글 판매금을 핀란드 노조 조직 지원에 기부했다. 이것이 콜론타이가 핀란드 노조 조직의 어머니로 불리는 이유라는 것이 일반적인 통념이다.⁸⁵⁾

또 다른 중요한 저작은 1906년에서 1908년경 출판된 논문 모음집 『핀란드와 사회주의』(Finland and Socialism)이다. 이 책에서 콜론타이는 제정러시아에 대항하는 핀란드의 무장봉기 권리를 옹호했고, 이로 인해 체포령이

82) https://kristenghodsee.scholars.harvard.edu/file_url/700, 2025. 5. 28.

83) Жизнь финляндскихъ рабочихъ. Экономическое ... - Földvári Books, 2025. 5. 28.

84) “BOLSHEVIK FEMINIST: The Life of Aleksandra Kollontai” | Open Indiana | Indiana University Press, 2025. 5. 28.

85) Elina Katainen, 'Arbeid, fred, fri kjærlighet: Kollontaj sett med finske øyne', in *Revolusjon, Kjærlighet, 외교관: Aleksandra Kollontaj og Norden*, ed. Yngvild Sørbye 저(오슬로: Unipub, 2018), p. 218, 재인용.

내려져 망명길에 오르게 되었다. 이는 그녀가 핀란드 문제에 대해 얼마나 급진적이고 단호한 입장을 취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개인적인 위험까지 감수했음을 잘 알 수 있다.⁸⁶⁾ 그녀는 핀란드의 독립이 정당한 자결권의 표현이며, 사회주의 혁명은 제국 내 피억압 민족들의 해방 없이는 완성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⁸⁷⁾

이러한 입장은 콜론타이 사상의 핵심 요소를 보여주었다. 콜론타이는 프롤레타리아 해방을 단순히 경제 구조의 변화나 성별 간의 평등 실현에만 국한해 바라보지 않았다. 그녀는 민족 억압과 식민주의적 지배 구조 역시 노동해방을 가로막는 중요한 장애물로 인식했다. 특히 핀란드처럼 제국의 변방에서 벌어지는 민족 해방운동은, 러시아 본토에서 전개되는 계급투쟁과 긴밀히 연결되어야 하며, 혁명 세력은 이 같은 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콜론타이는 이후에도 핀란드 민족 독립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였으며, 1908년 그녀가 독일로 망명한 결정적 계기 중 하나도 핀란드 문제에 대한 정치 활동과 그로 인한 체제의 탄압이었다. 이로써 그녀는 러시아 제국의 민족 정책을 비판하는 몇 안 되는 사회주의 지식인으로 자리매김했다. 그녀의 이러한 입장은 훗날 볼셰비키당이 공식적으로 채택한 ‘민족자결권’ 원칙의 이론적 배경 중 하나로 기능하게 되었다.⁸⁸⁾ 레닌은 민족자결권을 피억압 민족이 분리와 독립을 선택할 수 있는 실질적 권리로 규정하였으며, 이러한 원칙에 따라 혁명 직후 부르주아 정부가 수립된 핀란드의 독립을 승인하였다.⁸⁹⁾

86) Natalia Novikova and Kristen Ghodsee, 앞의 논문, p. 61.

87) 한정숙, 「알렉산드라 콜론타이: 여성해방과 평화를 위해 바친 사회주의자의 삶」, 『역사와 문화』 16, 2008, p. 205.

88) Terry Martin, *The Affirmative Action Empire: Nations and Nationalism in the Soviet Union, 1923 - 1939*, Cornell University Press, 2001, pp. 34 - 38.

89) 민족자결권을 ‘분리의 자유’와 결부시킨 레닌의 입장은, 그로부터 민족문제에 대한 이론 작업을 위임받아 「마르크스주의와 민족문제」를 저술했던 스탈린의

또한, 콜론타이는 여성문제를 계급 문제와 분리할 수 없다고 보았다. 그녀는 부르주아 페미니스트들이 추구하는 ‘권리’와 프롤레타리아 여성이 필요로 하는 ‘보호’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주장했다.⁹⁰⁾ 또한 부르주아 여성과 프롤레타리아 여성의 이해관계가 다르며, 노동자 여성은 자신의 계급과 함께 싸울 때만 진정한 해방을 이룰 수 있다고 믿었다. 궁극적으로 여성해방은 자본주의 체제가 전복되고 “새로운 사회 질서와 다른 경제 체제”가 승리한 결과로만 가능하다고 주장했다.⁹¹⁾

콜론타이는 러시아에서 여성 조직화에 깊이 헌신했고, 동시에 핀란드의 민족문제에도 적극적으로 관여했다. 하지만 그녀가 핀란드에서 쓴 초기 저작이나 활동을 살펴보면, 핀란드 여성의 별도 조직화나 현지 여성문제에 대한 독자적인 접근은 러시아에서 활동만큼 뚜렷하게 드러나지는 않는다. 이는 그녀가 당시 핀란드의 현실을 주로 민족 해방과 계급 해방이라는 보다 큰 구조적 틀 속에서 바라보았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⁹²⁾

결과적으로 콜론타이의 민족 해방론은 그녀의 여성 해방론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억압 구조만이 아니라 복수의 억압이 교차하는 현실에 대한 인식에서 출발한 것이었다. 그녀는 계급, 성, 민족이 서로 겹쳐 작동하는 억압 구조 속에서만 사회주의 해방이 완전하게 실현될 수 있다고 보았고, 핀란드 민족의 독립을 지지한 것은 그런 인식을 바탕으로 한 실천의 출발점이었다. 콜론타이는 핀란드 민족문제를 제국 내 피억압 민족의 자결권 문제로 이해했고, 이를 사회주의 혁명의 일부로서 적극적으로 지지했다.

견해와도 달랐다. 스탈린은 분리권을 언급하지 않는 대신 민족자결권을 연방제에 기초하여 규정했다. 민경현, 「레닌의 민족자결주의-10월 혁명 이전 시기를 중심으로」, 『사총』45, 고려대학교 역사연구소, 2001, p. 138.

90) Natalia Novikova and Kristen Ghodsee, 앞의 논문, p. 66.

91) Natalia Novikova and Kristen Ghodsee, 앞의 논문, pp. 66-67.

92) “BOLSHEVIK FEMINIST: The Life of Aleksandra Kollontai” | Open Indiana, 2025. 5. 28.

2) 제노텔(Женотдел, Zhenotdel)을 통한 ‘후즘(Hujum)’ 운동

1917년 러시아혁명 이후 소비에트 정부는 여성의 정치적, 경제적 권리 보장을 위한 다양한 제도 개혁을 추진하였다. 이 가운데 알렉산드라 콜론타이가 주도한 여성부(제노텔, Zhenotdel)의 설립은 볼셰비키 정권 내에서 여성해방을 체계적으로 제도화하려 한 중요한 실천적 시도였다. 제노텔은 단순한 행정 기구나 여성 조직을 위한 전달 수단을 넘어서, 여성의 삶을 구성하는 일상생활 전반(가사 노동, 모성, 정치 참여)을 사회주의 체제 아래에서 재구성하려는 공간이었다. 콜론타이는 이를 통해 혁명 이후에도 여전히 사적 영역에 억압된 여성들이 자신의 삶을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주체로서 재구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

특히 중앙아시아에서 진행된 ‘후즘(Худжум)’ 운동은 콜론타이의 성 해방 이론이 주변부 여성해방 정책으로 적용된 대표적 사례로 평가되지만, 1926년 본격화된 이 운동 당시 콜론타이는 여성부직을 상실하고 소비에트 외교관으로 활동 중이었기 때문에 그 실행 과정에 직접 참여하지는 못했다.

1919년 9월, 볼셰비키 중앙위원회는 ‘여성 노동자 선동·선전 위원회(the Central Commission for Agitation and Propaganda Among Working Women)’를 중앙위원회 서기국 산하의 여성부(Женотдел)로 개편하고, 이를 소비에트 체제 내 여성 사업 전담 기구로 공식화하였다. 중앙에는 약 40명의 간부가, 지방에는 8명의 전임 활동가가 배치되었으며, 이들은 당의 여성 정책을 대중에게 전달하고 여성 노동자와 농민을 공적 영역으로 조직화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⁹³⁾

93) 김은실, 「‘여성해방’에 대한 콜론타이와 레닌의 정치적 갈등」, 『정치사상연구』 제14집 1호, 2008, p. 66.

비록 레닌은 당내에서 콜론타이를 능가할 여성문제 전문가가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지만, 여성부 초대 의장직에는 이네사 아르만드(Ине́сса А́рманд)를 임명하였다. 이는 콜론타이가 조약반대파(1918년 브레스트-리토프스크 조약)의 입장에서 레닌과 갈등 이후 당 내부에서 일정한 경계의 대상이 되었던 정치적 배경과 당시에 여성 대중의 지지 확보와 적군 지원을 위한 여성 동원이 절실했던 상황에서 콜론타이가 해당 직책을 수락하지 않을 가능성 또한 고려한 결정이었다.⁹⁴⁾

여성부는 여성의 삶의 경험 영역을 확장하고, 모성보호와 아동노동에 대한 제도적 대응에 주력하였다. 콜론타이는 여성 노동력을 사회주의적 생산 체계에 적극 동원하는 동시에, 여성 노동자가 지닌 어머니로서의 권리는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입장에 따라 여성부는 여성의 가사 노동 부담을 줄이기 위해 탁아소, 공동 주거시설, 공동 취사장 및 식당 등의 사회적 기반 시설을 설치·운영하였다.⁹⁵⁾

내전기 볼셰비키당과 레닌은 백군과의 전쟁 수행 및 신생 소비에트 체제 유지를 위해, 여성부의 주요 임무 중 하나로 여성의 노력 동원을 규정하였다. 특히 의료, 통신 등 후방 지원 영역에서 여성 노동력의 조직화는 중요한 전략적 과제로 인식되었다.⁹⁶⁾

이 외에도 레닌이 강조한 여성부(제노텔)의 핵심 과제 중 하나는 여성의 문맹 퇴치와 정치교육이었다. 문맹 퇴치는 여성 대중과 소비에트 정부 간의 직접적인 관계를 형성하는데 있어 필수적인 조건으로 간주되었으며, 단

94) 비어트리스. 판스워드, 신민우 역, 『알렉산드라 콜론타이』, 풀빛, 1986, p. 250.

95) 한정숙, 「알렉산드라 콜론타이: 여성해방과 평화를 위해 바친 사회주의자의 삶」, 『역사와 문화』16, 2008, p. 218.

96) 적군 내 정치부서에서의 조력이 여성부가 담당해야 하는 주요 업무였다. 제노텔은 적군병사의 가족 및 고아에 대한 보살핌, 의료지원, 적군의 정치기구 지원, 통신지원, 토요일작업대, 일요일작업대, 탈주 및 전염병 예방 캠페인 등의 구체적인 내전 지원사업을 수행하였다. 김은실, 앞의 논문, pp. 66-67.

순히 읽고 쓰는 능력 함양에 그치지 않고 정치, 문화, 일반교육 전반을 확산시키는 수단으로 기능하였다.⁹⁷⁾

낙후된 농촌과 도시의 여성 대중은 제노텔의 선진적이고도 계몽적인 활동에 호의적으로 반응한 것은 아니었다. 다시 말해, 제노텔을 구성하던 일련의 ‘세련된 숙녀들’이 어떻게 계급의 경계를 넘어 민중 여성들과 실질적 접촉을 시도했는가 하는 문제는, 이 조직이 당면한 가장 현실적이고 구조적인 과제 중 하나였다. 그들이 접촉하고자 했던 여성들은 자신들과 전혀 다른 삶의 조건 속에 있었고, 따라서 종종 본능적인 의심과 거리감을 드러냈다. 한 제노텔 지도자는 내전기 방문했던 공장에서 경험을 회고하며, 여성 노동자들이 “빵을 달라!”, “불세비키를 타도하자!”라고 외쳤던 장면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다. 당시 한 여성 노동자는 그녀에게 이렇게 신랄하게 말하였다.

“당신은 노동자가 아니요, 당신이 노동자의 외투를 걸치고 있다고 해서 우리들이 속아 넘어가지는 않을 것이요. 정말로 당신은 우아한 부인일 뿐이요. 당신이 공장에서 14시간 동안 일을 해본 적이 있었소? 기계 밑의 작업장 마루에서 아이를 낳아 본 적이 있었느냐 말이오?”⁹⁸⁾

한편, 농촌 지역에서의 여성부 활동은 순조롭지 못했다. 특히 외곽 벽촌으로 갈수록 사업의 진전은 거의 없었으며, 여성 대중의 참여 또한 매우 제한적이었다. 실제로 1919년 기준, 160개의 읍 소비에트 중 여성의 참여가 이루어진 곳은 단 3곳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아르만드는 여성부 활동가들

97) 이들은 여성 노동자 5명당 1인, 농민 여성 25명당 1인의 대표자로 선출되어 2~3개월씩 활동하였다. 당의 안내에 따라 국가, 당 노동조합, 협동단체에서 위탁교육을 받게 된다. 주로 식당, 병원, 조산원, 어린이집, 학교 등의 공공 기관에 참여하였고, 또는 인민 법정이나 재판을 돕기도 하였다. 점차적으로 훈련생의 수가 늘어나 1923년에는 오만 팔천 명에 달했다. 김은실, 앞의 논문, p. 67.

98) 비어트리스. 판스워드, 신민우 역, 앞의 책, pp. 255-256.

이 토요일마다 농촌에 들어가 여성들에게 선동·선전 활동을 수행하고, 농촌 여성들을 대표모임에 참가시키는 방식으로 접근을 시도하였다.⁹⁹⁾

반면에 1920년대 초, 중앙아시아 각 지역의 공산당 조직은 여성 정책을 담당하는 여성부를 구성하기 시작했으나, 초기에는 토착민 사회에 거의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다. 이후 소련 중앙의 주도로 여성 해방운동이 본격화 되면서, 여성부는 중앙아시아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지원을 통해 조직적 위상을 강화해 나갔다. 이 시기 여성부의 가장 두드러진 성과는 여성 전용 사회클럽의 설립으로, 1924년 타슈켄트를 시작으로 농촌 지역 전역으로 확산 되었다. 이 클럽은 의료, 교육, 법률, 문화 활동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존의 전통적 가족 구조 바깥에서 여성들이 보호받고 사회적으로 결속할 수 있는 새로운 공간을 형성하였다.¹⁰⁰⁾

또한, 소비에트 정부의 중앙아시아¹⁰¹⁾ 정책은 전통적 이슬람 공동체 문화를 해체하고 사회주의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 과정에

99) 그러나 활동가들 스스로도 여성부가 농촌에서 체계적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지지 않았음을 인정해야 했다. 이러한 제약 속에서 여성부는 중앙 조직의 확대를 요청하였고, 1920년 4월 30일 당의 승인에 따라 중앙 여성부 산하에 조직·교육국 및 선동선전국이 새로 설치되어 조직 강화를 추진하게 되었다. 이후 여성부는 보건 인민위원회 산하 ‘모성 및 유아부’(OMM)를 비롯해 교육·노동·사회복지·내무 인민위원회, 콤포소물 등과 협력 관계를 구축하며, 낙태, 모성, 매춘, 아동 보호, 노동 동원, 여성 해고, 노동 규제, 기아 구호 등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한 대응을 시도하였다. 기계형, 「일상생활과 젠더정치 - 소비에트시대 초기의 여성부(Женотдел), 1919-1923」, 『여성과 역사』 제8집, 2008, pp. 153-154.

100) 김상철, 「중앙아시아 사회의 여성지위와 역할변화 - 제정러시아 및 소비에트시기를 중심으로-」, 『中東研究』제33권 3호, 2015, pp. 95-96.

101) 여기서 ‘중앙아시아’는 ‘소비에트 중동(Soviet Middle East)이라 일컬어지는 곳으로 한정되는데, 여기에는 소비에트 연합의 붕괴 이후 현재 독립국가 연합(CIS)에 속한 다섯 나라, 즉 우즈베키스탄(Uzbekistan), 카자흐스탄(Kazakhstan), 키르기스스탄(Kyrgyzstan), 타지키스탄(Tajikistan), 투르크메니스탄(Turkmenistan) 등의 5개 공화국이 포함된다. 이현숙, 「소비에트 초기 중앙아시아 여성 정책과 정체성」, 『아시아여성연구』제52권 1호, 2013, p. 164, 재인용.

서 중앙아시아 여성의 해방은 무슬림 고유문화와 사회주의 이념의 충돌을 야기했으며, 당국은 여성을 전통 질서를 전복시킬 수 있는 계급적 주체로 간주하고, 이들을 혁명적 변화의 잠재적 전사로 인식하였다.¹⁰²⁾

중앙아시아 여성들은 사회주의 혁명 이전부터 러시아 제국의 지배하에 이슬람 문화의 규범에 따랐으며, 일부다처제, 조혼, 칼림(신부 가격), 베일(parandja) 착용(파란자, 차치본, 야슈마크), 여성 격리 등은 전통적인 가부장적 질서의 대표적 관습이었다. 소비에트 정부는 이를 여성 억압의 상징이자 후진적 문화로 간주하고, ‘억압받는 무슬림 여성’의 이미지를 ‘세속적이고 진보적인 소비에트 여성’으로 대체하려는 사회적 재구성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구상은 곧 무슬림 여성의 ‘소비에트화(sovietization)’라는 이름 아래 전통에서 혁명적 미래로의 이행을 의미하였다.¹⁰³⁾

또한, 이슬람의 법률인 샤리아(shariat)와 관습법인 아다(adat)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있었다. 이슬람의 법률과 관습은 중앙아시아 무슬림의 사고방식과 생활양식에 깊이 뿌리내려 있었으며, 이는 러시아 제국의 식민지 동화 정책에 있어 주요한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소비에트 정부는 이슬람법의 개혁을 중앙아시아 여성해방의 선결 조건으로 보았으며, 무슬림 여성의 ‘가정 내 노예화’(домашнее рабство)는 민족의 창조적 잠재력을 억제하고 산업·농업·문화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간주되었다.¹⁰⁴⁾

102) 김상철, 「포스트소비에트 중앙아시아 사회의 여성지위와 인식변화에 대한 연구」, 『중소연구』제38권 제4호, 2015, p. 280.

103) 이현숙, 앞의 논문, pp. 164-165.

104) 가부장제를 특징으로 하는 무슬림 사회에서 법적인 젠더의 차이는 명확했다. 샤리아법은 여자의 어린 시절을 아홉 살까지로 한정했다. 아홉 살 때 소녀는 성인으로 간주되어 결혼할 수 있었다. ... 아다에 따른 결혼은 일반적으로 여자를 사고파는 행위와 같았는데 매매행위의 주체는 신부의 아버지와 신랑이었다. 아홉 살에서 열 살까지의 소녀는 일정한 칼림을 받고 시집을 가는데 신랑은 보통 이미 여러 명의 아내가 있는 노인이었다. 샤리아에 따라 남자는 집에서 무제한의 권력을 갖고 있었다. 남자는 여자를 죽여도 벌을 받지 않았으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아내를 취할 수 있었다. 아다에 따르면 ‘목동이 자신의 양을 마음대로 죽일 수 있는 것처럼 남자는 자기 아내의 생명을

소련의 대(對)중앙아시아 여성 정책은 1917년 혁명 이후부터 1926년 후쭈(Hujum, “공격”) 운동 이전까지 본격적으로 형성되어 실천되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 소련은 중앙아시아 지역에 대해 비교적 유연한 태도를 취하며 일부 전통 제도를 법적으로 용인하는 한편, 여성의 평등과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기반 마련, 여성 대상 교육 확대, 해방 실현을 위한 사회적 여건 조성에 주력하였다. 그러나 중앙아시아 정착 지대에서 소비에트 법이 실질적 효력을 갖는데 가장 큰 장애는 여성들의 태도였다. 이들은 공적 영역에서는 해방 담론을 수용하면서도, 사적 영역에서는 이슬람 전통과 종교적 관습을 유지하려는 이중적 태도를 보였다.

중앙아시아 여성 해방운동은 소련 공산당에 의해 세 가지 배경에 기반하여 추진되었는데, 첫째는 전통사회의 여성 억압에 관한 제국 중심적 시각, 둘째는 계급투쟁과 반종교 투쟁을 선도할 신프롤레타리아트의 창출이라는 정치적 목적, 셋째는 여성의 사회적 생산 참여를 확대하려는 경제적 필요였다.¹⁰⁵⁾

소비에트 대(對)무슬림 여성 정책의 실질적인 목표는 공적인 영역에서의 여성 노동력 확보였다.¹⁰⁶⁾ 혁명 이전 중앙아시아 정착 지대의 여성들은 가

마음대로 할 수 있었다.’ 남편이 죽어도 여자는 자신의 운명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데, 죽은 남자의 아내는 그의 재산으로 간주되어 고인의 형제에게 상속되었기 때문이다. 법적인 권리의 측면에서도 여성은 완전 무방비 상태였다. 법정에서 여성의 증언은 효력이 없었다. 단지 특별한 경우 법정에서 두 명의 여성의 증인 진술만이 남성 한 명의 증언으로 간주되었다. 여성 살해에 대한 벌금은 남성 살해에 대한 벌금의 절반에 불과했고, 아내의 부정에 대한 살인은 정당한 복수로 간주되었다. 이렇게 코란, 샤리아, 아다에 따라 중앙아시아 여성은 경제적 정치적 관습적 권리를 갖지 못하고 있었다. 이현숙, 앞의 논문, pp. 169-170.

105) 김상철, 앞의 논문, pp. 280-281.

106) 개별 가정의 경제력을 박탈하고 산업의 국유화와 농업의 집단화를 추진하였다. 또한 경제적 독립이 사회에서 여성 평등의 주요 조건이라는 사실에 의거하여 소비에트 권력은 1918년 “여성과 남성에 있어 동일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 지급에 관하여”의 법령을 도입했다. 여성을 노동력 속으로 병합시키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여성 협동조합의 건립이었다. 여성은 직물을 짜거나 동

사와 가내수공업에 종사했으며, 생산물의 유통조차 남성에 의해 제한되었고, 농업지대에서도 수자원에 대한 권리는 결혼한 남성에게만 부여되었다. 이에 소비에트 당국은 여성의 사회적 생산 참여를 사회주의 국가 건설의 핵심으로 간주하고, 여성의 활동 영역을 사적 공간에서 공적 공간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였다.¹⁰⁷⁾ 그러나 여성 노동의 사회화는 이중 부담 문제를 야기했고, 중앙아시아에서는 특히 소비에트 여성이라는 새로운 정체성과 무슬림 여성이라는 기존 정체성 간의 충돌이 심화되었다.¹⁰⁸⁾

1926년 이후 중앙아시아에서 소비에트화에 대한 무슬림 지도자들의 저항이 지속되자, 이슬람 사원과 교리학교가 폐쇄되었고, 전통 관습에 대한 공격도 강화되었다. 1927년 시작된 ‘후쭈(Худжум)’ 운동은 ‘베일 벗기(unveiling)’를 중심으로 무슬림 여성의 전통적 복장과 관습에 대한 상징적 해체를 시도한 소비에트의 여성해방 캠페인이었다. 베일은 이슬람 문화의 핵심 표상으로 간주되었으며, 이를 제거하는 것은 소비에트 가치의 성공적 정착을 의미했다. 후쭈는 베일뿐 아니라 일부다처제, 조혼, 칼림, 여성 격리 등 광범위한 이슬람 전통의 폐지를 목표로 한 전면적 반(反)이슬람적 사회 개혁 운동이었다.¹⁰⁹⁾

1927년 봄, 공산당 당국은 ‘세계 여성의 날’(3월 8일)을 계기로 ‘베일 벗기’ 캠페인, 즉 후쭈 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하였다. 당원들과 여성 친척들

물을 기르는 등의 전통적인 과업을 지속할 수 있지만, 단 생산된 물품들은 정해진 상점을 통해서만 판매할 수 있었다. 그래서 경제적 이익이 모이는 것을 보장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이와 함께 ‘공적인’(official)농업, 특히 목화 재배와 추수 작업을 위한 노동력으로 여성을 끌어들이기 위한 노력도 행해졌다. 1926년 ‘소비에트 동부에서 여성 클럽의 업무와 관련된’ 중앙위원회의 결의에서 여성이 노동력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지역에 클럽을 건립하도록 지방의 당 조직에게 촉구했다. 이현숙, 앞의 논문, pp. 177-178.

107) 김상철, 「중앙아시아 사회의 여성지위와 역할변화 - 제정러시아 및 소비에트시기를 중심으로-」, 『中東研究』제33권 3호, 2015, p. 91.

108) 이현숙, 앞의 논문, pp. 179-180.

109) 이현숙, 앞의 논문, pp. 180-181.

이 광장에 모여 베일을 불태우는 의례가 진행되었으며, 첫 두 달 동안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약 9,000명의 여성이 베일을 태웠다. 강제성 여부는 분명하지 않지만, 이는 공식적으로 여성해방의 상징적 성과로 선전되었고, 소비에트 이론가들은 이를 통해 젠더 평등과 계급투쟁의 승리를 주장하였다.

여성부는 학교와 직장 등 여러 기관에서 베일 착용을 금지했으며, 일부 기관에서는 베일을 벗는 것이 여성 고용의 전제조건이 되었다. 베일을 착용한 여성은 노동 참여에 있어 활동 범위와 기회에 제약을 받았다. 후쭈름 여성 노동력을 경제에 통합하려는 소비에트 정책의 일환으로, 주로 도시화와 경제 발전이 두드러진 우즈베키스탄과 페르가나 지역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이 지역에 집중된 캠페인은 후쭈름의 경제적 목적성을 잘 보여주었다.¹¹⁰⁾ 이에 대해, 연구자 마셀(Gregory Massell)은 소비에트 관리들이 프롤레타리아 계급이 부족한 중앙아시아에서 무슬림 여성을 “프롤레타리아의 대용자(Surrogate proletariat)” 세력으로 간주했다고 분석했다.¹¹¹⁾

“중앙아시아 여성을 잠재적 혁명 계층으로 전환시키는 주요 동인의 하나는 소비에트 정부가 무슬림 전통사회에서 관습적인 ‘계급투쟁’의 범주를 적용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인식했다는 것이다. 중앙아시아 사회에서 혜택받지 못하고, 착취당하고, 가난한 운명을 지닌 이들은 계급으로서의 자신을 인식하지 못했고 따라서 그러한 인식에 따라 행동할 수 없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¹¹²⁾

실제로 해방된 여성들은 소비에트 체제를 지지할 예비 세력으로 기대되

110) 예를 들어 베일을 착용한 여성은 공장에서 특정 종류의 기계와 엔진을 작동시키지 못했다. 남자의 경우 아내가 베일을 벗는 것이 고용의 조건이 되기도 했다. 그러므로 공적인 생활, 즉 교육을 받거나 일을 하려는 여성은 캠페인에 호응할 수밖에 없었다. 이현숙, 앞의 논문, p. 182.

111) 기계형, 「중앙아시아의 민족, 젠더, 그리고 베일: 1920년대 우즈베키스탄의 후쭈름(Hujum)운동을 중심으로」, 『역사와 경제』79, 2011, p. 348.

112) 이현숙, 앞의 논문, p. 165.

었으며, 이들을 동원하기 위한 전략으로 후즘 운동이 전개되었다.¹¹³⁾

소비에트 활동가들이 베일 벗기를 여성해방의 상징으로 제시했으나, 중앙아시아에서는 이에 대한 반응이 복합적이었다. 소비에트 정부는 베일을 억압과 무지의 상징으로 간주했지만, 중앙아시아 사회에서 베일은 젠더 질서, 공적·사적인 공간의 구분, 문명적 관습을 내포한 중요한 사회문화적 표상이었다. 중앙아시아 여성에게 베일은 ‘이방인과의 원치 않는 접촉과 불결한 물리적 환경에 대한 방어’로 간주되었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상징적 장치였으며, 후즘에 대한 반발은 소비에트 정책 중 가장 격렬한 저항을 초래하였다. 중앙아시아인들은 후즘을 문화적 침해, 심지어 ‘유린’으로 인식했고, 베일을 벗은 여성들은 ‘후즘 여성’(khudjum women)으로 낙인찍혀 공동체에서 배척당하거나 친족에 의해 살해당하는 경우도 있었다. 일부 여성은 소비에트 기관에 보호를 요청했으며, 상당수 무슬림 남성들은 이에 반발해 공산당을 이탈하기도 했다.¹¹⁴⁾

후즘 운동에 대한 우즈베키스탄 사회의 반응은 단선적이지 않았으며, 토착 사회에서 나타난 광범위한 저항은 이슬람 문화와 관습이 우즈베키스탄 정체성의 핵심 구성 요소였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여성의 베일은 공산당이나 여성부 지도부가 규정한 “후진성”의 표상이기보다는, 소비에트 체제의 일방적 문화 이식에 대한 상징적 “저항의 수단”으로 기능했다.

특히 1927년 후즘에 대한 반발은 이전부터 지속 되어온 이슬람 탄압 정책에 대한 누적된 불만과도 맞닿아 있었다. 요컨대, 정리하면 첫째, 후즘에 대한 반응은 단순한 여성해방 정책에 대한 거부가 아니라 이슬람에 대한

113) 기계형, 앞의 논문, p. 348.

114) 베일을 벗은 한 소녀가 가족에 의해 손, 귀, 혀를 잘린 채 구덩이에 버려졌다는 섬뜩한 이야기가 전해졌다. 이후 붉은 군대 병사가 그녀를 구해주었다는 것이다. 이현숙, 앞의 논문, p. 183.

문화적 공격으로 인식되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하며, 둘째, 이 같은 반응은 소비에트 법률¹¹⁵⁾의 일방적 시행이라는 정치적 맥락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다.¹¹⁶⁾

소비에트러시아의 중앙아시아 정책에 대한 무슬림 여성들의 이중적 태도는 해당 지역을 전통적 이슬람 문화와 현대적 소비에트 문화가 병존하는 이질적 공간으로 형성시켰다. 이에 따라 중앙아시아 여성들은 무슬림 전통과 사회주의 실험이라는 상반된 경험을 내면화하며 고유한 정체성을 구성하게 되었다. 소비에트 연방 해체 이후, 중앙아시아는 소비에트화의 외형을 걷어내고 강한 이슬람 공동체적 성격을 드러냈으며, 소비에트 시기에 제시되었던 여성해방과 사회 참여의 이상이 남아 있는 가운데, 이전까지 사적 영역에 머물던 무슬림 전통이 공적 영역으로 재부상하게 되었다.¹¹⁷⁾

2. 김알렉산드라의 약소민족을 위한 해방 활동

1) 러시아 노동운동 참여와 우랄노동자동맹 실천

김알렉산드라는 1905년 겨울부터 1907년까지 약 2년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전개된 노동운동에 참여하였다. 당시 블라디보스토크는 산업기지로써 많은 노동자들이 차르 체제에 저항하며 동맹파업 등 자유화·민주화 운동

115) 이 법령들은 개인과 가족 일상생활의 새로운 패턴을 만들기 위한 새로운 법적 표준을 만들어냈고, 특히 1924년과 1926년 사이에 가장 영향력이 활발했다. 예컨대, 혼인법이 개정되었다. 일부다처제와 신부값 지불 관행이 금지되었고, 강제 결혼의 금지 조항을 위반하면 5년 감옥행에 처해졌다. 그 외에 조혼의 금지(결혼연령을 9살에서 16살로 상향)가 정해졌고, 아울러 여성 학대와 격리, 그리고 강압적 베일 착용으로부터 여성 안전의 보장이 조항에 들어갔다. 기계형, 앞의 논문, p. 359.

116) 기계형, 앞의 논문, p. 358.

117) 이현숙, 앞의 논문, p. 185.

을 벌이고 있었고, 김알렉산드라는 러시아 지하 운동가들과 연대하여 이 투쟁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¹¹⁸⁾

민주화 운동 참여로 차르 체제의 탄압을 받게 된 김알렉산드라는 러시아인 동지들과 함께 중국 길림성 동령현의 산차거우 남가우령 조선인촌으로 피신하였다. 이 지역은 과거 그녀가 동청철도 건설 현장에서 도왔던 한인들이 집단 거주하고 있었으며, 철도 연선 지역이라는 특성상 아버지 김두서와 인연이 있던 중국인들도 다수 거주하고 있어 그녀가 비교적 안전하게 몸을 숨길 수 있는 장소였다. 김알렉산드라의 러시아 민주화 운동 참여는 동청철도 건설 현장에서 체감한 피압박민족에 대한 차르 체제의 탄압과 착취에 저항하려는 사회적 각성이자, 동시에 조선 민족 해방운동으로의 이행을 예고하는 출발점이었다. 특히 한일병탄 이후 연해주로 이주한 조선인 계몽운동가들의 영향으로, 극동 러시아에 거주하던 조선인 노동자·농민들 역시 식민지 지배에 맞선 무장투쟁에 적극 가담하기 시작하였다.¹¹⁹⁾

김알렉산드라가 1906~1907년경 중국 길림성 남가우령 조선인촌에 피신해 있다가 러·중 국경을 이루는 우사거우강을 건너다니며 블라디보스토크의 러시아인 혁명가들과 접촉을 가지던 시기가 바로 이때에 해당된다. (“후술할 채마리아의 증언에서도 드러나듯 알렉산드라는 러일전쟁 후 만주 침략의 기세를 높이던 일본의 영향권 하에 놓인 만주 일대의 조선인촌에 피신한 까닭에 조선인들의 빨찌산 활동을 직접 목격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그녀의 활동 범위가 항일과 러시아 민주화라는 두 가지 방향을 모두 함축하고 있었음을 반증한다.”) 당시 고종에 의해 간도관리사로 임명된 한인 정치지도자 이범윤이 친러 외교 노선에 따라 러일전쟁 시 차르 러시아를 지원하며 무장 항일운동을 전개한 것과 달리, 김알렉산드라는 일찍이 러시아 제국과 일본 제국 모두를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이를 거부하는 국제주의적 시각을 지닌 활동가로 주

118) 정철훈, 『김알렉산드라 평전』, 필담, 1996, p. 109.

119) 정철훈, 앞의 책, pp. 109-110.

목된다.¹²⁰⁾ 김알렉산드라가 러시아의 노동운동과 자유화 운동에 눈을 뜨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1905년 발생한 제1차 러시아혁명이었다. 산업혁명의 여파로 도시에서는 신흥 무산계급이 형성되고, 농촌에서는 ‘토지에 대한 굶주림’을 겪는 농민층이 반체제 세력으로 등장하였다. 이러한 사회적 격변 속에서 계급투쟁과 노동자의 혁명적 사명을 강조한 마르크스주의가 급속히 확산되었으며, 열악한 노동 조건에 대한 불만은 노동자 계층을 빠르게 사회주의 지지층으로 전환시켰다. 1903년에는 쟁스트보 의원들과 전문 직업인들이 연대하여 자유화동맹을 결성함으로써, 제도 개혁을 지향하는 정치 세력도 등장하였다.¹²¹⁾

김알렉산드라는 1905년 이후 차르 체제에 맞선 지하운동에 가담하면서, 제국주의와 전제주의를 일관되게 거부하고 사회주의적 민주정권 수립을 지향하는 국제주의자로서의 사상적 정체성을 확립해 나갔다. 특히 중국 남가우령을 거점으로 러시아 지하 혁명가들과 함께한 약 10년간의 실천적 경험은, 그녀가 한인 부르주아 민족주의 계열의 항일운동 노선을 비판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만큼 사상적·실천적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¹²²⁾

한편,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노동운동에 열중하던 김알렉산드라는 1914년 우랄산맥의 빠르미 지방으로 옮겨가 통역 일에 종사했다. 김알렉산드라가 우랄 지방으로 옮겨가게 된 배경에 대하여 계봉우는 ‘김알렉산드라 전기’ 중 ‘6. 사회사상의 표현’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거금(距今) 6년(1914) 전에 아국(俄國) ‘벨림이’(빠레미, 시베리아 철도 선상 모스크바와 스페르들롭스키 중간 지점) 대공장에서 노동자 증모(增募)하는 일이 유(有) 하였다. 그리하여 우리 노동 동포도 수천인 이상이 들어갔다.

120) 정철훈, 앞의 책, pp. 111-112.

121) 정철훈, 앞의 책, pp. 113-114.

122) 정철훈, 앞의 책, p. 121.

그 동포 중에는 이동휘, 김립, 이종호, 장기영, 김하석, 어영선 제씨(諸氏)가 설립하였던 중령(中領) 나자구(羅子溝)의 사관학교가 1년 동안에 여러 가지 유지 상 곤란으로 인(因)하여 폐지 선언이 되매 그 학생 중의 40여 인이 노은(勞銀-임금)을 득(得) 하여서라도 다시 계학(繼學)하려는 대결심으로 그 공장에 갔었다.

이때 알렉산드라 여사도 ‘벨림이’ 공장 부근에 내주(來住)하게 되셨다. 이것은 구주(歐州) 전란이 기(起)하자 아국 정계의 인물들은 본래부터 공포하여 오던 혁명당이 승기거사(勝機學事) 할까 하는 우려가 더욱 없지 아니하여 해삼위(블라디보스토크) 지방에 잠복한 남녀 혁명당원을 모조리 요새 밖으로 송출하였다. 그래서 알렉산드라 여사도 혁명당의 1분자로 멀리 우랄산 방면으로 피축(被逐)하게 된 것이다.”

위에 의하면 김알렉산드라는 1914년 제1차 세계대전 발발 후 러시아 당국에 의해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추방당해 우랄 ‘빠레미’ 지방으로 갔다. 그녀가 우랄 지방으로 간 이유는 그곳이 제1차 세계대전을 치르기 위한 무기 와 목재를 공급하는 차르 및 멘세비키들의 군사적 요충지로 알려져 멘세비키들과 볼세비키들 간의 세력 대결이 가장 심한 곳이었기 때문이다.¹²³⁾ 또한 그곳에는 조선인 노동자 수천 명을 비롯하여 중국인 노동자, 러시아 노동자 등 수많은 노동자들이 모여있어 노동운동을 하기에 적합한 장소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우랄 지역의 조선인 노동자, 중국인 노동자 등은 소수민족 출신이었기에 우선 러시아어에 서툴렀다. 연해주에서 조선인 노동자들을 우랄 지방으로 보내던 청부업자들과 러시아 사업자들은, 소수민족 출신 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지와 사회적 약점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였다. 그 결과 우랄 지방의 벌목공장이나 목재공장에서 일하던 수천 명의 조선인 노동자, 중국인 노동자

123) 정철훈, 앞의 책, p. 141.

들은 언어 차별, 임금차별 등 이중의 고통을 당하게 되었다.

그 사례를 계봉우는 ‘김알렉산드라 전기’에서 통사(通辭) 김병학(金炳學)을 들어 설명하였다. 김병학은 조선인 노동자 수천 명을 우랄 지방으로 데리고 그곳 공장에 가서 노동계약을 위조하여 1년 기간을 2년으로 하였다. 또 일하는 시간은 일정한 규율이 없이 주야를 계속하다시피 하게 하였다. 뿐만 아니라 노동임금은 정식 금액의 절반을 넘지 못하였고 게다가 계약기간이 이미 지나도 돌려보내지도 않았다. 이런 일들은 김병학 통사의 흉악한 수단에서 나온 것들이었다고 한다. 그 결과 저쪽 방면의 사기(詐欺)와 이쪽 방면의 원억(冤抑)이 서로 충돌하는 중에 공장 관리자의 차마 보지 못할 학대는 우리 동포에게 시시각각으로 더욱 심하게 되어 조선인 노동자들은 이중의 고통 속에서 신음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참상을 보고 들은 김알렉산드라는 크게 분격하였다고 한다. 이런 일은 인도(人道) 상 큰 위반이라고 하여 불쌍히 여기어 눈물을 금치 못하였다는 것이다. 그래서 김알렉산드라는 자기 목숨을 바쳐서라도 반드시 증제(拯濟)하기로 결심하였다고 한다.

당시 김알렉산드라가 “자기 목숨을 바쳐서라도 반드시 증제(拯濟)하기로 결심했다”는 것은 이중으로 고통받는 소수민족 노동자들의 권익을 되찾겠다는 의미로 이해된다. 당시 조선인 노동자, 중국인 노동자 등 소수민족 노동자들이 이중으로 받은 고통은 언어상 불이익에 더해 통상 임금의 절반 임금, 주야간 노동, 자의적인 계약기간 연장, 비위생적 주거환경 등등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 이런 것들은 1903년 러시아 사회민주노동당 볼셰비키들이 공포한 정강 중 하루 8시간 노동제 시행, 초과근무 전면 금지, 야간노동 금지, 사업장에서의 건강검진 체계화 및 무상 진료, 병가 중 임금 지급 의무, 노동자 법규 위반 시 고용주에 대한 형사 책임 부과 등 <노동자 계급 보호 및 해방을 위한 요구 사항>들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었다. 거

기에 더해 <민주공화국 헌법이 보장해야 할 사항> 중 모든 특권 철폐 및 성별, 종교, 인종, 민족과 관계없는 완전한 평등 보장 등과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었다.

김알렉산드라의 소수민족 노동자 해방을 위한 활동은 러시아의 1917년 2월 혁명으로 차르 체제가 해체되고 케렌스키 임시정부가 수립되면서 더욱 활발해졌다. 직접적인 계기는 나자구(羅子溝) 사관학교 학생 40여 명의 귀환 문제였다. 재정 문제로 폐교된 나자구 사관학교를 유지하기 위해 우랄 지방으로 왔던 40여 명의 사관학교 학생들은 2월 혁명으로 차르 체제가 해체되고 케렌스키 임시정부가 수립되자 귀환 시기가 왔다고 판단하고 1년 만기 고용일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1년 만기일이 되자 사관학교 학생들은 공장 당국에 귀환 문제를 제기하였는데, 공장 당국은 블라디보스토크 청부업자 회사와 공장 간의 계약은 2년으로 했고, 이미 돈 1만 루블까지 지출했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사관학교 학생들은 청부업자들에게 사기를 당했던 것이었다. 사관학교 학생들은 원래 계약은 1년이었다고 주장하며 1년 만기가 되었으니 귀환시켜 줄 것을 요구했지만, 공장 당국에서는 여전히 거절하였다. 이에 격분한 사관학교 학생들과 2백여 노동자들이 파업을 결정하고, 파업 지도부는 다음의 3가지 요구 사항을 공장 당국에 제출하였다.

1. 동방 노동자들의 귀환 여비 및 일체의 수속은 공장 당국에서 담당할 것
2. 기차가 도착하는 곳마다 식료를 원만하게 보장할 것
3. 귀환 도중의 보건 문제를 보장할 것

사관학교 학생들과 노동자들의 파업은 1917년 4월 말에 일어났다.¹²⁴⁾ 공

124) 정철훈, 『김알렉산드라 평전』, 필담, 1996, p. 135.

장 당국에서는 더욱 가혹한 노동을 강요하는 것으로 대응하였다. 파업 노동자들의 상황은 더더욱 악화되었다. 당시 나자구 사관학교 학생들의 처지를 잘 알고 있던 김알렉산드라는 그들의 파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다. 이 사실과 관련해 계봉우는 ‘김알렉산드라 전기’에서 “그는 대한 여자라. 까닭에 우리 노동 동포에게는 더욱 원만한 동정을 준다. 또 우리 노동자 중에도 사관학생단에 대하여는 말할 수 없는 뜨거운 사랑이 깊었다.”고 기록하였다. 당시 김알렉산드라의 활동에 관해 이인섭 회고록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실려 있다.

“그녀는 노동자들을 모아놓고 전쟁이 계속되는 상황, 즉 황제가 없어지고 임시정부가 전쟁을 계속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멘세비키들이 주권을 차지하였기 때문에 우리 노동자들이 차르 때와 마찬가지로 착취를 당하면서 집으로도 돌아가지 못하는 것이라고 차근차근 설명하였다. (중략) 수천 명 노동자들의 시위대열이 광산 총 관리국 앞에 당도하였다. 총 관리국장이 우리의 요구에 의해 대열 앞으로 나타났다. 김알렉산드라는 조선인, 중국인 노동자들에게 자유를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국장은 ‘임시정부의 지시에 의해 전쟁이 끝나기 전까지는 어떤 노동자도 방면해 줄 수 없다.’고 하였다. 그때 김알렉산드라는 ‘노, 농, 병 소비에트 인민위원회에서 어떠한 전보도 받지 못하였는가?’ 하고 다시 질문하였다. 국장은 ‘나는 임시정부의 지시에만 복종하면 되고 소비에트 기관 중앙의 지시는 실행할 수 없다.’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김알렉산드라는 권총을 국장의 가슴에 겨누고서 ‘소비에트의 명령을 거역하는 자는 반혁명자이니 당신을 총살하겠다.’고 하였다. 무장한 노동자들도 ‘전쟁을 중단하라’, ‘모든 주권을 소비에트로’, ‘조, 중 노동자들을 석방시켜라!’ 하는 구호를 외치었다.

국장은 대경실색하며 부들부들 떨었다. 모두 말이 없었다. 이때 국장이 ‘노동자들을 석방해 줄 테니 용서하여 주시오’라고 간신히 대답하였다. 노동자들의 자유는 이렇게 얻어진 것이었다. 각 기업소에 야체이카(세포)를 조직하고 노

동자들을 노동조합에 등록하는 사업과 노동자 총회 등이 볼셰비키들의 지시 하에서 밤낮 시행되었다. 노동자들은 상황을 전부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다수가결시 김알렉산드라가 손을 들면 일제히 손을 들자고 약속하였다. 그런지 3일 후였다. 총노동조합대회가 열리는데 러시아인들은 물론 조선인, 중국인들도 모두 참가하였다.

이 시기에 우랄에서 그녀를 암살하려는 멘셰비키들의 음모가 계속되었다. 윤의학과 채동국 동지의 말에 의하면, 그녀가 노동자 처소에 가서 연설하고 돌아오는 기회를 이용하여 멘셰비키들이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매복 암살을 기도하였다. 이 소식을 먼저 안 러시아인 노동자들은 그녀를 남자 노동자복을 입혀 남자로 변장시키고는 피가 묻은 붕대로 머리와 얼굴을 싸매었다. 그 다음 마차에 그녀를 눕히고 역시 피 묻은 담요로 덮었다. 노동자들은 ‘사람이 나무에 치어서 죽게 되었으니 마을 병원에 급히 간다.’고 해 멘셰비키들을 따돌려 겨우 목숨을 건진 일도 있었다.”¹²⁵⁾

이인섭의 『원동인민위원 소비에트 외교위원 김알렉산드라 빼뜨로부나에 대한 회상기』에 따르면, 김알렉산드라는 우랄에서 조선인과 중국인 노동자들을 조직하는 과정에서 해고된 노동자들의 조언을 받아 볼셰비키 노선을 신뢰하게 되었고,¹²⁶⁾ 그 결과 1917년 2월 스페르들롭스키(예카체린부르크) 볼셰비키당에 입당하였다.¹²⁷⁾ 이후 그녀는 볼셰비키의 지도 아래 우랄 지

125) 정철훈, 앞의 책, pp. 140-141, 재인용.

126) “2월 혁명이 되어도 임시정부 당국들은 조선, 중국인들에게 여전히 민족적 차별 대우를 하였는데, 볼셰비키들은 우리를 동무라 부르고 우리가 자기들의 혁명에 참가하여 도와준다면 그들이 자기네 혁명을 성공하고는 우리 민족해방운동을 자기들이 도와준다고 선전해 우리는 그렇게 해야 조선이 독립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또 그렇게 선전했던 것이다. 김 동지(김알렉산드라)가 우랄에서 조, 중 노동자들을 해방할 시에, 러시아 볼셰비키들 지도하에서 수만의 노력군중이 일심단결하여 성공하였던 것을 목도하였던 해고된 노동자들의 말을 귀담아듣고서, 우리 볼셰비키들을 신앙하였던 것이다.” (이인섭, 『원동인민위원 소비에트 외교위원 김알렉산드라 빼뜨로부나에 대한 회상기』, ‘위대한 사회주의 10월 혁명에 참가한 김알렉산드라’, 1917).

127) 정철훈, 『알렉산드라 페트로브나 김』, 시대의 창, 2021, p. 583.

역 각 기업소에 야체이카(세포조직)를 구성하고, 노동조합을 조직하며 총노동조합대회를 준비하였다. 당시의 상황에 대해 이인섭은 다음과 같이 회고한다.

“각 기업소에 야체이카(세포)를 조직하고 노동자들을 노동조합에 등록하는 사업과 노동자 총회 등이 볼셰비키들의 지시하에서 밤낮 시행되었다. 노동자들은 상황을 전부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다수 가결 시 김알렉산드라가 손을 들면 일제히 손을 들자고 약속하였다. 그런지 3일 후였다. 총노동조합대회가 열리는데 러시아인들은 물론 조선인, 중국인들도 모두 참가하였다.”¹²⁸⁾

이 기록은 김알렉산드라가 입당 이후 우랄 지역에서 노동조합 결성과 총파업을 실질적으로 주도했음을 보여준다. 그녀는 탁월한 연설 능력과 대중적 신뢰를 바탕으로 다민족 노동자들을 조직하였으며, 헌신적인 실천과 과감한 행동력으로 볼셰비키혁명 전략을 지역 노동운동 속에서 구체화해 냈다.¹²⁹⁾

1917년 2월 김알렉산드라가 스베르들롭스키(예카테린부르크) 볼셰비키당에 입당한 후, 볼셰비키의 지도하에 우랄 지역에 조직한 노동조합들이 이른바 ‘우랄노동자동맹’이었다. 이와 관련해 엠.테.김은 다음과 같은 기록을 남겼다.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였다. 관리 상인 부유층 가운데서는 국수주의적인 분위기가 지배하고 있었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 때까지 전쟁을 치르자는 호소가 들끓었다. 하루가 다르게 인민들의 생활은 더욱더 어려워졌다. 전선에서 불구자가 된 병사들이 돌아왔다.

128) 이인섭, 앞의 회상기.

129) 정철훈, 앞의 책, p. 138.

그중에는 얼마 전에 김알렉산드라와 함께한 노동자들도 있었다. 그녀는 일어나고 있는 사건의 진정한 의미에 대하여 연구하면서 자신의 차후 진로를 결정하려고 노력하였다. 다행히도 김알렉산드라는 이 당시 ‘러시아 사회민주노동당’의 예카체린부르크 위원회와 관계를 맺는 데 성공하였다. 이것은 그녀에게 있어서 볼셰비즘의 혁명 투쟁의 진정한 훈련장이 되었다. 볼셰비키의 영향으로 김알렉산드라의 세계관이 마침내 형성되었다. 그들의 과업에 따라 그녀는 노동자들 사이에서 선전 사업을 펼치기 시작했다. 그녀의 적극적인 참여로 인해 우랄 지방에서는 다수의 조선인과 중국인이 포함된 ‘노동조합’이 결성되었다.”¹³⁰⁾

이처럼 볼셰비즘에 입각해 김알렉산드라가 우랄 지역 조선인 노동자, 중국인 노동자들의 권익과 해방을 위해 조직한 것이 우랄노동자동맹이었다. 우랄노동자동맹이 조직된 시기는 김알렉산드라가 스페르들롭스키(예카체린부르크) 볼셰비키당에 입당한 1917년 2월부터 총파업이 일어난 1917년 4월 사이로 이해된다.

1917년 4월 말, 총파업을 주도하던 김알렉산드라는 조선인 노동자들의 소송 대리가 되어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계봉우의 ‘김알렉산드라 전기’ 중 ‘4. 사회사상의 표현’에 의하면, 김알렉산드라가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전제정치와 귀족 자본 양(兩) 계급의 옹호로 공정한 판결을 얻을 길이 없었다. 그러나 낙망(絶望), 비관, 실패가 김알렉산드라의 지개(志概)를 꺾지는 못하였다.

1917년 2월 혁명 이후 김알렉산드라의 요청에 의해 재판이 재개되었다. 그 공판에는 수만 명의 노동자들이 참여하였다. 이와 관련해 계봉우의 ‘김알렉산드라 전기’ 중 ‘4. 사회사상의 표현’에는 “법정에 내참(來參) 한 노동자가 수만 인에 달하였다. 이에 김 여사는 사자후와 같은 큰 소리로 공중

130) 정철훈, 앞의 책, p. 138, 재인용.

(公衆)을 향하여 그 국장의 불법함과 또 법관의 불공평함을 대(大) 논박, 대 성토했다. 그래서 구경의 승리를 득(得)하고 그 결과에 한인 노동자가 다 해고되고 따라서 수만 원 손해금까지 받아내었다. 또 겸하여 중국 노동자의 소송 대리도 되어 그의 손해배상을 받아준 일이 유(有) 하였더라”¹³¹⁾는 기록이 있다.

이 기록에 의하면 김알렉산드라는 1917년 2월 혁명을 계기로 볼셰비키들의 지도하에 우랄 지방에 ‘우랄노동자연맹’을 조직하였을 뿐만 아니라 4월에는 총파업을 일으켜 법정 소송에서도 승리하였다. 그 결과 김알렉산드라는 우랄 지방 소수민족 노동자들의 영웅으로 떠오르게 되었다. 뿐만아니라 스페르들롭스키(예카체린부르크) 볼셰비키들의 깊은 신임도 획득하였다.

당시 스페르들롭스키(예카체린부르크) 볼셰비키당에서 우랄 지역 노동조합 조직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이유는, 1903년 러시아 사회민주노동당 강령 중 ‘혁명 전략’ 즉 “러시아 사회민주노동당은 이러한 즉각적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현 사회·정치 질서에 반대하는 모든 반대 세력 및 혁명운동을 지지한다.”는 지침에 따른 것이었다. 우랄 지방에 조선인 노동자, 중국인 노동자 등 소수민족 노동자들이 폭증하자 이들을 친볼셰비키 세력으로 끌어들이려는 목적에서 우랄노동자동맹 조직에 적극 관여하였던 것이다.

당시 우랄 지방의 조선인 노동자, 중국인 노동자들을 조직하는 데는 뛰어난 연설 실력과 실행력에 더해 탁월한 외국어 실력까지 갖춘 김알렉산드라가 가장 적합하였다. 이런 배경에서 김알렉산드라는 스페르들롭스키(예카체린부르크) 볼셰비키당의 적극적 지원을 받았다고 이해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랄노동자동맹에서 나타나는 김알렉산드라의 소수민족 노동자 해방 활동은 그녀의 특별한 사상이 아니라 볼셰비즘에 입각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소수민족 노동자 해방 활동에서 드러나는 김알렉산드라의 특

131)『독립신문』제67호 1920년 4월 20일, 「김알렉산드라 전기」

장은 뛰어난 사상가라기 보다는 ‘탁월한 활동가’라고 평가할 수 있다.

2) 한인사회당 창당을 통해 본 피압박민족 해방 활동

이인섭의 『원동인민위원 소비에트 외교위원 김알렉산드라 빼뜨로부나에 대한 회상기』의 ‘위대한 사회주의 10월 혁명에 참가한 김알렉산드라’ 부분에 의하면, 김알렉산드라는 우랄 지방에서 2월 혁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10월 혁명을 준비, 성공하려고 우랄 지방을 떠나 원동으로 출발하였다. 그 시점은 1917년 7월이었다. 물론 스스로 출발한 것이 아니라 러시아 사회민주노동당 스페르들롭스키(예카체린부르크) 볼셰비키당의 지시를 받고 출발하였다. 김알렉산드라의 임무는 극동 지방의 당 조직 사업 특히 조선인 사회에서의 선전, 조직 사업 책임자였다.¹³²⁾ 극동지역 조선인 사회에서 이미 영웅화되어 있는 김알렉산드라를 내세워 극동에서의 볼셰비키 세력을 강화해 10월 혁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였다.

1917년 7월 김알렉산드라는 페름에서 시베리아횡단 열차를 타고 극동으로 출발하였다. 김알렉산드라의 임무가 극동지역 조선인 사회에서의 선전, 조직 사업이었기에 김알렉산드라는 조선인들이 거주하는 정거장마다 멈추어 선전, 조직 사업을 수행하였다. 이인섭의 회상기에 의하면, 김알렉산드라는 멈춘 곳마다 우랄 지방에서 도움을 받았던 조선인 노동자들과 중국인 노동자들의 대대적인 환영을 받았다고 한다.

예컨대 첫 기착지 옴스크에서 김알렉산드라는 선전, 조직 사업을 대대적으로 수행하였다. 김알렉산드라는 옴스크 한인 청년 조직인 ‘드루즈바(우정)’ 사무실에서 드루즈바 회원들을 만나 대한제국 멸망 원인, 독립 후 추구할 정권 등을 토론하고 ‘공산당선언’을 번역해 읽어주기도 하였다. 뒤이

132) 정철훈, 『김알렉산드라 평전』, 필담, 1996, p. 150.

어 드르주바를 우랄노동자동맹 옴스크 지부로 확대 개편할 것을 논의하여 통과시켰다. 임원을 선출한 결과 이인섭이 회장, 안경억이 부회장으로 당선되었다.¹³³⁾

이와 관련해 이인섭은 『망명자의 수기에서』라는 회상기에서, “1917년 7월 김알렉산드라 동지가 옴스크에 도착하여 우랄노동자동맹이라는 공산주의 단체를 조직하였다”고 회고하였다. 김알렉산드라는 같은 해 초 우랄 지방에서 이미 우랄노동자동맹을 조직한 바 있으며, 이후 옴스크 지역으로 조직을 확장시켰던 것이다. 김알렉산드라가 옴스크를 떠나 치타, 체르니셴스키에서도 선전, 조직 사업을 수행하고 마침내 7월 말 최종 목적지인 하바롭스크에 도착하였다.

그녀는 하바롭스크에서도 선전, 조직 사업을 열성적으로 진행하였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조직 사업은 한인사회당 조직이었다. 이를 위해 김알렉산드라는 우선 유력한 독립운동 지도자들을 적극 포섭하고자 한 결과, 하바롭스크역에서 김알렉산드라를 환영했던 오와실리 신부, 오하묵, 오성묵, 이한영, 이한신, 안홍근 등을 중심으로 유력한 독립운동 지도자들이 많이 포섭되었다. 이와 관련해 “우리당 동정자들은 김알렉산드라 동지 지도하에서 중령, 아령, 조선 기타에 있어 공작하던 정치 망명자, 조선 민족 해방운동자, 반일 운동자들을 서신으로나 친히 가서 만나는 방법으로나 인원을 파견하는 방법으로 점점 더 활동을 개시하였다.”¹³⁴⁾는 내용이 있다.

김알렉산드라가 포섭한 대표적 인물 중 하나는 이동휘였다. 당시 그는 독일의 간첩 혐의로 아무르주 자유시 감옥에 수감 되어 있었으며, 김알렉산드라는 그를 포섭하기 위해 감옥에 연락원을 파견하였다. 이후 파견된 인물을 통해 접촉한 이동휘는 볼셰비키 당의 노선에 전폭적인 지지를 표명

133) 정철훈, 앞의 책, pp. 266-271.

134) 이인섭의 『원동인민위원 소비에트 외교위원 김알렉산드라 빼뜨로부나에 대한 회상기』, ‘한인사회당을 조직’.

하고, 향후 활동에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하였다.

1917년 10월 혁명 이후 극동지역에서 볼셰비키의 영향력은 급속히 확대되었다. 이 시기 김알렉산드라의 주도 아래 감옥에서 석방된 이동회는 하바롭스크로 이동하였으며, 중령 김립 또한 같은 지역에 합류하였다. 한편, 혁명 직후 러시아 전역에서는 볼셰비키 정권과 반볼셰비키 세력 간의 내전이 발발하였고, 여기에 서구 열강과 일본의 무력간섭까지 더해져 정세는 급격히 불안정해졌다.¹³⁵⁾ 1918년 1월에는 일본, 미국, 영국의 군함들이 블라디보스토크에 입항하였다.

이에 볼셰비키 정권은 극동지역 한인사회를 친볼셰비키 조직으로 통합하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한인 망명 정치세력 규합에 나섰다. 그 결과 1918년 3월 하바롭스크에서는 극동인민위원회 위원장인 크라스노쇼코프 주최로 ‘조선인 해외망명자대회’가 열렸다.¹³⁶⁾ 김알렉산드라는 그 기회를 이용해 조선인 사회의 유일한 정당을 조직하고자 했다.

한편, 볼셰비키가 동양의 민족운동을 지원한 데에는 내전 속에서 국내외 소수민족의 지지를 확보하려는 현실적 필요가 작용했다. 그러나 그보다 앞서, 레닌을 중심으로 한 민족문제 이론이 제1차 세계대전 이전부터 당내에 형성되기 시작한 것도 중요한 배경이었다. 러시아사회민주노동당은 창당 초기, 인구의 절반 이상이 소수민족으로 구성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족문제에 대한 독자적 이론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1903년 2차 대회에서야 분트(러시아-폴란드 전 유대인 노동자동맹)의 요구에 따라 민족자결권을 강령 9조에 포함시키는 데 그쳤다.¹³⁷⁾ 레닌 역시 초기에는 민족문제를 계급투쟁에 종속된 부차적 과제로 보았고, 이는 제2인터내셔널의 기존 입장

135) 麻田雅文 著, 『シベリア出兵』, 中央公論新社, 2016.

136) 정철훈, 『김알렉산드라 평전』, 필담, 1996, p. 184.

137) 민경현, 「레닌의 민족자결주의-10월 혁명 이전 시기를 중심으로」, 『사총』 54, 고려대학교 역사연구소, 2001, p. 133.

과 큰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오스트리아 마르크스주의의 영향과 더불어, 카프카스·우크라이나·유대인 당원들을 중심으로 민족 해방과 국제주의를 결합하려는 움직임이 당내에서 확대되자, 레닌은 민족문제에 대한 새로운 이론 정립에 나서게 되었다.¹³⁸⁾ 레닌은 계급투쟁의 우위를 견지하면서도, 모든 민족의 정치적 자결권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전환해 나갔다. 이는 민족문제를 주로 유럽 중심으로 이해했던 로자 룩셈부르크 등 서구 마르크스주의자들과 달리,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식민지 현실을 포함함으로써 ‘민족’과 ‘식민지’ 문제를 구분하지 않고 통합적으로 접근한 것이었다.¹³⁹⁾ 레닌의 민족 이론은 제1차 세계대전 중 저술된 『제국주의: 자본주의의 최후 단계』에서 보다 구체화되었으며, 그는 식민지와 반식민지가 열강의 자본 수출을 매개로 단일한 세계 체제에 편입되어 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피지배 민족의 자결권 실현은 단지 민족 해방에 그치지 않고, 제국 내부의 사회주의 혁명과도 긴밀히 연결된다고 주장하였다.¹⁴⁰⁾

비록 민족 해방을 둘러싼 논쟁은 당내에서 지속되었지만, 레닌의 입장은 결국 볼셰비키의 대내외 민족 정책의 기반이 되었다. 이러한 정책 기조는 아시아 민족운동에 대한 연대와 권리 지지로 이어졌고, 이는 각지의 한인들로 하여금 볼셰비키 정권을 지지하게 만드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특히 1918년 4월 극동에서 창당된 한인사회당은 그 중심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이후 유럽 러시아와 서시베리아 지역에서도 한인 조직화가 본격화되기 시

138) 민경현, 앞의 논문, pp. 133-135. 당시 오스트리아 사회민주당은 오토 바우어를 중심으로 ‘문화적 민족 자치론’을 개진했다. 이는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의 틀 안에서 ‘비영토적’인 문화적·교육적 자치를 추구하는 6개 민족당의 연방을 상정한 것이었다. 이를 러시아 제국에 적용하려는 경향은 분트에 의해 주도되었는데, 레닌은 민족문화 내에 작용하는 계급성을 지적한 ‘두 개의 민족문화론’을 통해 이를 비판했다. (홍성수, 「레닌의 민족 문제론에 대한 연구」, 『사회와 역사』18, 한국사회사학회, 1990, pp. 170-174).

139) 노경덕, 「제1차 세계대전 말 유럽의 국제정치와 민족자결주의」, 『역사학보』 245, 역사학회, 2020, pp. 37-40.

140) 노경덕, 앞의 논문, pp. 43-44.

작하였다.¹⁴¹⁾

이와 관련해 이인섭의 회상기 ‘한인사회당을 조직’ 부분에는 “1918년 초, 케렌스키 정부의 지방 당국에 체포되어 자유시에 감금되었던 이동휘는 10월 혁명이 성공되어서야 석방되어 하바롭스크에 당도하였다. 중국 북경, 하얼빈, 몽고를 근거지로 하고 중국 산군 등과 연계를 가지고 조선 독립군 근거지를 창설하느라고 조선이 왜놈들에게 합방을 당한 후에 비밀 공작하던 유동열 일행이 당도하였다. 이동휘, 유동열 두 동무-당시 조선 사회에서의 저명한 활동가들이 당도한 것은 김알렉산드라가 이미 예정하고 활동하던 조선인 사회의 유일한 정당을 조직할 기초를 가지게 되었다.”¹⁴²⁾는 내용이 있다.

1918년 3월 하바롭스크에서 열린 ‘조선인 해외망명자대회’에는 볼셰비키 계열뿐 아니라 반볼셰비키 세력도 참여하였다. 이로 인해 회의는 양 진영 간의 첨예한 입장 차이로 격렬한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진행되었다.¹⁴³⁾

결국 이동녕을 중심으로 한 반볼셰비키 세력은 회의장을 떠났고, 김알렉산드라는 남은 인사들을 중심으로 한인사회당을 조직하였다. 그녀는 창당의 명분으로 “당시의 세계 정세와 조선 민족해방운동을 사회주의 혁명운동과 연계하기 위해서는 유일한 무산자 정당을 구성하고, 단일 강령과 헌장 아래에서 사업을 추진하며, 이전의 지역적 분열과 파쟁을 청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인사회당 창당대회가 열린 때는 1918년 4월 28이었고, 장소는 하바롭스크 조선민회회관 위층 회의실이었다. 참석자는 김알렉산드라, 이인섭, 오와실리, 이한영, 오성묵, 심백원, 안홍근, 유동렬, 김립, 이동휘, 이한신, 박

141) 이정용, 「시베리아 한인사회의 사회주의 수용과 이르쿠츠크 콤그룹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22, pp. 24-25.

142) 이인섭, 『원동인민위원 소비에트 외교위원 김알렉산드라 빼뜨로부나에 대한 회상기』, ‘한인사회당을 조직’.

143) 이인섭, 앞의 책, ‘한인사회당을 조직’.

애, 오하목, 유스테판 등 18명이었다. 임시회장은 이동휘, 사회는 김립이었다. 이인섭은 한인사회당 창당 시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회의 순서는 단순하였다. 당의 명칭과 간부위원 선거였다. 당의 명칭은 한인사회민주노동당(불)이라고 하자고 김 동지가 제의하였다. 모두 말이 없었는데 김립 동지가 불세비키라고 하는 명칭을 가지게 된 이유를 문의하니, 김 동지는 불세비키와 멘세비키가 갈리운 역사를 이야기하였다. 김립 동지가 토론하기를 우리 조선 사람들은 두 파로 갈라져 싸운 일이 없으니, 하필 다수파니 소수파니 할 필요가 없다고 하며 다수 가결로 ‘다수파’라는 것은 없애게 되었다.

그다음에는 유동열이 토론하기를 지금 우리 조선인 사정은 농민이 절대적 다수인 것이니 만일 노동당이라고 한다면 농민들을 잃을 위험이 있으니, 노동당이라고 하자고 하여 구구한 토의들이 있었다. 나중에 언권을 가진 김립이는 노동당이니 농민당이니 할 것 없이 ‘한인사회당’이라고 하고 러시아 불세비키당 강령과 헌장을 기본으로 하고 우리 당 정강, 헌장, 행동 강령을 작성하여 가지고 일상적으로 러시아 불세비키들 지도와 창조하에서 사업하면 그만이라고 하여서 다수 가결로 ‘한인사회당’이라고 하였다.”¹⁴⁴⁾

위 내용에 의하면 한인사회당이라는 당명은 복잡한 토론을 거쳐 결정되었다. 처음 당명은 김알렉산드라가 ‘한인사회민주노동당(불)’으로 제안하였다. 주목할 만한 부분은 명칭에 붙은 ‘(불)’이라는 표기이다. 이는 해당 조직이 불세비키 계열임을 분명히 나타내며, 한인사회민주노동당(불)은 곧 한인사회민주노동당 불세비키를 의미한다. 이 명칭은 러시아 사회민주노동당 불세비키의 조직 형태와 노선을 그대로 모방한 결과였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당시 김알렉산드라는 당명과 강령 등에서 레닌 불세비즘을 그대로 추

144) 이인섭, 앞의 책, ‘한인사회당을 조직’.

종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한인사회당의 창당 과정을 살펴보면, 김알렉산드라는 뛰어난 선전가, 조직가, 활동가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주지만 독자적인 사상이나 현실 인식은 상대적으로 약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한인사회당 창당에서 나타나는 김알렉산드라의 피압박민족 해방 사상과 활동은 불세비즘을 추종하는 뛰어난 선전가, 조직가, 활동가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후 회의에서는 ‘모든 계급의 철폐’와 ‘토지 및 생산수단의 국유화를 통한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약법의 채택이 결의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 최초이자 아시아에서 가장 이른 시기에 결성된 사회주의 정당인 한인사회당이 공식적으로 출범하였다.¹⁴⁵⁾ 한인사회당의 정강은 러시아공산당의 정강을 토대로 작성되었으며, 이들이 발표한 격문에는 한국의 민족해방운동과 러시아 혁명운동 간의 국제적 연대의 필요성이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한인들은 한국혁명의 운명이 러시아 혁명운동과 밀접하게 관련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러시아 노동계급과의 밀접한 연계에 의해서만 압박받는 한국의 승리가 가능하다.”¹⁴⁶⁾

한인사회당 중앙위원으로는 이동휘(위원장), 오와실리(부위원장), 유동열(군사부장), 김립(선전부장), 김알렉산드라 등이 선임되었다. 중앙위원회 내에는 3개의 집행 부서, 즉 조직부·선전부·군사부가 설치되었다.¹⁴⁷⁾ 집행 부서의 명칭에서 드러나듯, 한인사회당의 주요 활동은 러시아 내 한국인 이주민 사회를 대상으로 한 조직화와 선전 활동, 그리고 무장 부대의

145) 박남일, <창당 100주년: 한인사회당, 아시아 최초로 사회주의 깃발을 들다>, 다르게 세상 읽기, 2018.

146) 임경석, 『한국 사회주의의 기원』, 역사비평사, 2003, p. 72.

147) 「노병김규면비망록」 박환, 『재소한인민족운동사』, 국학자료원, 1998, p. 260.

양성에 집중되었다. “선전과 조직을 주된 사업으로 하였고, 동시에 적군을 편성해 일본제국주의 군대에 맞서고자 했다”는 당시의 증언은 이러한 활동의 방향성을 잘 보여준다.¹⁴⁸⁾

한인사회당은 연해주와 아무르 등지에 8개의 지부를 설립하고, 블라디보스토크의 대한인노동회와 우랄노동자동맹과 같은 단체를 흡수하며 조직을 확장해 나갔다.¹⁴⁹⁾ 또한 ‘보문사’라는 출판사를 설립하여 한글로 집필된 한국역사와 지리교과서, 정치적 단행본들과 마르크스주의 서적들을 출판하였다. 출판 활동의 중점은 한국인의 민족문화를 보급하고자 함이었다. 보문사 설립 경위와 활동 양상에 관해서는 『독립신문』에 다음과 같은 기사가 있다.¹⁵⁰⁾

“이한영, 김립, 양씨의 발기로 보문사(普文社)를 설(設)하여 우리 민족에게 문화를 보급한다는 주의하에서 본국 역사, 지지(地誌) 등의 교과서를 간행하고, 그나마 정신적 서류를 계속 출판하려고 하는 중 아국(俄國) 사회당 수령 그라스노초꼬프(크라스노쇼코프-인용자) 씨가 대동정을 표하여 석판(石版)기계 1대, 인쇄용비 5천 류(留 : 루블-인용자), 또 1,000류 이상의 가치되는 지물(紙物)을 기부하매, 해사(該社)의 목적을 대규모로 실천하기 위하여 한문(韓文) 번역에는 유동열·김립, 아문(俄文) 번역에는 김진보·오와실리 제씨(諸氏)가 되었었는데...”¹⁵¹⁾

극동인민위원회가 출판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석판기계와 인쇄비, 종이 등을 제공하였고, 기관지 『자유종』을 발간하여 사회주의 선전 활동을 전개

148) 임경석, 앞의 책, p. 72.

149) 박남일, <창당 100주년: 한인사회당, 아시아 최초로 사회주의 깃발을 들다>, 다르게 세상 읽기, 2018.

150) 임경석, 앞의 책, pp. 73-74.

151) 뒤바보, 「俄領實記(11)」, 『독립신문』1920년 4월 3일, p. 1.

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한인사회당의 당원 수는 약 1만 명에 달하게 되었다.¹⁵²⁾

또한, 한인사회당은 극동 소비에트 당국의 지원을 받아 조선인 장교 양성을 위한 사관학교를 설립하고, 군사부장이던 유동렬이 초대 학교장을 겸임하였다. 김알렉산드라를 중심으로는 블라디보스토크 주둔 일본군 병사들을 대상으로 반제·반전 활동이 전개되었으며, 남만주 지역에 산재해 있던 소규모 독립군 양성학교들도 점차 통합되었다. 이 과정에서 홍범도 부대가 하바롭스크로 이동하였고, 6월 말에는 약 100명 규모의 보병 부대로 구성된 한인적위대가 조직되었다.¹⁵³⁾

1918년 6월 하바롭스크에서 열린 볼셰비키 적위군 군사재판에서, 국가반역 혐의로 고발된 주동자들은 김알렉산드라에 의해 기소되었으나, 사형 판결을 받은 뒤 집행을 기다리던 중 백위군의 개입으로 석방되었다. 김알렉산드라는 이처럼 군사재판의 기소자로 활동했을 뿐만 아니라, 제1차 세계대전 당시 러시아군의 포로로 잡힌 외국군 수용소를 방문하여 볼셰비키 정권 참여를 권유하는 등 포로 대상의 선전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훗날 작가가 된 외국인 포로 마떼 살까¹⁵⁴⁾는, 포로수용소 내에서 조직된 외국인노동자동맹을 통해 마르크스주의 사상에 눈을 뜨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진리를 접하게 되었다고 회고하였다. 이러한 인식변화는 김알렉산드라와 같은 뛰어난 선전·선동가들의 활약이 그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¹⁵⁵⁾

김알렉산드라 역시 다른 한인 볼셰비키들과 마찬가지로, 러시아 공산당

152) 박남일, 앞의 내용.

153) 박남일, 앞의 내용.

154) 마떼 살까의 회고는 일부 구술증언이나 간접기록을 통해 전해지나, 그의 정확한 출신, 활동 시기, 저작 경로 등은 현재 문헌상 확인되지 않는다. 러시아어 원사료나 수용소 관련 1차 기록을 통한 보완이 필요하다.

155) 정철훈, 『김알렉산드라 평전』, 필담, 1996, pp. 236-237.

의 극동 수호 전략 속에서 전개된 내전의 희생자가 되었다. 그러나 그녀의 죽음은 단순한 희생을 넘어, 인간적으로도 성숙한 사상과 실천이 만난 한 인격의 정점이라 평가할 수 있다. 그녀의 삶은 이후 상해파와 이르쿠츠크파로 나뉘어 종파 갈등과 러시아 공산당의 숙청으로 생을 마감한 다수 초기 한인 공산주의자들과는 분명한 대조를 이룬다. 한 인물의 일생을 평가할 때, 그가 처했던 역사적 조건 역시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김알렉산드라가 활동했던 1910년대 후반의 극동 시베리아는 제1차 세계대전과 러시아 내전이 교차한 격동의 공간이었으며,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녀의 실천은 오히려 시대를 앞서간 선각자의 행보였다.¹⁵⁶⁾

3. 두 인물의 약소민족 해방에 대한 활동 비교

알렉산드라 콜론타이와 김알렉산드라는 같은 시대, 같은 이념적 지평 속에서 활동했지만, 그들이 민족 해방을 실천해 나간 방식은 서로 다른 조건과 맥락에 뿌리를 두고 있었다. 두 인물 모두 마르크스-레닌주의를 바탕으로 계급 해방과 민족문제를 통합적으로 사유했다는 공통점을 지니지만, 각자가 처한 사회적 위치와 운동의 지향점은 실천 전략에서 뚜렷한 차이를 낳았다.

콜론타이는 제국 내부에서 억압받는 소수민족, 특히 핀란드를 주목했다. 그녀는 러시아 제국의 식민지화 정책에 반대하며 핀란드 노동계급이 보여준 정치적 자율성과 조직화 가능성에 주목하였다. 그녀의 글에서 핀란드 문제는 단순한 자치권 요구나 민족적 독립의 문제가 아니라, 계급의식이 내면화된 피억압 민족의 해방 모델로 제시되었다. 그녀는 “핀란드 노동계급은 러시아 제국의 압제 속에서도 독립적인 정치세력으로 성장하고 있으

156) 정철훈, 앞의 책, p. 243.

며, 이는 단지 민족의 자율성 회복에 머무르지 않고, 계급 해방의 실현을 위한 중요한 전선이 되고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¹⁵⁷⁾

한편, 김알렉산드라는 러시아 제국 외부, 식민지 조선 민족 출신으로서 활동했다. 그녀는 피지배 민족의 해방이 단순한 이념의 실천이 아니라 실질적인 정치 조직화와 무장투쟁을 동반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입장은 한인사회당 창당, 조선인 사관학교 설립, 적위대 편성 등으로 구체화 되었다. 김알렉산드라는 이동휘, 김립 등과 함께 조선인 사회주의자들을 조직하며 계급 해방과 민족 독립이라는 ‘이중의 혁명 과제’를 동시에 실천하려 했다.

두 인물은 모두 약소민족 해방의 실천에 있어 ‘계급’과 ‘민족’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하지 않았다. 콜론타이가 핀란드와 중앙아시아의 여성·노동자 문제를 통해 ‘민족 해방은 곧 계급 해방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통합적 관점을 제시했다면, 김알렉산드라는 조선 민족의 독립이 사회주의 혁명과 결합해야만 진정한 해방이 이루어진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그들의 전략에는 차이가 존재했다. 콜론타이는 계급의식 고양과 사회의식 개조를 중시하며 계몽과 선전 중심의 실천을 전개했다면, 김알렉산드라는 사회주의적 정치조직과 군사력을 통한 직접 투쟁의 방식으로 접근하였다. 콜론타이의 경우, 중앙아시아에서 진행된 후쭈(Hujum) 운동처럼 여성해방과 민족 해방, 종교적 억압과 성적 규율 해체를 동시에 추진한 사례를 통해 사회주의의 실천 영역을 확장하려 했고,¹⁵⁸⁾ 김알렉산드라는 극동지역에서 조선인 노동자와 농민을 조직화하면서 일제와 백위군에 맞선 무장투쟁을 병행하였다.

무엇보다 중요한 차이는, 콜론타이가 제국 내부의 소수민족으로서 다민

157) Kollontai, *Finliandiia i sotsializm (Finland and Socialism)*, Sankt-Peterburg: M. Malykh, 1906.

158) Kollontai, *Zhizn' finliandskikh rabochikh (The Lives of Finnish Workers)*, 1903. [러시아어 원전]

족 제국 내 해방을 상정한 반면, 김알렉산드라는 식민지 바깥에서 제국주의와 싸운 피식민 민족 출신이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차이는 곧 그들이 상상한 국제주의의 방향성에서도 드러났다. 김알렉산드라에게 국제주의는 조선 민족의 해방이 다른 피억압 민족과 함께 제국주의 세계 체제를 전복하는 투쟁으로 확장되는 것이었다.

결과적으로 콜론타이와 김알렉산드라는 ‘민족 해방’이라는 동일한 문제의식을 공유하면서도 전혀 다른 사회적 조건과 실천 전략을 통해 그 과제를 수행해 나갔다. 이들의 활동은 20세기 초 국제사회주의 운동이 결코 단일한 이념 실천이 아니라, 민족, 계급, 성별, 제국주의라는 다양한 조건 속에서 분기되고 확장되었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 두 인물은 모두 계급 중심의 사회주의 이념을 민족 현실 속에 창조적으로 적용하며, 억압받는 민족의 해방이 단지 독립을 넘어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혁명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음을 실천적으로 보여준 인물들이었다.

IV. 결론

본 연구는 20세기 초 러시아혁명이라는 거대한 역사적 격변 속에서 각기 다른 공간과 조건 속에서 활동했던 두 볼셰비키 여성 혁명가, 알렉산드라 콜론타이와 김알렉산드라 페트로브나의 노동자 해방 및 약소민족 해방에 관한 사상과 실천을 직접적으로 비교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는 지금까지 학계에서 시도되지 않았던 독창적인 연구로서, 혁명의 중심부(모스크바)와 주변부(극동 시베리아)라는 지정학적 위치가 한 명의 혁명가에게 부여하는 역할과 사상적 지향의 차이를 규명하고자 한 시도였다.

제 II장에서는 두 혁명가가 사회주의 사상을 수용하게 된 상이한 성장배경과 그에 따른 이론적 특징을 추적하였다. 콜론타이는 러시아 귀족 지

식인으로서 노동 현장의 착취를 목격하고 급진적 사상을 접하며 마르크스주의 여성해방 이론가로 성장하는 지적 여정을 분석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김알렉산드라는 러시아 극동이라는 제국의 주변부에서 조선인으로서 겪는 민족적, 식민지적 억압의 현실 속에서 불세비즘을 민족과 계급의 이중 해방을 위한 실천적 도구로 수용한 과정을 기술했다.

제 III장에서는 두 인물의 이념이 구체적인 실천으로 어떻게 구현되었는지를 검토하였다. 콜론타이의 경우, ‘핀란드 문제’를 통한 제국 내부의 피억압 민족 현실과 중앙아시아 무슬림 여성을 대상으로 한 국가 주도의 ‘후쭈(Hujum)’ 운동에 미친 영향을 통해, 혁명의 중심부에서 사회주의 정책을 수립하고 적용하려는 시도를 조명했다. 반면 김알렉산드라는 우랄노동자동맹 조직과 한인사회당 창당 활동을 통해, 제국주의와 계급투쟁이라는 중첩된 문제에 맞서 혁명 전략을 최전선에서 풀뿌리 조직화로 실현해 나간 과정을 분석했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본 결론은 콜론타이와 김알렉산드라가 마르크스-레닌주의라는 공통의 이념적 기반 위에서 활동했지만, 혁명 국가와의 물리적, 정치적 거리에 따라 근본적으로 다른 두 가지 유형의 혁명적 실천-중심부의 이론가와 주변부의 활동가-을 대표한다는 핵심 주장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했다.

콜론타이와 김알렉산드라의 사상적 초석은 마르크스-레닌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었다. 두 사람 모두 자본주의 체제의 전복과 프롤레타리아 국가 수립을 역사적 필연으로 간주했으며, 점진적 개혁이 아닌 급진적 혁명을 통해서만 사회변혁이 가능하다고 믿었다. 이러한 공유된 신념은 그들을 이론적 논의에만 머무르지 않고, 억압받는 대중을 조직하고 동원하는 실천으로 이끌었다.

콜론타이는 러시아 사회민주노동당 내에서 여성 노동자들을 조직하는 데

헌신했으며, 혁명 후에는 여성부(제노텔)를 설립하고 이끌며 여성해방을 국가 정책의 차원으로 끌어올리려 했다. 마찬가지로 김알렉산드라는 우랄 지방에서 다민족 노동자들을 규합하여 '우랄노동자동맹'을 결성하고, 극동지역에서는 흩어져 있던 조선인 사회주의자들을 모아 '한인사회당'을 창당했다. 이처럼 대중 조직화와 선동에 대한 두 사람의 헌신은 혁명을 이끄는 전위로서 당의 역할을 강조한 레닌주의 모델에 대한 충실한 이해이었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두 혁명가의 공통된 지향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투쟁은 각기 다른 축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이러한 차이는 그들의 혁명 과정에서 맡았던 역할과 권력 구조 내에서의 위치에 의해 결정되었다.

콜론타이의 가장 독창적인 이론적 기여는 계급 분석에 젠더 문제를 통합한 것이다. 그녀는 여성해방이 계급투쟁의 부차적 과제가 아니라, 성공적인 사회주의 사회 건설을 위한 핵심 전제조건이라고 주장했다. 그녀의 대표 저작인 『여성문제의 사회적 기초』에서 콜론타이는 여성 억압의 근본 원인이 생물학적 차이가 아닌 사회경제적 조건에 있으며, 진정한 해방은 가부장적 가족제도와 가사 노동의 굴레를 혁명적으로 변혁해야만 가능하다고 역설했다.

반면, 김알렉산드라의 투쟁은 계급과 민족이라는 두 개의 전선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이루어졌다. 러시아 극동의 조선인들에게 계급적 착취는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 지배와 제정러시아 내에서의 민족 차별과 분리될 수 없는 문제였다. 그녀의 활동은 조선의 민족적 독립과 노동자·농민의 사회주의적 해방이라는 이중의 혁명 과제를 동시에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이러한 투쟁 대상의 차이는 혁명 과정에서 그들이 맡은 역할의 차이로 이어졌다. 콜론타이는 인민위원과 여성부 책임자로서 혁명 국가의 정책을 수립하고 이념을 정립하는 이론가이자 국가 건설자였다. 그녀의 임무는 결

혼, 낙태, 육아와 같은 사회문제에 대해 새로운 소비에트 국가가 나아갈 보편적 원칙과 제도를 만드는 것이었다. 이에 반해 김알렉산드라는 우랄노동자동맹과 한인사회당의 조직가로서 볼셰비키당의 거시적 전략을 현장에서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기는 최전선의 활동가였다. 당으로부터 부여받은 그녀의 임무는 특정 공동체(소수민족 노동자, 조선인 사회주의자)를 전략적 목표를 위해 동원하는 것이었다.

두 사람의 역할 차이는 해방을 실현하는 방법론의 차이로 구체화 되었다. 콜론타이의 유산인 여성부와 그 정책이 확장된 중앙아시아의 ‘후춤’ 운동은 국가가 해방의 주체가 되는 하향식(top-down) 해방 모델을 보여주었다.

김알렉산드라의 성공은 이와 다른 경로를 보여주었다. 그녀는 우랄 지방에서 조선인, 중국인, 러시아인 노동자들을 공동의 계급적 적에 맞서 단결시키는 상향식(bottom-up)의 실천적 국제주의를 구현했다. 이는 국가 주도의 정책과는 다른, 보다 유기적인 형태의 혁명적 국제주의 모델을 제시했다.

본 연구는 알렉산드라 콜론타이와 김알렉산드라의 비교 분석을 통해 기존의 서술에 몇 가지 중요한 학술적 기여를 하고자 하였다.

첫째, 볼셰비키의 다원성을 입증하였다. 두 인물을 나란히 분석함으로써, 본 연구는 볼셰비즘 이데올로기에 대한 단일하고 경직된 시각에 도전했다. 이는 마르크스-레닌주의가 고정된 교리가 아니라, 러시아 심장부의 젠더 억압에서부터 아시아 국경 지대의 민족-식민지 억압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른 형태의 억압 구조에 대응하기 위해 유연하게 적용되고 재해석될 수 있는 원칙들의 집합이었음을 보여주었다.

둘째, ‘교차성(intersectionality)’의 역사적 선례를 제시하였다. 콜론타이는 계급과 젠더라는 중첩된 억압 구조를 분석했으며, 김알렉산드라는 계급, 민

족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살고 투쟁했다. 이들의 삶과 사상은 20세기 초 혁명가들이 이미 다중적 정체성 범주들이 만들어내는 복합적인 억압의 상호작용과 씨름하고 있었음을 명확히 보여주었다.

셋째, ‘서발턴(subaltern)’의 목소리 복원과 그 방법론적 성찰을 시도하였다. 안토니오 그람시(Antonio Gramsci, 1891-1937)¹⁵⁹와 가야트리 스피박(Gayatri Spivak, 1942-)¹⁶⁰의 이론적 틀을 빌리자면, 김알렉산드라는 전형

159) 안토니오 그람시는 이탈리아의 마르크스주의 사상가이자 공산당 창립을 주도한 정치 활동가이다. 그는 무솔리니의 파시스트 정권에 의해 투옥되었고, 감옥에서 집필한 『옥중수고(Prison Notebooks)』를 통해 20세기 사상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 그람시의 핵심 개념 중 하나는 ‘헤게모니(Hegemony)’이다. 헤게모니란? 지배계급이 단순히 폭력이나 강압(지배, Domination)만으로 권력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피지배 계급의 ‘자발적 동의’를 얻어냄으로써 자신의 지배를 정당화하고 유지하는 상태를 말한다. 이는 교육, 종교, 언론, 문화 등 사회의 다양한 제도를 통해 지배계급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상식’이나 ‘보편적인 것’으로 인식하게 만듦으로써 이루어진다. ‘서발턴(Subaltern)’은 바로 이 헤게모니 개념과 밀접하게 연결된다. 그람시는 헤게모니를 장악한 지배 집단에 종속되어 있는 사회 집단, 즉 ‘하위 주체’들을 서발턴이라 칭했다. 이들은 주로 농민, 노동자 등 지배 구조의 바깥에 있으며, 자신들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지 못하고 파편화되어 있다. 따라서, 이들의 역사는 지배계급의 언어로 기록되거나 아예 역사에서 누락되기 쉽다. 요약하자면, 그람시에게 서발턴은 지배계급의 헤게모니에 종속되어 있으나, 그 구조에 완전히 동화되지도 못하고 독자적 목소리도 갖지 못한 하층 계급을 의미한다.

160) 가야트리 스피박은 인도 출신의 후기식민주의(Postcolonialism) 페미니스트 이론가로, 현대 비평 이론에 큰 영향을 미친 학자이다. 그녀는 그람시의 ‘서발턴’ 개념을 식민주의와 제3세계 여성의 맥락으로 가져와 더욱 급진적으로 발전시켰다. 그녀의 가장 유명한 논문은 「서발턴은 말할 수 있는가?(Can the Subaltern Speak?)」이다. 스피박에게 서발턴은 단순히 계급적으로 낮은 존재가 아니다. 그녀는 식민주의, 자본주의, 가부장제는 억압 구조가 복합적으로 교차하는 지점에 놓인 존재, 특히 ‘제3세계 피식민지 여성’을 가장 전형적인 서발턴으로 보았다. 스피박의 질문은 서발턴이 물리적으로 말을 못 한다는 뜻이 아니다. 설령 그들이 말하더라도, 서구 중심적이고 남성 중심적인 지배 담론의 구조 안에서는 그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된 ‘언어’나 ‘정치적 발언’으로 결코 닿을 수 없다는 의미이다. 지식인이나 서구 엘리트가 그들을 대변하려는 시도조차 결국은 그들을 자신들의 지식 체계 안에 가두는 또 다른 폭력(Epistemic Violence, 인식론적 폭력)이 될 수 있다고 비판하였다. 요약하자면 스피박에게 서발턴은 계급, 인종, 성별, 제국주의적 억압이 중첩되어 자신의 목소리를 역사에 남길 수 있는 통로 자체를 박탈당한 가장 소외된 존재를 의미한다. 결론적으로 서발턴이란, “자신의 역사를 스스로 기록하거나

적인 ‘서발턴’ 주체¹⁶¹)로 이해될 수 있다. 그녀는 소외된 집단(조선인 여성)의 일원으로서, 그 역사와 목소리가 지배적인 타자들의 서사를 통해 매개되거나 대부분 침묵 속에 묻혀왔다. 본 연구는 그녀의 삶을 재구성하고 콜론타이와 같은 정전(canon)적 인물과 동등한 분석적 지평에 올려놓음으로써, ‘아래로부터의 역사’ 서술을 실천했다. 그러나 스피박이 제기한 “서발턴은 말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따라, 본 연구는 재현 행위 자체에 내재된 ‘인식론적 폭력(epistemic violence)’에 대해서도 성찰했다. 김알렉산드라 자신의 저작이 부재하는 상황에서 그녀의 사상은 타인의 기록과 그녀의 행동을 통해 추론될 수밖에 없다는 방법론적 한계를 인정하는 것은 연구의 학술적 엄밀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또한, 본고는 몇 가지 내재적 한계를 지니고 있으며, 이는 동시에 미래 연구를 위한 새로운 길을 제시할 것이라 본다.

자신을 대변할 수 있는 제도적 통로를 갖지 못하고, 지배 집단에 의해 타자화되고 종속된 주체”를 가리키는 용어라고 할 수 있다.

161) 이러한 이론적 틀에서 김알렉산드라는 전형적인 ‘서발턴’ 주체로 해석될 수 있다. ① 민족적 서발턴 : 그녀는 러시아 제국이라는 거대한 영토 안에서 소수민족인 조선인이었다. 이는 제국의 중심이 아닌 변방에 위치한 피지배 민족의 일원이라는 점에서 서발턴의 위치에 해당된다. ② 계급적 서발턴 : 그녀는 자본주의적 착취에 시달리던 노동자·농민 계급을 조직하고 그들을 대변하고자 했다. 이는 그람시가 말한 하층 계급의 위치와 일치한다. ③ 성별의 서발턴 : 그녀는 혁명운동이 남성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시대에 활동한 여성이었다. 본 고에서 알렉산드라 콜론타이가 여성문제를 전면에 내세운 것과 달리, 김알렉산드라의 활동에서 젠더적 관점은 상대적으로 덜 드러나는데, 이는 그녀의 목소리가 민족과 계급이라는 더 거대한 담론에 흡수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④ 역사 기록의 서발턴 : 무엇보다 그녀는 자신의 사상을 체계적인 저술을 남기지 못했다. 그녀의 행적은 동지였던 이인섭의 회고나 다른 단편적인 기록을 통해 재구성될 뿐이었다. 이는 스피박이 지적했듯, 서발턴은 스스로를 역사에 기록하지 못하고 타인에 의해 ‘재현’될 수밖에 없는 운명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처럼 김알렉산드라는 민족, 계급, 성별, 그리고 역사적 기록이라는 여러 차원에서 중첩된 억압과 소외를 겪은 인물이었다. 그녀는 억압받는 이들을 조직하며 스스로 주체가 되려 했지만, 그녀의 목소리와 실천은 거대 역사 속에서 오랫동안 잊혔다는 점에서 ‘말하고자 했으나 제대로 들리지 않았던’ 서발턴의 모습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첫째, 사료의 불균형 문제이다. 콜론타이는 방대한 양의 저작을 남긴 반면, 33세의 나이로 처형당한 활동가 김알렉산드라는 자신이 직접 저술한 이론적 저작을 남기지 않았다. 그녀의 이념은 오직 그녀의 행동과 동시대인들의 증언을 통해서만 재구성될 수밖에 없다는 구조적 불균형이 존재한다.

둘째, 미완의 혁명가 김알렉산드라라는 한계이다. 그녀가 1918년 너무 이른 나이에 죽음을 맞이했다는 사실은 그녀의 사상적 발전 가능성을 온전히 평가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이러한 한계는 다음과 같은 후속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첫째, 더 넓은 범위의 비교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비교 모델을 20세기 초 식민지 혹은 반식민지 세계의 다른 여성 혁명가들, 예컨대 중국, 인도, 라틴아메리카의 인물들에게까지 확장함으로써 사회주의 페미니즘의 보다 포괄적인 지구사(global history)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코민테른과 조선 문제에 대한 심층 연구가 요구된다. 코민테른 관련 기록 보관소에 대한 추가적인 탐구를 통해 1920년대 조선 사회주의 운동에 대한 모스크바의 구체적인 정책, 특히 상해파와 이르쿠츠크파 사이의 갈등을 조명하고, 한인사회당의 활동을 더욱 풍부한 맥락 속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소수자 우대 제국’ 대 풀뿌리 국제주의¹⁶²⁾라는 분석틀을 통한 연구가 가능하다. 테리 마틴(Terry Martin)¹⁶³⁾이 제시한 소비에트 연방의 ‘소

162) “풀뿌리 국제주의(grassroots internationalism)”는 국가 주도의 형식적인 국제주의나 관료적 연대가 아닌, 억압받는 민중·노동자·소수민족들이 ‘현장에서 스스로 조직한 연대와 해방 실천’을 의미한다. 즉, 소련 당국이 추진한 ‘후춤’ 운동(무슬림 여성 해방 운동)이 국가 주도의 민족 정책이었다면, 김알렉산드라가 이끈 조선인 노동자 조직, 한인사회당 창당 등은 민중 주도형 실천, 즉 풀뿌리 방식의 계급 해방 국제주의 모델에 가깝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163) 미국의 역사학자이자 러시아사·소련사 연구의 세계적 권위자이다. 그는 특히 스탈린 시대 소련의 민족 정책과 다민족 제국으로서의 성격을 분석한 업

수자 우대 제국(Affirmative Action Empire)’이라는 개념을 활용하여, 소련 민족 정책의 내적 모순을 명시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후춤’과 같은 하향식 문화 변혁(變革)과 김알렉산드라가 이끌었던 것과 같은 상향식 계급 기반 국제주의를 대조함으로써, 어떤 모델이 궁극적으로 더 효과적이었는지를 질문하는 연구는 매우 의미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알렉산드라 콜론타이와 김알렉산드라 페트로브나의 유산은 그 규모와 범위 면에서 크게 다르지만, 혁명이라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 그들의 삶은 볼셰비키 프로젝트가 품었던 거대한 세계 변혁의 야망과 그 내적 모순, 그리고 궁극적인 비극을 동시에 드러냈다. 콜론타이의 이야기가 혁명의 해방적 약속이 관료주의적 체제 강화 속에서 제약되는 과정을 보여준다면, 김알렉산드라의 이야기는 그 약속이 만개하기도 전에 반혁명의 폭력에 의해 꺼져버린 과정을 보여주었다. 콜론타이의 급진성은 체제 안에서 수용되어 외교관이라는 형태로 전환되었고, 김알렉산드라의 급진성은 끝내 순교로 귀결되었다. 두 사람의 이야기는 함께 읽힐 때, 20세기 가장 중추적인 역사적 순간 중 하나에 대한 강력하고, 젠더화 되었으며, 전 지구적인 관점을 제공한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의 서구 중심 사회주의 해석이나 남성 중심 계급론이 포착하지 못한 여성과 피억압 민족 주체의 실천을 복원함으로써, 사회주의 이론과 운동사에 대한 비판적 재서술의 한 사례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학문적 의의를 갖는다. 그러나 본 연구는 콜론타이와 김알렉산드라 각각에 대한 더 풍부한 원문 자료 분석이나 당시 주변부 여성 혁명가들과의 상호관계를 충분히 조망하지 못한 한계도 안고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들의

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The Affirmative Action Empire: Nations and Nationalism in the Soviet Union, 1923 - 1939』에서 소련을 “소수자 우대 제국(Affirmative Action Empire)”이라고 명명하며 이 개념을 최초로 학문적으로 제시한 학자이다.

사상이 당대 여성 사회주의 네트워크, 국제 공산당 조직 전략, 혹은 지역별 민족운동과 어떻게 연동되었는지에 대한 보다 세밀한 비교 연구로 확장될 수 있을 것이다.



V. 참고문헌

1. 사료

계봉우(필명 뒤바보), 「김알렉산드라 전기」, 『독립신문』1920년 4월 17일, 4월 20일, 4월 22일.

뒤바보, 「俄領實記(11)」, 『독립신문』1920년 4월 3일

이인섭, 『원동인민위원 소비에트(원동인민정부) 외교위원 김알렉산드라 페트로브나에 대한 회상기』, 독립기념관.

아. 쿠진, 「러시아 극동지역으로의 한인들이 이주한 문제에 관한 사료 편찬」, 『정책과학연구』14집 1호, 유즈노사할린스크시 고문서 보관국.

The program of the Social Democrats (1903)

2. 연구서

(1) 국문

김지혜(1987), 『세계여성운동 1 사회주의 여성운동 편』, 동녘.

김노박(1989), 『마르크스주의란 무엇인가』, 새날.

데이비드 보일, 유강은 역(2005), 『세계를 뒤흔든 공산당선언』, 그린비.

레닌, 최호정 역(1999), 『무엇을 할 것인가?』, 박종철출판사.

마쓰베이 지모피예비치 김, 이준형 역, 반병률 해제(1990), 『일제하 극동 시베리아의 한인 사회주의자들』, 역사비평사.

麻田雅文(2016), 『シベリア出兵』, 中央公論新社.

비어트리스 판스워드, 신민우 역(1986), 『알렉산드라 콜론타이 볼셰비키 혁명과 여성해방』, 풀빛.

- 박환 「노병김규면비망록」, 『재소한인민족운동사』, 국학자료원, 1998.
- 스트럴, P./재거, A. 편, 신인령 역(1983), 『여성해방의 이론체계』, 풀빛.
- 임경석(2003), 『한국사회주의의 기원』, 역사비평사.
- O. 안바일러, 박경옥 역(1986), 『노동자 농민 병사 소비에트』, 지양사.
- 알렉산드라 콜론타이·블라디미르 일리치 레닌, 서의운 역(2018), 『콜론타이의 여성 문제의 사회적 기초·세계 여성의 날』, 좁쌀한알.
- E. H. 카야, 이지원 역(1985), 『볼셰비키 혁명사』, 도서출판 화다.
- 존K. 장, 박원용 역(2024), 『위선의 태양 - 러시아 극동의 한인』, 소명출판.
- 정철훈a(1996), 『김알렉산드라 평전』, 필담.
- 정철훈b(2021), 『알렉산드라 페트로브나 김-역사가 지운 한인 최초 여성 사회주의자의 일대기』, 시대의 창.
- 정태수(1989), 『소련 한족사』,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정동주(1995), 『까레이스끼, 또하나의 민족사』, 우리문화사.
- 콜론타이·체트킨·레닌·트로츠키, 정진희 역(2015), 『마르크스주의자들의 여성해방론』, 책갈피.
- 칼 맑스·프리드리히 엥겔스, 심철민 역(2018), 『공산당선언』, 도서출판 b.
- 카를 마르크스·프리드리히 엥겔스, 권화현 역(2010), 『공산당선언』, 펍킨클래식코리아.

3. 학술논문

(1) 국문

- 기계형a(2007), 「1917년 러시아혁명과 여성: 일상생활의 연속성과 변화」, 『여성과 역사』 제12집.
- 기계형b(2007), 「일상생활과 젠더정치 - 소비에트시대 초기의 여성부(Же

- ногдел), 1919-1923-」, 『여성과 역사』 제8집.
- 기계형c(2011), 「중앙아시아의 민족, 젠더, 그리고 베일: 1920년대 우즈베키스탄의 후쭈(Hujum)운동을 중심으로」, 『역사와 경제』 79.
- 김명호(1987), 「러시아혁명의 성격分析-革命主體勢力論爭을 中心으로-」, 『現代理念研究』 제5집.
- 김상철a(2015), 「중앙아시아 사회의 여성지위와 역할변화-제정러시아 및 소비에트시기를 중심으로-」, 『중동연구』 제33권 3호.
- 김상철b(2015), 「포스트소비에트 중앙아시아 사회의 여성 지위와 인식변화에 대한 연구」, 『중소연구』 제38권 제4호.
- 김세연(1995), 「맑스와 러시아혁명」, 『韓國政治學會報』 29輯 1號.
- 김은실a(2008), 「여성해방'에 대한 콜론타이와 레닌의 정치적 갈등」, 『정치사상연구』 제14집 1호.
- 김은실b(2004), 「소비에트 사회에서의 여성해방론 실험: 콜론타이의 여성해방론을 중심으로」, 『아시아여성연구』 제43집 제2호.
- 김은실c(2007), 「콜론타이의 여성 인권과 자유의 정치사상」, 『민주주의와 인권』 제9권 3호.
- 김은영(2017), 「러시아혁명과 여성해방」, 『마르크스21』 19호, 특집Ⅱ: 러시아혁명 100주년.
- 김준엽·김창순(1967), 「볼셰비키 革命과 러시아의 韓人」, 『아세아연구』.
- 남석주(2008), 「소비에트 정권초기의 여성문제」, 『슬라브학보』 제16권 1호.
- 노경덕(2020), 「제1차 세계대전 말 유럽의 국제정치와 민족자결주의」, 『역사학보』 245, 역사학회.
- 노엘 헬리팩스, 김동욱 역(2017), 「최초의 성 해방운동과 사회주의 운동」, 『마르크스 21』 20호, 특집 I 페미니즘과 성 해방.
- 류한수(2006), 「여성 노동자인가, 노동하는 바바(баба)인가? : 러시아 내전

- 기(1918~1921년)」, 학술활동 결과보고서.
- 마이클 헤인스, 이정구 역(2017), 「1917년 러시아에서 부르주아 민주주의 적대안은 있었나?」, 『마르크스』21.
- 민경현(2001), 「레닌의 민족자결주의-10월 혁명 이전 시기를 중심으로」, 『사총』54, 고려대학교 역사연구소.
- 박상철(1992), 「뻬뜨로그라드 소비에트의 형성과 혁명세력들」, 『西洋史研究』 第14輯.
- 박원용(2013), 「일상생활의 영역에서 바라 본 1920년대 러시아 농촌에서의 신여성형 창조」, 『여성학연구』 제23권 제1호.
- 박환(1992), 「한인사회당 지도자 김알렉산드라 페트로브나(스탄케비치)」, 『西巖趙恒來教授華甲紀念韓國史學論叢』, 아세아문화사.
- 반병률a(1990), 「김알렉산드라 페트로브나(스탄케비치)의 생애와 활동 조선인 최초의 공산주의자의 약전-」, 『尹炳東教授華甲紀念韓國近代史論叢』.
- 반병률b(1997), 「露嶺 沿海州 한인사회와 한인민족운동(1905~1911)」, 『한국근현대사연구』 제7집.
- 반병률c(2007), 「러시아 한인(고려인) 사회와 정체성의 변화-러시아원동시기(1863~1937)를 중심으로-」, 『韓國史研究』(140).
- 백종성·사회변혁노동자당(2017), 「러시아혁명, 볼셰비키가 직면한 도약과 제약」, 『진보평론』73호.
- 이득재(2017), 「1917년 러시아혁명 이전 러시아 기층 노동자들의 운동 연구」, 『문화연구』 5권 2호.
- 이정희(2008), 「러시아 10월 혁명은 노동자들에게 과연 혁명적이었을까?」, 『서양사론』제96호.
- 이정구(2018), 「러시아 10월혁명 100주년 기념 저작들에 대한 비판적 평가」, 『마르크스』21.

- 이인호(1983), 「제정러시아에서의 마르크스주의의 수용과정」, 『사회과학과 정책연구』Vol. 5 No 1.
- 이현숙(2013), 「소비에트 초기 중앙아시아 여성 정책과 정체성」, 『아시아 여성연구』 제52권 1호.
- 오세호(2020), 「소비에트 러시아의 동아시아 정책과 초기 한인사회주의 세력의 갈등(1919~1921)」, 『한국독립운동사연구』제71집.
- 윤상원(2010), 「시베리아내전의 발발과 연해주 한인사회의 동향」, 『韓國史學報』제41호.
- 주디 콕스, 김재현 역(2021), 「세상 밖으로, 여성 레닌주의자들과 러시아 사회주의」, 『마르크스21』46호.
- 최대회a(2003), 「혁명과 내전 사이의 여성노동자의 일상과 정치(1917-1920)」, 『슬라브研究』 제19권 1호.
- 최대회b(2003), 「혁명과 내전 사이의 여성노동자의 일상과 정치(1917-1920)」, 『슬라브研究』제19권 1호.
- 천연옥(2020), 「사회주의 사회에서 여성의 지위와 역할」, 『현장과 광장』3호.
- 황동하(2018), 「1905년과 1917년 페트로그라드 -‘혁명의 거리’, ‘광장의 정치」, 『역사연구』35호.
- 홍용호(2013), 「레닌과 스탈린시기 소비에트러시아의 민족정책 변화」, 『사림』제46호.
- 한정숙a(2018), 「세계사 속의 러시아혁명」, 『한중관계연구』 제4권 1호.
- 한정숙b(2008), 「알렉산드라 콜론타이 : 여성해방과 평화를 위해 바친 사회주의자의 삶」, 『역사와 문화』 16.
- 한정숙c(2008), 「알렉산드라 콜론타이와 여성주의: ‘부르주아’ 여성주의 비판에서 사회주의적 급진적 여성해방론으로」, 『러시아연구』제18권 제2호.

(2) 영문

Clements, Barbara Evans(1973), “Emancipation Through Communism: The Ideology of A. M. Kollontai.” *Slavic Review*, vol. 32, no. 2, pp. 323-338.

Clements, Barbara Evans(1982), “Working-Class and Peasant Women in the Russian Revolution, 1917-1923.” *Signs*, vol. 8, no. 2, pp. 215-235.

Cox, Judy(2021), “Out of the shadows: Female Leninists and Russian socialism.” *International Socialism*, no. p. 169.

Christine Sypnowich(1993), “Alexandra Kollontai and the Fate of Bolshevik Feminism.” *Labour/Le Travail*, vol. 32, pp. 287-295.

Eisenstadt, S. N.(2000), “Multiple Modernities.” *Daedalus*, vol. 129, no. 1, Winter, pp. 1-29.

Natalia Novikova and Kristen Ghodsee(2023), “Alexandra Kollontai(1872-1952): Communism as the Only Way Toward Women’s Liberation.” *The Palgrave Handbook of Communist Women Activists around the World*, edited by Francisca de Haan, Palgrave Macmillan.

Ruthchild, Rochelle Goldberg(2017), “Women and Gender in 1917.” *Slavic Review*, vol. 76, no. 3.

Goldman, Emma(1969), *Anarchism and Other Essays*. Dover Publications. (Originally published 1910)

Martin Terry(2001), *The Affirmative Action Empire: Nations and Nationalism in the Soviet Union, 1923-1939*. Cornell University Press.

Maxine Molyneux(1990), *The ‘Woman Question’ in the Age of Perestroika*.

Moore Barrington(1966), Social Origins of Dictatorship and Democracy: Lord and Peasant in the Making of the Modern World. Beacon Press.

Rosenberg, William G.(1990), editor. Bolshevik Visions: First Phase of the Cultural Revolution in Soviet Russia. Part 1,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Simon, Gerhard(1986), Nationalismus und Nationalitätenpolitik in der Sowjetunion. Von der totalitären Diktatur zur nachstalinischen Gesellschaft. Nomos-Verlagsgesellschaft.

Wood Elizabeth A.(1997), The Baba and the Comrade: Gender and Politics in Revolutionary Russia. Indiana University Press.

4. 학위논문

(1) 국문

고유경(2003), 「알렉산드라 콜론타이(Alexandra M. Kollontai)의 여성관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구범모(2020), 「러시아 내전기 크라스노쇼코프의 시베리아 활동과 극동공화국 역내정치에서 지정학으로의 초점 변화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현영(2004), 「1910년대 사회운동과 김알렉산드라」,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정용(2022), 「시베리아 한인사회의 사회주의 수용과 이르쿠츠크 콤그룹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백숙현(2020), 「사회주의 여성운동가 허정숙(1903-1991)의 활동과 사상에

대한 재고찰 - 콜론타이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정병혜(2023), 「한중 프롤레타리아 희곡에 나타난 여성 형상 비교 연구-김영팔(金榮八)과 텐한(田漢)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5. 기타

(1) 사이트

Földvári Books. Жизнь финляндскихъ рабочихъ. Экономическое и зслѣдованіе. Accessed May 28, 2025.

<https://www.foldvaribooks.com/pages/books/031218/aleksandra-kollontai/zhizn-finliandskikh-rabochikh-ekonomicheskoe-izsl-dovaniie>

Indiana University Press. “BOLSHEVIK FEMINIST: The Life of Aleksandra Kollontai”. Open Indiana. Accessed May 28, 2025.

<https://openrussianfutures.sitehost.iu.edu/sources/kollontai-life/>

Ghodsee, Kristen. Kristen Ghodsee Scholars Harvard. Accessed May 28, 2025. <https://kristenghodsee.scholars.harvard.edu/file/url/700>

Spartacus Educational. Accessed May 26, 2025.

<https://spartacus-educational.com/LRUSkollontai.htm?utm-source=chatgpt.com>

(2) 신문

박남일, <창당 100주년: 한인사회당, 아시아 최초로 사회주의 깃발을 들다> 다르게 세상 읽기, 2018.

월간중앙 JANUARY, 신명호의 상해임정 27년사 10, 2023.